



10

1982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2. 10호

(루게 420)



◆◆◆◆◆◆◆◆◆◆

## 차 례

◆◆◆◆◆◆◆◆◆◆

《80년대속도》창조에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일대 혁명적양양을 일으키자! .....	4
노래하세 내 조국은 배움의 나라.....	7
주체사상탑을 우리러.....	8
개선문 .....	9
친애하는 지도자 <b>김정일</b> 동지께 드립니다 .....	10
우리는 강철전사다!.....	11
혁명의 대지를 가꾸어가시는 사랑의 길우에 수놓아진 거룩한 자욱 .....	13
나의 어머니당이어 .....	20
영원한 신념과 충성의 노래로! .....	21
만경대여 길이 전하라.....	22
발을 맞추라, 김철의 행진곡에! .....	36
그의 휴가.....	38
하늘과 들이 따라외우고(외 1 편).....	44
굴착선이 떠난다 .....	44

빛나라 주체의 태양 .....	45
그대는 혁명전위 .....	46
우리는 불을 단다.....	47
못별들 .....	48
봄비 .....	55
첫새벽 푸른 하늘.....	60
막내아들 채탄공이 되였네 .....	60
국경역에서 .....	61
내가 서야 할 위치 .....	62
날바다 20 리 파도우에 .....	73
남조선에 류포된 아메리카니즘과 민족허무주의사상의 독소 .....	74

## 《80년대속도》창조에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일대 혁명적양양을 일으키자!

최근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우리 문학예술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이 이룩한 고귀한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지침을 주었다.

오늘 당의 이 방침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일대 혁명적양양을 일으키는것은 언제나 당에 무한히 충실하여온 우리의 혁명적인 작가, 예술인들의 보람차고 영예로운 임무이다.

지금 온 나라에는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혁명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천만산악이라도 뛰어넘고 만리격랑이라도 헤쳐나갈 충성의 열정을 안은 온 나라 근로자들은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폭풍같이 일떠서고있다.

전국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80년대속도》창조를 호소한 철의 도시, 김철은 온종일 해쉴는 바다처럼 설레이며 끓어번지고있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에 19만톤의 용광로에서 27만톤의 선철을 뽑아내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련일 철생산에서 일찌기 있어본 일 없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항상 지금보다도 더 좋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투쟁하고 끊임없이 발전하여야만 혁명을 완수하고 공산주의의 락원을 건설할수 있습니다.》**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는 우리 당의 전투적구호는 지금 온 나라를 혁명적열정으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이 구호에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으로 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수행하며 당면하게는 제2차 7개년계획을 하루빨리 완수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더욱 유족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과 굳은 결의가 담겨져있다.

문학예술부문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바로 혁명발전의 이 객관적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 당 사상사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 사상사업은 새로운 높은 발전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 당은 지금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을 모르는 혁명적신념으로, 의지로 간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한 김혁, 차광수 등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는 바로 여기에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다.

《80년대속도》-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에 기초해서만 창조될수 있는것이다.

문학예술부문에서 다시한번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우리 당 사상사업발전의 이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 문학예술발전의 필연적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우리 주체문학예술은 우리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그 언제나 선도적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우리 혁명위업에 충실히 복무하여왔다. 선도성, 현대성, 전투성 그것은 우리 주체문학예술이 그 어느 다른 나라 문학예술에 비길수 없는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있으며 크나큰 자랑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문학예술의 선도성, 전투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문학예술부문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문예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무장시킴이 없이는 우리 근로자들을 《80년대속도》창조어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창조할수 없다.

문학예술부문에서 다시한번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우리 혁명의 객관적요구와 우리 당사상사업의 내적요구 그리고 우

리 문학예술발전의 합법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 가장 정당한 방침으로서 모든 창작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이 방침에는 문학예술부문에서 다시한번 혁명적 대고조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더욱 높이고 당이 이룩하여놓은 고귀한 업적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혁명적의지가 깃들어있다.

뿐만아니라 이 방침에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과 일군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문예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더욱 높임으로써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혁명적인 작가, 예술인들로 끝까지 키워나가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있다.

오늘 문학예술부문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문학예술에서 당이 이룩하여 놓은 고귀한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는 가장 영예롭고 성스러운 투쟁이며 우리 문학예술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더욱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그러면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혁명적문학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우선 현실생활이 제기하는 정치적으로 의의있고 철학적으로 무게있는 종사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반영하며 심오한 사회전문제성을 독창적으로 내세우는것이다.

《80년대속도》창조로 들끓는 우리의 새로운 현실은 창작가들에게 일찌기 있어본 일 없었던 수많은 새로운 사회전문제, 인간문제들을 제공하고 있다.

수령을 모시는 전사의 립장과 자세는 어떤것으로 되어야 하며 전사는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을 어떻게 간직하여야 하는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초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동지애는 어떤것으로 되어야 하며 주체의 료리관의 핵은 무엇인가, 삶의 참다운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혁명가의 빛나는 삶은 진정 어떤것인가, 신념과 의리로 간직한 전사의 충성심은 어떤것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등 이 모든 문제들은 오늘 《80년대속도》창조에 일떠선 우리의 근로자들이 흥분없이 대할수 없는 절박한 사회전문제들이며 인간문제들이다.

우리의 새로운 현실은 이 모든 문제들을 오늘

의 견지에 서서 미학적으로 새롭게 풀어줄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의 생활이 제기하는 이 미학적문제, 인간학전문제들을 높은 당적안목을 가지고 형상적으로 풀어주는것은 《80년대속도》창조에 일떠선 우리 혁명적작가들의 고귀한 임무이며 절박한 과제이다.

문제는 우리 작가들이 예리한 정치적안목과 현실을 뜨겁게 대할줄 아는 미학적감정을 가지는것이 필요하다. 정치적예리성과 높은 미학적공감 그리고 생활에 대한 정열적탐구가 있는 작가는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벽찬 현실을 스쳐지날수 없으며 우리 생활이 제기하는 새로운 사회전문제성들을 놓칠수 없다.

혁명적문학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80년대속도》창조에 일떠선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세계를 빛나는 형상으로 창조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당의 의도라면 만리격랑도 헤쳐나가는 혁명적의지,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지혜 이 모든것은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적특징을 이루고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며 끝없는 충실성이다. 이것은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80년대속도》를 낳는 사상정신적기초로 되고 있다.

말은 적게 해도 당과 혁명을 위해 견결히 투쟁할줄 알며 실천하는 사람, 이것이 진짜배기 당의 전사, 진짜배기 수령의 전사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 인민이 요구하는 정신도덕적풍모이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온몸이 그대로 불이 되어 혁명의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한 청년공산주의 자들과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안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말은 임무를 끝까지 수행한 불굴의 항일투사들, 항일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전쟁의 불비속에서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지켜 불사조와 같은 용맹을 발휘한 인민군 전사들과 전후복구건설과 천리마대진군의 나날에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한 유명, 무명의 수많은 전사들, 그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는 바로 오늘 우리의 투쟁에서 산 모범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이 《80년대속도》창조에 일떠선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영웅군상들과 함께 우리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당과 수령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나간 이들 영웅투사들의 군상들을 빛나는 형상으로 창조함으로

써 인민들을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80년대속도》창조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세계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다. 《80년대속도》창조의 기저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과 함께 자신의 힘을 철석같이 믿고 자기의 운명을 자신이 개척해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놓여 있다.

《80년대속도》창조에 이바지하는 우리의 문학은 우리 인민의 이 고결한 사상정신세계를 높은 형상으로 노래하여야 한다.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구상을 쫓아오는 길에서는 그 어떤 리유와 조건타발도 없이 부족한것은 찾아 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어 온갖 난관을 뚫고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고야마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묘사하는것은 오늘 우리 문학앞에 나서는 절박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 문학은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세계에서 발현되는 이 고귀한 사상감정을 높은 사상에 예술적 수준에서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혁명적문학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80년대속도》창조에 일떠선 오늘 우리 인민의 투쟁을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의 밀접한 통일속에서 폭넓고 진실하게 그려내는것이다.

《80년대속도》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심화시키고 더욱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창조된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묘사하는것은 생활의 필연적요구이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미학적문제로 나서는것은 현실적갈등을 옹계 포착하고 묘사하는것이다.

《80년대속도》창조, 이것은 온갖 낡은것과의 심각한 투쟁을 동반한다. 자만과 권태, 안일과 해이, 보수와 침체, 공명과 리기 등은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과 대립되는 사상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작품들은 심각한 갈등속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투쟁을 높은 사상미학적전지에서 옹계 포착하고 진실하게 묘사하여야 한다.

사상에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데서 또하나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80년대속도》를 창조하는 현실에 맞게 창작에서 예술적형상의 다양한 수단과 수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개척하는것이다.

새로운 생활은 그 언제나 예술에 새롭고 풍부한 기교들과 묘사수법들, 다양한 언어구사를 요구한다. 새로운 생활에 맞는 새롭고 풍부한 예술적형상의 다양한 수단들과 수법들을 독창적으로

개척함이 없이는 우리 문학의 사상에예술적질을 높일수 없으며 또 우리 문학을 현실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도 없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작품창작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도식주의적요소도 엄격히 경계하여야 한다.

한틀에 찍어내는것과 같은 판박이작품은 아무런 교양적역할도 수행할수 없다. 다양하고 개성적이며 특색있는 작품만이 인민의 사랑을 받을수 있다.

모든 작가들은 우리 시대의 기상을 담을수 있는 예술적형상의 다양한 수단과 수법들을 대담하게 탐구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시대의 기상을 담을수 있는 양상, 우리 시대의 열정을 토로할수 있는 언어, 우리 시대의 생활을 훌륭하게 노래할수 있는 묘사수법을 적극적으 대담하게 탐구하는것은 《80년대속도》창조에 이바지하는 우리 문학앞에 나선 중요한 과제이다.

소설문학은 《80년대속도》창조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거창한 투쟁을 서사적화폭속에 폭넓고 깊이있게 그릴수 있는 훌륭한 문학형식이다. 우리의 소설문학앞에는 서사문학의 우월한 특성을 널리 살려 우리 생활의 도처에서 벌어지는 격동적인 이야기를 폭넓은 화폭속에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냄으로써 인민들을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할 영예로운 사명이 나서고있다.

우리 소설작가들은 당의 문예전사된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소설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서정시는 드높은 열정으로 오늘 우리 인민들을 거세찬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가장 호소적이고 전투적인 문학형식이다. 우리의 혁명적인 시인들은 뜨거운 심장을 안고 《80년대속도》로 들끓는 오늘 투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우리 인민들의 불굴의 기상을 높은 전투성과 서정성으로 노래함으로써 온 나라에 혁명적열풍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자.

극문학은 생활을 새것과 낡은것의 투쟁속에서 보여줌으로써 새것의 필연적인 승리를 확인하고 낡은것의 멸망을 선고하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문학형식이다. 우리 극문학은 《성황당》식혁명연극의 우월한 특성과 형식을 더욱 발전시켜 《80년대속도》창조에 일떠선 우리 인민들을 보람찬 투쟁으로 부르며 혁명적락관주의로 더욱 들끓게 하자.

오늘 우리 생활은 수많은 아동문학작품을 요구하고있다. 아동문학작가들은 오늘 우리의 아동들의 심리적특성에 맞는 동화, 동시, 아동소설 등 다양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혁명의 후

비대들을 당과 수령께 끝까지 충직한 열렬한 혁명가로 키우는데 자신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자!

그리하여 작품창작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우리 문단을 더욱 들끓게 하자.

오늘 시대가 요구하는 이 무겁고 방대한 과업을 실현하려면 작가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창작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문예방침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창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우리 당이 작가들에게 맡겨준 책임적이고 보람찬 사업이다. 높은 자각성과 책임성, 완강한 투지가 없이는 고도의 창조성을 요구하는 문학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창작에서는 작가의 사상과 함께 감정, 사색 등은 정신력이 집중된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바치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 당과 수령을 받드는 혁명적신념만이 창작을 성공으로 이끌수 있다.

모든 창작가들은 《김혁과 나》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수령의 전사, 당의 혁명전사된 자세와 립장을 바로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작가들은 자신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높은 정치

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이 없으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문예방침을 철저히 관철할수 없다. 모든 작가들은 정치학습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주체의 세계관과 주체적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혁명적독서기풍을 세워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현실은 작가에게 있어서 창작의 끝없는 원천이며 창작적기량을 꽃피울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다.

모든 작가들은 《80년대속도》로 들끓는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우리 근로자들속에서 일어나고있는 기적과 영웅적위훈을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노래 하여야 한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창작지도일군들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모든 창작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지휘관답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문예방침을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80년대속도》 창조의 앞장에 서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창작사업전반을 힘있게 내미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오늘 영광스러운 당은 우리 작가들을 한없는 믿음과 뜨거운 사랑의 손길로 《80년대속도》창조에 이바지하는 력사적인 진군길에 불러주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영광스러운 당의 이 부름에 불사신이 되며 달려나감으로써 일찌기 있어본 일 없는 창작적대고조로 당의 신임에 보답하자!

## 가사

# 노래하세 내 조국은 배움의 나라

김응하

도래굽이 돌아도 학교가 반기고

높은 령 넘어서도 종소리 울리네

노래하세 내 조국은 배움의 나라

어데 가나 배움의 길 넓고넓어라

수령님은 온 나라의 학부형 되시고

인민은 모두다 학생이 되였네

노래하세 내 조국은 배움의 나라

이 자랑 이 행복 세상에 더 없네

위대한 교육테제 그 빛발 안고서

로동자도 농민도 지식인으로 자라네

노래하세 내 조국은 배움의 나라

온 누리에 찬란히 빛을 뿌리네

# 주체사상탑을 우러러

홍현양

햇불이 타오른다  
세기의 열망  
만민의 념원을 안고  
주체의 해발이 홀려넘친다

우러러 바라보면  
하늘을 물들이며 솟구쳐오르는  
삶의 열정  
아, 환희의 빛발  
해살처럼 누리에 퍼져가는  
위대한 진리의 햇불이여

생각하면  
세월은 수억만년  
역사는 수천만년  
이 땅에 드리운 어둠을 가셔낼  
그 한점 불꽃은  
어디에 있었는가

운명의 밝은 빛을 찾아  
삶의 길을 찾아 수천만리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리던  
광명의 햇불을  
네가 안고 솟아있구나  
주체사상탑이여

우러르면  
장엄한 그 위용  
백두의 줄기줄기  
천만산악이 솟아오른듯  
저 우주의 한끝  
세기의 절정우에  
햇불이 탄다

물어보자  
역사여  
그 누가 저 햇불  
세기의 창공에 밝히였던가

아득한 광야의 한끝  
백두밀림의 피어린 자옥자옥우에  
새겨진 진리  
세계의 중심에

사람을 내세우시고  
그 힘 그 슬기를  
햇불로 추켜드신  
아, 그이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그 위업  
만대에 길이 전하며  
탑이 솟은 이 기슭에  
만민의 삶이 뿌리내리고  
햇불이 타는 저 하늘에  
인류의 념원이  
봄빛으로 홀려넘친다

그 빛발 지니면  
가는 길에 어둠을 모르고  
먼먼 미래에 태어날 웃음도  
한빛으로 가꾸어지리

아, 태양의 은혜로움을  
사람마다 안고살듯  
타오르는 저 햇불은  
만민의 운명에 봄을 준 해빛

그 파사로움  
달리 무엇이랴 말하랴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해빛인 저 불길  
자주성을  
천만사람에게  
하나의 생명으로 안겨주는 그것

아, 그 빛발은  
태양!  
세계의 중심  
탑이여, 너는  
그 세계를 안고 솟아오른 절정!

세기의 창공에  
빛발을 날리며  
거연히 솟아있으랴  
위대한 주체사상탑이여  
너는 저 하늘가에  
영원한 삶인  
인류의 햇불을 높이 받들어올렸구나!



# 개선문

차영도

이 강산에 넘치는 봄빛도  
삼가 여기에 내리고  
불어오는 바람결도  
하늘중천에 들린  
저 처마밑을 감돌아 흐른다

우러르면  
세기가 받들어올린  
화강석지붕의 그 숭엄함  
다가서면  
만고의 위엄으로  
누리에 넘치는 그 빛발

우람한 기둥은  
불멸의 역사를 받들어 억척같고  
다듬어 쌓아올린 성문은  
이룩하신 위업의 그 무게를 실어  
이리도 장엄한것이나

개선문 개선문  
이 거룩한 문앞에 무심히 서지 말라  
여기서  
이 나라의 애타던 가슴들이  
세월을 기다려 태양을 맞이했고

여기서  
사슬을 풀어헤친 조선이  
두주먹 높이 쳐들어  
력사앞에 선언했나니  
전설의 영웅, 만고의 령장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르던  
그날의 감격, 그날의 환희로  
여기 높이 솟은 개선문 개선문

말하라  
력사가 여기에 새긴  
《1925-1945》  
저 두 글발우에  
얼마나 간고한 조선의 년대기가 흘러왔더냐

오, 여기  
처마밑을 조용히 흐르는  
한줄기 바람결에서도  
사람들이여 삼가 들으라

우리 수령님 20여성상 헤쳐오신  
백두의 그 눈바람소리를

맑은 하늘을 떠인 저 지붕밑에서  
만대를 두고 잊지 말라  
천고의 밀림을 지붕삼아  
우리 수령님 맞아오신  
그 기나긴 세월의 하많은 눈비를

인민이 삼아올린 한켠레의 질신으로  
강설이 얼어붙은 그 솟눈길우에  
혁명의 첫자욱을 새기시던 그날부터  
이 세상 일만고초 다 격으시며  
우리 수령님 걸어오신 길

세기가 구원하지 못한 조선을  
력사가 구원하지 못한 인민을  
운명의 막바지에서 구원하시려  
그 긴긴세월 헤쳐오신 혈전만리

아, 천년을 굳어온 돌을 갈아  
억만송이 꽃으로 이 문을 장식한들  
수령님 조국을 찾아안고 돌아오신  
그 자욱자욱  
어찌 다 수놓을수 있으랴

우람한 저 화강석지붕을  
이 세상 하늘끝까지 쌓아올린들  
수령님 만고에 쌓으신 그 위업  
어찌 다 받들어올릴수 있으랴

천대를 두고 갯을 길 없고  
만대를 두고 잊을 길 없는  
그 사랑 그 은혜  
인민은 여기에 개선문을 높이 세워  
력사앞에 노래하나니

이 문에 새겨진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해와 별 찬란한 하늘밑에서  
무궁한 세월이 받아부를  
영원불멸의 혁명송가

로대우에 높이 선 저 청동의 나팔수는

수령님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단 하나 그 신념을 소리높이 웨치는  
영원한 시대의 가수

아, 만경대의 그 작은 사립문이  
백두를 향해 열리던 그날부터  
기다려 한마음 세월이 쌓아왔고  
기다려 한마음 력사가 쌓아온  
개선문 개선문!

너는 이 땅우에 흘러가던  
세기의 어둠이 끝난곳에

태양을 받들어 거룩히 솟은  
광명의 첫 성문!

이 문에서  
조선의 푸른 하늘이 만리에 열리고  
이 문에서  
자주의 봄푸른 대지가 펼쳐졌나니

오, 청사에 길이 빛나라  
개선문 개선문  
수천년의 인류력사우에  
광활한 새세계를 펼친  
위대한 세기의 성문이어!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립니다

까르멜로 가르시아 페르난데스

수천년력사우에  
향도의 별로 솟아오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청춘의 세찬 기백 넘치십니다

영웅적조선인민은 높이 모시고있습니다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동지를  
영원히 우러러따르웁니다  
친근하신 지도자동지를

혁명의 힘찬 북소리  
만방에 높이높이 울려가고  
사람들은 오늘의 보람 노해하며  
희망찬 래일로로 줄달음쳐갑니다

복받은 조선인민  
백전백승하는 조선인민  
지도자동지를 충성으로 우러르며  
옹바른 령도 받들어갑니다

그 이름 길이 빛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남녀로소 만백성은  
당신을 우러러 영광드리웁니다

백두의 정기 이어받으시여  
당신의 힘과 예지 끝이 없거늘

사시장철 인민에게 안겨주십니다  
풍만한 열매를

당신은 산정의 푸른 소나무  
사나운 폭풍도 이겨가십니다  
당신은 불멸의 향도성  
그 빛발로 만물을 따사롭게 비쳐주십니다

당신은 인민을 찾아가십니다  
거리와 공장으로  
머나먼 농장별로  
초소의 병사들에게로

당신은 주체위업을 위한  
충성의 위대한 구감이십니다  
인류는 그 길을 따릅니다  
행복을 꽃피우는 그 길을

북과 남, 온 강토에  
겨레의 가슴마다에  
당신은 세차게 지펴주십니다  
통일의 불꽃을

당신은 조선의 미래이시며  
젊주리는 남녘동포들의 희망이시나니  
평화를 사랑하는 인민들  
당신의 가르치심을 따르웁니다

시대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로동당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당신은 나아갈 길 개척하십니다

주체를 위한 투쟁에서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당신은 심어주십니다  
힘과 슬기를

당신은 가시덤불 헤치시며  
위대한 창조의 세계를 펼치시어  
아름답게 꽃피워오시었습니다  
문학예술의 자랑찬 열매를

당신께서 밝혀주시는 길은  
빛나는 력사의 길  
그 휘황한 진리의 길을 따라  
인민은 전진합니다

위대한 주체의 기치 높이 드신  
당신의 혁명사상은  
찬란한 빛을 뿌리며  
광활한 앞날을 밝혀줍니다

당신의 리상은 무르익어  
위대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꽃피어  
그 아름다운 화원에서 인민은 행복

누릴것입니다  
전쟁도 굶주림도 험벗음도 모르고

천리마는 나래치며  
기수는 승전고를 울리며  
자력갱생의 길을 따라  
질풍같이 내달립니다

슬기로운 조선인민은  
평화통일 바라지만  
싸움으로 부를 때면  
모두 성전으로 떨쳐나서리니

우리는 해방된 인민들  
새형의 인간들  
영원히 굳게 손잡고  
억세계 싸워나갑니다

그 어떤 원쑤도  
깨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친선의 힘  
혁명적단결의 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여  
우리는 삼가 축원하옵니다  
당신의 만년장수와  
영원한 행복을!

(필자는 꾸바 시인)

## 우리는 강철전사다!

변홍영

시대의 숨결인양  
화광이 번뜩이는 구내를 걸을 때  
당을 받드는 계급의 량심으로  
쇠물을 꿰이는 로앞에 설 때  
가슴은 터질듯 궁지에 차넘친다

우리는 강철전사다

혁명의 불바람을 마시며  
가슴속에 움트고 자랐다  
이 도도한 궁지는  
뿔고넘어야 할 돌파구앞에서

그 언제나 우리를 제일먼저 찾으시는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속에  
억년 뿌리를 내렸다

해방의 그날엔  
만경대를 지척에 두시고  
제강소를 먼저 찾으신 그 사랑에  
우리 뜨거운 눈물로 첫 쇠물을 꿰였고

전후의 그날엔  
헤쳐야 할 시련을 앞에 두시고  
우리를 믿어 찾아주신 그 은정에

계급의 불같은 충성으로  
대고조의 류출구를 터쳤나니

그 몇몇해더나  
위대한 사랑과 충성으로 빛나는  
이 땅의 철의 력사는

휘황한 전망목표를 향해  
진군의 포성을 울리시고  
오늘은 또다시  
대고조의 앞장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그 사랑

오, 흘러가라 쇠물이어  
그 사랑 안고  
출렁이며 사뭇치는 저 쇠물은  
56년의 엄혹한 그 겨울  
우리의 가슴속에 끓던 그 불덩이다

쏟아지라, 강철폭포여  
시뻘건 강편을 밀어내는  
분피압연기의 저 거창한 동음  
그것은 당의 부름따라  
낡은 공청능력을 뛰어넘던  
그날의 그 기세로 나아가는  
우리의 총진군의 발구름이다

간고했던 혁명의 년대들에  
살기쁜 종파놈들의 야욕을  
티검불같이 로속에 처넣으며  
거침없이 달려온 우리의 진군길

강철전사들의 숨결로 세기를 숨쉬며  
이 길에서 날아오른 천리마  
오늘은 우리 당이 가리킨  
천년 미래를 끌어안으며  
속도전의 열풍속에 나래쫘나니

백광을 내뿜는 로같이  
혁명의 불을 안은 철의 구내  
저 꺼질줄 모르는 불노을인양  
3대혁명기발을 추켜들고  
천만 심장이  
끓으며 솟구치며  
80년대의 장엄한 진군길을 열어간다

명예도 보수도 바람이 없이

한생을 로앞에 살았건만  
숨은 영웅들의 깨끗한 량심에  
걸음걸음을 비춰보는  
저 영웅로장의 눈빛에도  
드높은 계급의 자각이 번뜩이고

조국의 궤도로로  
강재를 만재한 화차들을 바래우며  
손을 짓는 꿈많은 신입공의 가슴에도  
당의 뜨거운 숨결이 넘친다

오 비약하자, 강철전사들이여  
우리 가는 앞길에  
찬란한 미래를 떠이고  
부강한 내 조국이 솟아오른다

간고한 날에 믿어주시고  
이 벽찬 투쟁의 날에  
다시 불러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  
충성의 불길이 되어  
우리의 가슴마다 타오르거니

예지로운 당의 빛발이 넘치는  
영광의 80년대는  
얼마나 위대한 승리의 봉우리로  
세기우에 빛날것이나

당이 바라는것  
그것은  
우리 삶의 목표이며 그 전부  
절대성, 무조건성  
이는  
계급의 드팀없는 신조

아, 수령님 모시고  
준엄한 길을 걸으며  
이 가슴에 버려지고 억세여진  
강철의 신념  
당중앙을 따르는 한길우에  
더욱 붉게 피어나리라

어제도 오늘도 하나로 굽이치는  
티없이 맑은 충성의 마음 안고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받들어갈  
우리는 강철전사다!

# 혁명의 대지를 가꾸어가시는 사랑의 길위에 수놓아진 거룩한 자욱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에 대하여-

리유근

4. 15문학창작단에서 창작한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는 1930년 여름부터 1931년 초봄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종파사대주의자들과 좌경모험주의자들이 일으킨 5. 30 및 8. 1폭동의 후파로 우리 혁명앞에 가로놓였던 엄중한 난국을 자신의 한몸으로 막아나 서시여 조선혁명을 또다시 일대 양양으로 불러일으키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빛나는 서사시적화폭으로 묘사한 또 하나의 훌륭한 혁명적대작이다.

작품은 참된 지도자의 올바른 령도가 있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이 있는 한 혁명의 그 어떤 침체기도 있을수 없으며 혁명은 반드시 승승장구한다는 생활의 진리를 심오한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진실하게 밝혀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력사적경험을 분석총화한 데 기초하여 험난한 혁명의 진로를 헤쳐나가는 과정에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통하여 그것을 더욱 발전풍부화시켰습니다.》

작품은 크게 3권으로 구성되어있는바 제1권에서는 종파사대주의자들과의 결별을 선언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력사적인 카툰회의방침을 관철하시기 위하여 광활한 지대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시는 한편 몸소 해룡과 길림, 고유수등 여러 지역에 나가시여 인민대중을 교양하시고 폭동의 후파를 수습하시기 위한 대책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과정을 그리였고 제2권에서는 교화와 돈화, 간도와 온성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복구하시기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려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활동을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으며 마감 제3권은 오가자농촌을 혁명화하여 대중적지반의 본보기를 꾸려나가는 과정을 감동적인 생활사실들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그러면서 작품은 력사발전을 추동하는 힘도 인

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위대한 진리를 형상적으로 확인하고 혁명승리의 합법칙적요인과 그 필연성에 대하여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었다.

## 1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의 사상예술적성과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실지 있는 력사적사실들에 기초한 예술적전형화를 통하여 혁명의 탁월한 수령으로서의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영상을 작품의 중심에 정중히 모시고있는 그것이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작품에 옮기는데 있어서 수령님의 영상을 어떻게 모시는가 하는것은 혁명적대작의 사상예술적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류례없이 간고한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 오신 우리 혁명의 찬란한 향도성이시며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를 떠나서 우리 혁명의 어제와 오늘을 말할수 없고 보다 휘황한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이는 지나온 우리 혁명의 모든 실천과정이 똑똑히 보여주고있는 엄연한 사실이며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때문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는것은 생활반영의 진실한 거울로서의 우리 혁명적문학예술앞에 지워진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고귀한 사명으로 된다.

여기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절출한 사상가-위대한 혁명가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와 령도의 현명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내는것이다.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 인간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혁명적의리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품모를 한없이 소탈하고 겸손하신 인민적풍격과 결부시켜 보여줄 때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영명한 수령으로서의 품모를 전면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다.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념원을 한

몸에 체현하시고 혁명을 끊임없는 양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이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사색의 고귀한 결실이다. 따라서 작품에서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일관된 위대한 수령님의 그 심원한 사상리론적업적들이 어디에 시원을 두고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혁명실천속에서 공고화되고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는가 하는것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론증해야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가 독자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안겨주는 작품의 하나로 될수 있는것은 바로 이러한 형상적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고있기때문이다.

그것은 오직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을 추진시켜나가는 한다는 주체의 철학적 신념을 지니시고 완강한 의지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해나가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투쟁업적을 최대의 정중성을 가지고 형상화하고있는데서 표현되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헤쳐나가셔야 할 1930년대 초 조선혁명의 앞길은 참으로 험난하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과의 세력확장과 령도권쟁탈에만 피눈이 되어 날뛰던 파쟁분자들은 5. 30폭동의 류혈적후과가 채 가시지기도전에 또다시 무모한 8. 1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적수공권의 인민들을 일체의 포악한 총검의 희생물로 만들었다. 게다가 놈들의 탄압과 침략책동은 더욱 횡포해지고 아직 혁명의 실천속에서 단련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옳은 투쟁의 길을 찾지 못해 갈팡질팡 헤매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ㄷ. ㄷ》의 언덕으로부터 걸음걸음 혈로를 헤치시며 천신만고 쌓아올리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엄중한 위기에 처하였다. 이제 조선혁명은 어디로 갈것인가?

작품은 바로 이 심각한 물음에 해답을 주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옥중에서 입으신 고초도 푸실 사이 없이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저지른 피의 교훈을 뼈저리게 통감하시고 력사적인 카툰회의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의 진로를 새롭게 개척해나가는 과정을 감명깊게 펼쳐보이였다.

그러면서 길림과 해룡, 고유수와 교하, 온성, 또다시 길림과 오가자 등지의 수천수만리 험로속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욱자욱은 위기에 처한 혁명조직들을 일으켜세우고 혁명의 대지를 푸른 숲으로 설레이게 한 힘의 원천이었다는 사상을 작품 전편을 통하여 힘있게 관통시켰다. 이는 구원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구성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한분밖에 없으며 그이께서 계시는 한 주체혁명위업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필승의 신념을 뜨겁게 안겨주는것

으로 하여 더욱 의의깊다.

작품은 이러한 생활의 진리를 밝혀내는데서 우선 인민대중에 대한 그이의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감명깊게 형상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있다.

인민에 대한 철석같은 믿음- 이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심장으로 체득하신 신념이시였으며 우리 혁명을 보위해나갈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었다. 이러한 신념이 형상의 대 갈피마다에서 진실하게 울려나오도록 예술적 형상의 제반요구들을 복종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이 신념이야말로 피의 교훈으로 찾은 가장 소중하고 값높은 진리이라는것을 심각한 사회전문성과 결부시켜 깊이있게 밝혀낸것은 이 작품의 사상예술적성과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다.

좌경모험주의자들이 일으킨 5. 30폭동의 후과로 혁명의 정세는 참으로 엄혹하였다. 해룡에서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던 강재수무장소조가 일체의 악질적인 특무단체인 《신진혁명군》에 의하여 처절한 격전끝에 모두 희생되었으며 할빈에서는 열혈청년시인인 현옥이가 마창구의 폭동후과를 수습하러 나갔다가 체포되어 려수감옥에 갇히였다. 파쟁분자들은 이 뼈저린 피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5. 30폭동의 연장인 8. 1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정세를 더욱 엄중한 난국에 몰아넣고있었다. 돈화지구에서 류혈적인 참극이 연이어 벌어지는 가운데 국내에 파견되었던 김형권동지께서는 풍산군 파발리경찰관주재소에서 멸적의 총성을 울림으로써 국내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시고 불행하게도 체포되시여 옥중에 갇히신 몸이 되시였다. 혁명조직들은 거의다 파괴되었으며 조직선을 잃은 동지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고 게다가 한때 독립운동을 한다고 자처하던 일부 사람들도 강화되는 일체의 탄압에 겁을 먹고 일신의 안락을 찾아 시정배로 굴러떨어져 인간으로서의 체모도, 의리도 헌신짝처럼 집어던졌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이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결코 낙망하지 않으시고 인민대중이 있는 한 반드시 혁명은 위기에서 구출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밑에 대중을 묶어세우는 투쟁을 하나하나 정력적으로 밀고나가신다.

교하지역의 폭동후과를 수습하시기 위해 나가셨을 땐 전날 독립군에서 호랑이중대장으로 명성을 떨치던 신재림이 오늘은 정미소주인으로 전락되어 《무식한 농사꾼》과 한끼의 끼니가 없어 문전걸식하는 아낙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일본제국주의와 맞서보겠는가 하고 하면서 인민대중을 무력한 존재로 모독하는데 더없는 분격을 느끼신 한별동지께서 《우리에게는 영웅호걸도 없고 지금

당장은 충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의 힘을 믿습니다.》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는 장면은 바로 이러한 신념을 그대로 대변해주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신념을 안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북팔짜기에 피해들어가서 생의 절망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갑산동사람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난관이 겹쌓일수록 조직의 두리에 굳게 뭉쳐 투쟁으로 난관을 이겨내야 한다고 신심을 안겨주신다. 것처럼 완고하던 오가자의 변태익로인이나 최승보, 박창우, 림계산이같은 사람들도 한별동지의 이러한 신념밑에서 재생의 길을 찾고 그이의 뜻을 따르게 되었으며 무성하는 혁명의 숲을 이룰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조직을 중시하지 않고 인민의 힘을 믿지 않으면서 혁명을 주관적욕망 하나로만 내밀려는 박경학을 깨우쳐주시는 한별동지의 간곡한 말씀은 참으로 깊은 감동을 준다.

《...우리는 인민의 참다운 아들딸이 돼야 하오. 동무가 연설을 해가지고는 이 오가자에서 걸어 절정이 최용필이같은 사람밖에 없소. 그러나 동무가 인민에 대한 참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가슴속으로 뚫고들어가갈 때, 그때에만 우리는 인민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수 있고 일체를 때려부시는 혁명의 대군를 마련할수 있는거요...》

작품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대중에 대한 이러한 철석같은 믿음은 인민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는 과정에 얻어진것이며 하나의 확고한 신념으로 공고화된것이라는 사상을 진실하게 밝히고있다. 우리는 이것을 교하거리의 평범한 아낙네의 형상을 통하여 감명깊게 느낄수 있다.

그 녀성은 한별동지께서 적들의 추격으로 잠시 위급한 정황에 이르시었을 때 그이의 신변을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해드린다. 그 녀인으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을 언제 한번 뵈은적도 없고 어떤분이신지도 모르는 소박한 촌아낙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나라를 찾자고 나선분들을 도와야 한다는 의리감으로 일신의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별동지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했던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소박한 의리이며 민족적량심이다. 특별히 인연도 없고 한번 만난적도 없는 생면부지의 이름모를 아낙네이지만 그 소박한 녀인의 깨끗한 량심속에서 인간본연의 아름다움을 느끼셨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런 인민들을 위해서도 혁명을 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더욱 굳게 다지신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인간-위대한 혁명가로서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숭고한

인민적품모를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를 안고 끝없이 우러르게 된다.

작품에서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품모는 또한 그이께서 지니신 뜨거운 인간애와 고귀한 혁명적의리에 의하여 더한층 부각되고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차광수, 현옥, 유선아, 한영희 등 조선혁명군대원들과 소년탐험대의 나팔수인 강영진소년을 비롯한 오가자마을사람들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통하여 감동적으로 형상되고있다.

현옥이 체포되었다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시고 너무나도 절통한 심정을 누를길 없으시여 세월의 풍상에 터슬터슬 갈라진 백양나무의 밑동을 큰 주먹으로 광광 내리치시는 장면은 혁명동지들에 대한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의리를 가슴뜨겁게 보여 주는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다.

망국의 비운을 통탄하며 극절 많은 인생행로를 걸어온 현옥이를 자애로운 사랑의 한품에 안아 참다운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신 한별동지이시기에 그의 체포는 이처럼 비통한 격정의 눈물을 자 아내게 하였던것이다. 이처럼 뜨거운 믿음과 사랑으로 그이께서는 옥중에서 고생하는 현옥이를 녀려하시여 애인인 선아를 러순으로 파견하시며 강반석어머님의 살뜰한 사랑이 깃든 솜옷을 입어 보시지도 않으시고 조국땅 온성에서 손수 따온 신 짚팡이와 함께 그에게 보내주신다.

혁명동지의 신상에 미친 불행과 그 아픔의 구석구석까지 헤아려보시고 사랑하는 두사람을 잠시나마 같이 있게 해주시려는 그이의 뜨거운 은정과 혁명적의리앞에서 그들은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금치 못하는것이다.

이런 사랑과 은정을 받아안았기에 현옥은 감옥안에서도 한별동지를 우러러 필승의 신념을 가다듬고 한생을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살며 싸워 가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는것이다.

해룡의 조직원인 류한이로부터 강제수무장소조가 장렬하게 희생되었다는 비보를 접하였을 때도, 국내에 나가 활동하시던 김형권동지께서 체포되었다는 뜻밖의 소식을 들으셨을 때도 한별동지께서는 혁명동지들에게 못다 기울이신 그 사랑이 가슴에 맺히시여 침식마저 잊으시고 아프신 마음을 금치 못하시는것이다.

특히 숙부님의 체포로 어머니의 신상에 다닥칠 그 모든 괴로움과 비통한 심정을 자신의 한품으로 통감하시고 거물거리는 등잔불앞에 조용히 앉으시여 어머니께 편지를 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은 우리의 가슴을 한없이 뜨거운 격정으로 차넘치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군대원들뿐만아니라  
고유수와 오가자마을 인민들에게도 한없는 사랑  
과 은정을 베푸신다.

고유수의 박태갑로인이 사위감을 맞았어도 성  
례를 못올리고있는 그 심정을 헤아려보시고 아무  
리 사정이 딱하고 형세가 어려워도 성례를 못올  
리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고 하시며 서상근로인더러  
잔치준비를 섭섭치 않게 잘하도록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이때로 말하면 그이의 가슴에 참으로 많은 아  
픔이 덧쌓이던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다.

강도 일제의 백색테로앞에 혁명은 피의 진통을  
겪고있었으며 파쟁분자들의 책동으로 혁명조직  
은 다 파괴되었다. 강재수의 무장소조도 희생되  
고 현옥이도 체포되었다. 가슴이 아프면 그때 한  
별동지처럼 그렇게 쓰린 가슴을 안고계신분이 또  
어데 있었겠는가. 허나 그이께서는 몸소 결혼식  
장에까지 나오시여 인민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  
신다.

만백성을 고루 살피시는 인민의 수령의 위대한  
품모가 얼마나 인민들의 가슴을 치고 눈굽을 뜨  
겁게 적시는가.

소설은 또한 오가자마을 인민들에게 돌려주시  
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은정도 진실하게 형  
상하고있다.

일제의 더러운 주구인 최용필이놈의 작간으로  
마을의 유지이며 의사인 림계산이가 변절자의 루  
명을 쓰고 역경에 처했을 때 한없이 넓으신 도량  
과 포용력으로 그를 건져주시는 장면이 그 하나  
의 실례이다.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마을사람들  
앞에서 내노라고 머리를 쳐들고 찍하면 혁명군을  
욕하며 다니던 림계산이가 특무와 내통할수도  
있다고 모두가 격멸의 눈초리를 돌리고있을 때  
오직 한별동지께서만은 그의 가슴에 소중히 간직  
되어있는 민족적량심을 귀중히 여기시고 동지들  
의 만류에도 불구하고하시고 거처를 그의 집으로 옮  
겨가신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러한 뜨거운 믿  
음과 사랑앞에서 일시나마 오해를 받아 기를 못  
펴고 고민하던 림계산이는 그이의 무릎우에 얼굴  
을 묻고 오열을 터뜨리며 땀뿜하게 살지 못한 지  
난날을 통절히 뉘우치는것이다.

한별동지께서 하연성의 안해 고만녀에게 돌려  
주시는 사랑 역시 감명깊게 형성되고있다. 고만  
녀는 일제통치하 우리 인민이 겪는 수난의 가장  
전형적인 대변자이다. 그는 남편이 폭동바람에  
들떠 혁명을 한다고 나다니는통에 혼자서 어린  
자식을 키우기 위해 갖은 고생을 다 한다. 하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만녀와 같은 최하층인간  
에게서 혁명을 할 래일의 투사를 보시고 그를 자

애로운 한품에 안아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신다.

온성지구 혁명조직책임자 오석하가 고만녀에게  
는 글을 가르쳐야 소용없다고 외면했을 때 그와  
같은 소박한 근로인민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워서  
그들이 힘을 쓰게 될 때야야 혁명은 승리할수 있  
다고 절절하게 타이르시는 한별동지의 모습은 얼  
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가.

이와 같이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은 만사람을 한  
품에 안아 따듯이 보살피시여 가장 나약하고 보  
잘것 없는 인간을 가장 억세고 슬기로운 인간으  
로, 동요와 회의의 갈림길에서 헤매이던 인간을  
확고한 혁명적의지와 신념을 가진 참다운 인간으  
로 키워주는 자애로운 요람이며 어머니의 품이라  
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러한 혁명가적품모  
를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대중적지반을  
꾸려 나가시는 정력적인 활동과 결부시켜 폭넓게  
부각시키고있다.

동북만주의 광활한 지역과 국경연안으로부터  
시작하여 국내온성지구에 이르는 그 어디에 인민  
을 위해 바쳐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와 심  
혈이 깃들지 않은곳 있으랴. 그 길에서 가슴아픈  
희생도, 참기 어려운 고통도 겪으셔야 하셨던  
한별동지 이시였다. 끼니도 휴식도 잊으시고 때  
로는 적들의 삼엄한 감시속을 신변의 위협을 무  
릅쓰시고 뚫고 나가셔야 하셨으며 진눈까비를 맞  
으시며 황막한 이국의 광야를 걷고 또 걸으셔야  
하셨던 위대한 수령님.

그이께서는 한지에서 밤을 지새우시기도 하시  
였고 거기서 얻은 몸살로 한몸마져 지탱하기 어  
려운 순간에도 혁명의 길은 멈출수 없으시였으며  
그 길에서 숙부님과 현옥의 체포에 대한 가슴아  
픈 소식과 강재수소조의 장렬한 최후에 대한 비  
보도 접하셔야 하셨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의 광복과 인  
민의 행복을 위해 인간이 겪을수 있는 모든 고생  
과 슬픔과 피로움을 한몸에 감당하시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빛나는 구감이시다.

혁명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이 모  
든 로고와 심혈을 보렴도, 꾸밈도 없이 그대로  
진실하게 형상화하여 그 불면불휴의 활동속에서  
혁명의 참다운 전위들이 자라나고 주체혁명위업  
의 튼튼한 보루가 마련되었다는것을 심오히 밝혀  
낸 바로 여기에 이 장편소설이 거둔 귀중한 사상  
예술적성과의 하나가 있다.

이에 있어서 오가자마을의 혁명화에 바쳐진 위  
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활동은 무장투쟁의 대중  
적지반을 축성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야학과 삼성학교 및 소탐대의 생활들, 특히 10월혁명기념일행사에 마련된 연예대활동과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공연성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누번 동생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길림거리의 바늘 파는 어린 소년, 할빈도리의 수많은 꽃파는 처녀들, 지주집에 불을 지르고 징역살이에 끌려갔다는 구포벌소년의 기막힌 처지, 한별동지자신께서 직접 체험하신 이 모든 생활의 화폭들이 그대로 가극 《꽃파는 처녀》의 생활화폭으로 되었다. 그이께서는 배우들을 선정할 때에도 오가자의 슬기로운 아이들속에서 예술적재능을 발견해 내시며 봉건이 가장 완고한 박창우로인의 딸인 옥실이와 립계산의 딸 봉희를 선정하시으로써 완고한 유지들을 깨우칠 기발한 착상도 무르익히신다. 공연이 진행되던 날 밤 만사람들의 축복속에 무대우에서 노래를 부르는 《꽃파는 처녀》가 바로 자기 딸이었음을 알았을 때 박창우로인의 뉘우침은 얼마나 감동적인가.

작품은 인민들이 자기의 처지를 자각하고 참된 삶의 길을 걷게 될 때 그것이 발휘하는 힘은 참으로 거대하다는것을 이 연예대공연과정 하나를 통해서도 잘 보여주었다. 지주 사가놈의 착취행위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조직동원하시는것과 같은 한별동지의 정력적활동은 변태이로인을 비롯한 오가자마을농민들의 사상정신적개변을 가져오는데서 결정적전환점으로 되었다.

남이 강요하는 그 어떤 주의주장도 믿지 않고 오직 《리상촌》의 허황한 꿈속에서 자신의 위안을 찾던 변태이로인은 물론 완고한 봉건의 울타리로 벽을 쌓고 시대의 흐름에 외면하던 박창우, 립계산 등 마을의 모든 《유지》들이 머리를 숙이며 악착하기로 소문난 지주 사가가 무릎을 꿇게 되는 모든 계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울으신 심혈과 로고의 결실이라는 하나의 선을 타고 진실하게 안겨온다.

작품은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시는데 있어서 어느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사상과 령도의 영재로서의 그이께서 지니신 탁월한 품모와 높은 공산주의적덕성을 전면적으로 폭넓게 부각시킴으로써 그이를 조선혁명의 구성으로 우러러 모시게 되는 생활의 필연성을 높은 사상미학적수준에서 훌륭히 일반화하였다.

## 2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에서 거둔 사상에술적성과의 다른 하나는 주체혁명위업이 개척되던 그 간고한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했던 청년공산주의자들과 당시 인민들의 형상을 통하여 혁명적수령관의 참

된 본질을 깊이있게 해명하고 혁명적수령관을 세우는것이 혁명의 승패를 결정하는데서 얼마나 중요한 관건적문제로 나서는가 하는것을 힘있게 시사해준것이다.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혁명적수령관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있다.

20년대말 30년대초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보여준 이 혁명적수령관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담보한 결정적요인이었으며 우리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참된 구감으로 되고있다.

아직은 혁명의 전도에 대해 기약할수 없고 무엇을 기초로 하여 령도적중심을 이루겠는가 하는 그 어떤 생각도 가질수 없었던 그 암담한 시기에 어떻게 그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을 자기들의 위대한 향도성으로 높이 우러르게 되였는가 하는것을 밝혀내는 여기에 이 작품이 추구하려는 또 하나의 형상적의도가 있었다. 작품은 이 심각한 사회력사적요구를 청년공산주의자들인 차광수, 현옥, 유선아, 한영희, 오석하, 하연성 등의 형상을 통하여 훌륭히 해결하였다.

이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닌 혁명적수령관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드물지 않는 혁명적신념과 의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충실성에 기초한 수령관이다. 이는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는 근본 립장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요구로부터 출발하고있다.

그것은 우선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견결히 옹호하고 그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투철한 립장에서 표현되었다.

좌경모험주의자들의 망동으로 마창구의 혁명조직이 위협에 처했을 때 단신 그곳으로 달려가 한별동지께서 천명하신 력사적인 카륜회의방침을 견결히 옹호하는 현옥의 슬기로운 투쟁모습과 오가자를 혁명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옳게 인식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난관이 제기된다 하여 중도에서 돌아온 박경학에게 카륜회의로선을 한조향한조향 따져가면서 설득시키는 차광수의 미더운 모습 등이 그 전형적실례들이다. 특히 한별동지의 의도와 사상을 관철하는데서 어떻게 하면 그 심원한 요구의 경지에까지 이르겠는가 늘 마음을 쓰며 자그마한 드림이라도 있을세라 몇번이고 채보고 따져보고서야 비로소 행동에 옮기는 차광수의 신중한 태도와 립장은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받아들이고 옹호관철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 주는 생동한 모범이다.

작품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을 신념화, 신조화할 때 인간은 참으로 강의해지며 그 의지를

겪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우리는 그것을 현욱의 옥중투쟁과 《신진혁명군》 반동놈들과의 과감한 격전끝에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강제수무장소조원들의 영웅적투쟁모습에서 찾아볼수 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보여준 혁명적수령관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목숨바쳐 옹호보위하려는 견결한 혁명적의지와 불타는 지향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별동지의 안녕은 곧 삶의 전부였으며 필생의 념원이었다. 그것이 이들의 가장 숭고한 리념의 하나로 될수 있었던것은 파란 많은 인생곡절을 겪어오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체득한 생활의 진리였기때문이다.

작품은 바로 이러한 생활의 리념을 주인공들이 체험하고있는 심각한 생활국면속에 몰아넣고 그것이 한낱 일시적인 충동이나 주관적욕망에 기인하는것이 아니라 사상적리념을 통해 흘러나오는 가장 숭고한 감정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소설에서 차광수의 형상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어떻게 모시고 따라야 하는가를 산모범으로 보여준 전형적형상이다. 그의 모든 사고와 활동은 오직 한별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모시려는 그 하나의 지향으로 일관되어있다. 정세가 엄혹하고 저들의 책동이 강화될 때는 물론 비교적 여유있는 정황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한별동지의 신변을 념려하여 혁명적경각성을 앞세우고 사태를 침착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며 제기된 정황을 자막대기와 같이 정확하고도 신중성있게 처리해나간다.

자기 혼자서 욕망만으로는 끝내 마음놓이지 않아 한별동지의 신변을 보위할것을 공청회의결정으로까지 박아넣는 이 하나의 사실만 보아도 그의 혁명적수령관이 얼마나 투철했던가 하는것을 알수 있다.

현욱의 성격형상 역시 매우 감명깊다.

망국의 비운을 통탄하며 《참된 사람, 참된 삶, 참된 사랑》을 찾아 모멸에 찬 정신적방황의 길을 헤매여온 현욱은 한별동지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참된 삶의 길을 걸을수 있었다.

그이의 품속에서만 자기의 빛나는 삶도 밝은 미래도 있다는것을 현욱은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였다.

그가 놈들의 추격으로 위협에 처했을 때 3층집로대우에서 몸을 날리면서 자기가 지은 《조선의 별》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를수 있는것도, 놈들의 움직임에서 한별동지의 신변이 위태로운것을 감촉한 후에는 자기를 위해 남아있는 선아에게 가서 한별동지를 지키라고 안타깝게 호소하는것도 다 이러한 생활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였기때문이었다.

한별동지를 마음속으로 우리르며 한별동지를 지키는것이 곧 조국을 지키는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반만년민족사의 총화인 이 엄숙한 진리를 기어이 실천해야 한다고 절절하게 웨치는 그의 내면독백이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치는 여운으로 남아 있는것도 바로 이러한 신념을 통하여 이루어진것 이기때문이다.

또한 교하의 파괴된 혁명조직을 수습할 의무를 받고온 한영희가 상상했던것과는 너무나도 험악한 사태앞에서 속으로는 한별동지를 애타게 그리면서도 그이의 신변을 보호할데 대한 공청회의결정을 상기하고 잠시나마 이런 위험한곳에 그이께서 오시기를 바랐던 자신의 실책을 뼈저리게 뉘우치는 데서 우리는 이들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리념이 얼마나 티없이 맑고 깨끗한것이었던가를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다.

그처럼 위급한 정황속에 찾아오신 한별동지를 자기 집도 아닌 음식점에서 그대로 돌려보낸 신재림의 소행에 격분을 금치 못하며 부르짖는 한영희의 절규는 얼마나 우리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는가!

《...우리는 김성주동무를 우리 조국의 구성으로, 우리 운동의 지도자로 받들고있습니다. 그가 위협에 처했을 때 선생님이 취한 태도를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제 육신이 산산조각이 나고 원쑤의 손에 잡혀 란도질을 당하더라도 그를 보위할것입니다.》

작품에서 그 어떤 사상이나 리념이 생경한 논리로서가 아니라 이처럼 심원한 생활의 진리를 타고 우리나라에 때 그것이 주는 감화력은 비할바없이 큰것이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삶의 매 순간순간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만을 위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것이 현실로 되었을 때 세상에 더없는 희열을 느끼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리념! 이는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공통된 념원을 그대로 대변한것이기에 이처럼 의의깊은것으로 되었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것처럼 완고한 편견에 물젖어있던 변태익로인이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인품에 감화되어 그이를 한별로만 부를것이 아니라 날일자, 이를성자를 놓아서 민족의 태양으로 모셔야 한다고 진심을 토로했을 때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그토록 크나큰 감격과 흥분으로 눈시울 적시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이었던가. 그것은 바로 원쑤와의 피어린 격전속에서도, 감옥과 교수대에서 오직 그것 하나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굴함없이 싸워온 그 간절한 념원을 이제 비로소

성취할수 있게 되었다는 최상의 희열이 가슴벅차도록 안겨왔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이 작품에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형상이 가지는 참다운 예술적가치가 있다.

소설이 달성한 사상예술적성과에서 또한 지적할수 있는것은 다양한 예술적수단들의 능숙한 활용으로 현실속에서 뗃어지는 인간성격들을 개성화하고 작품의 사상주제적요구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부각시켜준 점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진실한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줌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영상을 작품에 정중히 모실수 있게 된데 있다.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보여주는데 있어서 중요한것은 역사적사실들을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을 통하여 예술적전형화의 요구를 옹계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장편소설은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전형화함에 있어서 당시 역사적사실에 기초하면서도 성격의 그 어떤 비상한 특징이나 레외적인 사실에서 형상의 묘리를 찾지 않고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며 그들에 의거하여 조성된 난국을 헤쳐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인민적풍격을 도출해내는데 묘사적각광을 집중시키고있다. 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품모가 것처럼 친근한 영상으로 감명깊게 안겨오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성과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형상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차광수의 무게있고 빈틈없는 성격적특징들을 잘 포착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옹호보위하는데서 한치의 드림도 모르는 그의 충실성과 결부시켜 성격의 주도적특질을 개성적으로 잘 살려나가고 있는것이라든지 다정다감하면서 불같이 뜨거운 현욱의 성격이나 리지적이며 어린애다운 천진성을 가진 선아의 매력있는 형상, 한영희의 우아하며 웅심깊고 활달한 성격 등 어느 하나도 개성화되지 않은것이란 없다. 완고한 민족주의자의 전형인 오가자의 변태악로인과 박창우, 최승보, 지어는 작품에 잠간 등장하는 국제당 통신원락소책임자 주사인과 온성땅의 고만녀, 하연성의 성격까지도 다 자기의 독특한 취미와 습관을 가진 산

개성들로 전형화되었다.

장편소설의 사상예술적성과에서 다른 하나의 측면은 작품의 구성이 해당 역사적시기의 생활들과 일치되어 예술적진실을 잘 보장한것이다.

작품의 인간관계는 실지 있는 인물들의 원형에 기초하여 뗃어지고있으며 이야기줄거리도 주제사상적요구에 맞게 정연한 논리성을 가지고 카분회의 이후부터 그 이듬해봄까지의 시기를 일관하게 관통시켜 방불히 그려내고있다. 여기에 이 장편소설이 역사문헌적의의와 문학작품으로서의 품위를 다같이 갖추출수 있게 한 근본조건의 하나가 있다.

작품에는 그밖에 사회력사적사변들에 대한 정론적인 분석과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묘사들, 남의것을 통채로 삼키려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을 신랄히 조소한 칠성문국수이야기와 같은 흥미있는 일화들, 예술적형상의 풍부성을 보장해주는 참신한 생활세부들, 여러가지 묘사수단들의 자유로운 활용과 뜻이 깊고 표현성이 강한 대사들이 능숙하게 구사되어있어 예술적형상의 품위를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작품은 력사의 분수령인 1930년대의 캄캄한 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태양으로 높이 솟아 인민을 이끌고 시대를 이끌어 수천수만리 혈전의 길우에 사랑의 자옥을 남기시며 혁명의 푸른 대지를 마련해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로정의 일단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형상화함으로써 혁명적대작의 품위를 갖춘 또하나의 성과작으로 될수 있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가 이러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혁명적대작으로 완성될수 있는것은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문제를 우리 문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그 빛나는 실현을 위해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고있는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며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 리론과 방침을 창작실천을 통하여 빛나게 구현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의 성과들로 하여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보람찬 투쟁을 힘있게 고무할것이다.

# 나의 어머니당이어

김시권

우러러 기쁘고  
부르면 정다워라  
나이들수록 어린애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따르는 어머니당이어

무엇때문인지  
말로써는 다할수 없어라  
삶의 첫순간부터 요람을 흔들어주며  
창밖은 탁아소에서 그대 불러주던  
자장가소리 이 가슴에 남아있기때문인지...

몰라라 아직 다는  
그대 손길이 줘여준  
《삼천리》 연필로  
조국이란 무엇인가를 익혀가던 나날  
내 모르는 어려움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나를 키워주던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은혜를...

그 마음이리  
불타는 고향, 정든 교정을 떠나  
이름모를 전선으로 가던 새벽길에서  
내 어머니 치마자락을 날리며  
나를 바래주던

그러하더라 색깔은 군복차림으로  
먼 개발지의 우등불가에서  
배낭 베고 잠들 때도  
당이어, 그대  
우리의 꿈을 안고  
찬이슬 달빛아래 잠못들던...

아, 어느덧  
아들딸 키우는 아버지로 불리우건만  
그대는 강가에서 뛰노는 아이를 찾아  
저녁녘 밥상에 불러들이는 정다운 목소리처럼  
깊은 밤 일터를 찾아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다정히 떠밀어주는 그 손길

자그마한 나의 집안일을 두고도  
나보다 앞서 근심하며  
당중앙의 그 창문에  
꺼질줄 모르는 불빛  
우러러 얼마나 눈시울 적시며

그대의 품을 생각했던가

아, 당의 그 품에  
내 안겨 살기에  
마음속 티끌만한 시름도 모르고  
해빛밝은 창가에서  
날마다 가슴속에 켜놓는 맑은 기쁨  
노래에 담아 넘쳐나는것 아니나

그러하더라  
행복의 나날보다 어려운 때에  
더 뜨겁게 안아주며  
나의 즐거운 웃음속에  
더없는 기쁨을 느끼는  
아, 당은 우리 마음속에  
마음속에 높이 모신 자애로운 어머니

그대 있어  
삶의 정다운 추억들이  
걸어온 보람찬 길우에 빛나고  
그대 있어  
가슴 부푸는 희망을 안고  
기쁨에 넘쳐 이 땅을 걸어가거니

그대  
한품에 안아 키워주고  
손잡아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세상에 태어나 나의 무엇이 남았을것인가  
그대 펼쳐준 사랑의 길에  
아버이수령님 높이 모시는  
참다운 넋과 심장을 주어  
영생하는 삶의 절정우에 서있거니

언제면 우리 그 높은 뜻  
심장속 깊이 안고 도의를 다할것인가  
너무나 아직도 마음은 어리어  
바친 충성보다 받는 사랑  
무궁한 그대의 품에  
기쁨 올릴 충성의 꽃으로 활짝 필것인가

우러러 기쁘고  
따르며 행복한  
우리 한생을 받들어 살고싶은  
어머니당의 품이어!

# 영원한 신념과 충성의 노래로!

오재신

또 한차지  
쇠물을 받아낸  
머리 희숙한 로장의 가슴에도  
청년언제를 쌓아가는 돌격대원의 가슴에도  
그 이름은 뜨겁게 울리고있다

바다를 밀어  
대지를 넓혀가는  
간석지건설자들의 마음에도  
기중기숲이 설레는 건설전투장  
나 어린 처녀운전공의 눈빛에도  
그 숭엄한 모습들이 안기여온다

세월과 세월을 넘어  
투쟁으로 온 나라를 부르는 그 모습  
당중앙을 따르는 길에  
불타는 충성으로 앞서가는 그 모습  
아, 김혁, 차광수...

30년대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몸 바쳐싸운 청년공산주의자들,  
그 뜨거운 숨결과 맥박이 그대로 이어져  
높뛰는 생각은 하나-  
-모두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한몸 그대로 육탄이 되여도  
누리에 불는 불로 타오르던 그 신념 그 의지  
오늘은 온 나라의 가슴가슴을 뚫이나니

그 신념으로  
쇠물은 사품치고  
그 의지로  
만풍년의 대지는 설레이고

그 맥박과 숨결이 열풍이 되어  
세인을 놀래우며  
《80년대속도》는 태어나는것이 아닌가!

아 수령님을 받들어 천만리  
당중앙을 따라서 천만리  
걸어갈 혁명의 길우에  
김혁 차광수...  
그들처럼 살리라

그들처럼 살리라  
수령님 펼쳐주신 10대전망  
휘황한 그 미래를 안고  
당중앙이 이끄는 승리의 한길따라  
세폭의 붉은기 휘날리며  
세기를 떨치는 위훈을 안고-

하나를 생각해도 수령님의 뜻으로  
한가지 일을 해도 당중앙의 가르침대로  
한치의 드림도 없으리라  
우리의 힘으로 조국을 빛내이리라

아! 천길지하막장에도  
동해천리 먼 어장에도  
온 나라에 그 이름 높이 올린다  
영원한 신념의 노래로!  
영원한 충성의 노래로!

오, 세월의 끝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쫓피우며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령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불타는 충성-  
《80년대속도》창조예로!  
주체조선의 슬기와 위훈을 다시 한번 세계에 떨치  
리라!

## 만경대여 길이 전하라

리종섭

### 기다리던 소식

지붕 위에 하얗던 꽃자리마다  
크고작은 흰박이 주렁주렁 열린 집  
사립문에 들어서면 다락이 마주서고  
헛간에는 농쟁기가 나란히 있는 집

들메나무가지우에 우는 까치를  
토방가의 멍멍개가 구경나가는  
어디서나 흔히 보는 이 집은  
장군님 자라신 수수한 초가집

원썬놈들 언덕을 잡아  
무시로 들이닥치군했어도  
마당가 쇠스랑마저 서리발을 뿜고  
애국의 냇으로 끄떡없은 혁명의 집!

마당에서 키질하는 장군님의 할머니  
삐영삐영 기여드는 햇병아리를  
쉬쉬 쫓아내며 수수를 까리다가도  
무릎 꿇고 일어서길 그 몇번

나라가 해방되어 날과 날이 경사인데  
그제는 누구네가 어제는 어느 마을에  
북간도로 떠나갔던 일가식솔 왔다고  
소문은 매일처럼 전해오는데  
손자의 기별은 왜 오질 않누

손꼽아 기다리고기다리는 마음  
꿈결에도 장군님을 만나보시건만  
그 모습은 열네살 어릴적 모습  
장군이 된 그 모습은 알수가 없구나

앞에다 두손 모두어잡으시고  
사립문가에 서계시는 할머니  
하루에도 그 몇번 이렇게 기다리시며  
맞은 세월 보낸 세월 그 얼마였던가

그 마음 저 하늘에 띄우면  
구름도 처마밑으로 흘러들련만  
박정한 세월은 해와 달을 따라  
가슴치는 슬픔만 실어다녔다

조선독립 그날을 보지 못한채

만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마음에 받은 상처 아물지도 못했는데  
머느리까지 또 갔다는 통분한 비보!

아, 너무도 기가 막히신 할머니  
부모 없이 헤멜 두 손자 생각에  
미여지는 가슴을 안고 보내시던 나날  
또다시 철주가 싸우다 전사하고  
작은아들마저 옥에서 죽었다는 기별!

망아지도 못들어설 사립문으로  
황소같은 큰 불행이 옥옥 들이닥치며  
사나운 빨질로 할머니의 가슴을  
이렇게도 미여지게 할수 있단말인가

눈물을 보이면 원썬놈들이 좋아할라  
치마고름 옥죄이시며 살아오셨다  
된서리 쳐도 오히려 푸르싱싱한  
소나무처럼 굳세게 살아오셨다

받아안기엔 불행은 너무 컸어도  
그때마다 비분강개하시어 일떠서시였어라  
나라를 찾는 길에 몸바친  
아들, 손자, 머느리 장하게 여기시며  
뿔뿔한 마음으로 싸워오신  
혁명가정의 할머니, 장군님의 할머니

산골물이 돌바위에 부서지면서도  
끓을 따라 굵이쳐 바다로 흐르듯  
마음은 언제나 백두산으로 달리며  
언제나 손자를 그리신 마음

긋은비 내리는 여름밤이면  
산에서 싸우며 비맛을 생각  
하얗게 눈내리는 아침이면  
한지에서 눈맛을 생각

장군님 소식 없어 근심할적에  
경관놈들 기여들어 행패질하면  
그것이 손자가 싸운다는 《소식》  
그런 밤 오히려 마음 놓이셨거니

조부모님 마음속으로 장군님을 부르시어  
원썬를 갇아라, 천백배로 갇아라

기어이 나라 찾고 돌아오너라  
이 하나의 부락을 스무해나 주셨어라

기다리는 마음에 날과 날은 곱뜨기만해  
저주로운 세월을 때려몰면서  
장군님을 마중하여 걸어오셨다  
그 길에서 잔주름은 깊어만 가시고

깊은 밤 개짖는 소리 들려와도  
등잔에 불켜택적 그 얼마이시였던가  
행어나 발자국소리 들려오질 않나  
장군님이 성큼 들어서실것만 같아...

그 마음 변함없이 지금도 기다리시는데  
밤나무집 초동이가 성큼 뛰어들며  
《할머님! 평양에서 손님이 와요!》  
《손님이라니?》 문득 키를 놓으신 할머님  
옷섶을 터시며 일어서시여라

어제는 남포에서 아침엔 강동에서  
장군님 소식 알자고  
매일처럼 손님들이 찾아오군해  
그런 손님이 먼길 또 왔으려니  
할머님은 사립문을 나서시는데

난생처음 보는 군복을 입은 사람  
할머님앞에 깊은 절을 드려라  
《할머님, 섭섭해 마십시오.  
장군님께서 저를 대신 들여보냈습니다!》  
《아니 장군님이라니?! 우리 성주가?!》

덥석 짧은이의 손을 잡으신 할머님  
손자를 맞으신듯 꿈에 보시는듯  
기뻐 어찌할바를 모르시더니  
서둘러 토방우에 멍석을 펴시여라

백두밀림에서 한두번만 듣지 않은  
마음의 고향집을 찾아온 기쁨!  
장군님 모시고 왔다면 얼마나 좋으랴  
할머님의 손을 잡고 목메이는 부관

방금전 갈림길에 차를 세우시고  
장화를 신으신 군복차림새로  
스무해만에 고향산천을 바라보시던 장군님  
-저기가 바로 만경대요... 좋은곳이요...  
들어가면 늙으신 조부모님이 계실것이요.  
내 인사를 전해주소.  
그 말씀 다시 귀전에 생생히 울리는가

아쉽던 그때 제마음도 보태여  
눈물이 글썽해 말쑹드린다

준엄한 나날에도 못잊으신 고향  
늙으신 조부모님 스무해를 기다리시는  
고향이었던  
만  
고향집방문은 뒤로 미룰수 있어도  
혁명의 일감은 순간도 미룰수 없으시여  
강선의 로농계급을 찾아떠나신 이야기...

그러자 너무도 손꼽아기다리싯인지  
처음엔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시고  
나중엔 장군님의 높은 뜻 헤아리시며  
대견해하시는 할머님 말씀

《어릴 땐 헐벗은 이웃집 아이에게  
어찌다 지어준 제옷도 벗어주더니  
커서는 나라와 백성을 먼저 돌보며  
큰일을 맡아본다니 장한 일이지  
그 소식 들으니 보듯이 기쁘오...》

그러시곤 말없이 일어서시여라  
어제날엔 저 멀리 백두산이 있는  
북쪽을 향해 서시곤하시더니  
오늘은 서쪽 어디에도 백두산이 있는듯  
저절로 그쪽으로 머리를 돌리셔라

## 해빛같은 웃음으로

언제면 아, 그 언제면  
삼천리에 자유종을 뽕뽕 울리시며  
**김일성** 장군님께서 개선하실가  
백두산을 우리러  
오랜 세월 마음속에 품어온 생각  
나라가 해방되니 더욱 간절해...

사람마다 만나면 그 소식부터 묻고  
들은 소문 서로서로 나누는 이야기  
《장군님께서 평양성에 입성했다고요!...》  
《어느 한 로인파도 오래오래 이야기하셨다우.》  
《지금 온 나라를 다 돌아보신다우.》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말을 주고받아도 딱히 맞는지?  
그것만은 누구나 장담할수 없어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 마음 싣고  
팔구월도 다 가고 시월이 왔으니

온 나라가 꽃다발을 마련해놓고

웅근 두팔을 손뼉아기다려온 오늘  
그 간절한 소원을 헤아리시고  
삼천만 인민앞에 개선인사 하시려  
장군님께서 당중앙청사를 나서시여라

장군님의 뒤를 따라나선 어제날 한 대원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에  
새 양복도 한벌 지어 못드리다니...  
절로 눈물이 쏟아지는데

소박한 그 마음 헤아리신 장군님  
인민들도 아직 변변히 입지 못하고 사는데  
우리가 잘 입고 나타나선 뭘하겠는가  
조용히 타이르시고 승용차에 오르시라...

평양으로 들어오는 갈래 많은 길마다  
아침부터 물밀듯이 흘러드는 사람들  
단풍든 모란봉기슭의 경기장에  
10만 군중이 짙어섰어라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 장군님을 환호하는  
갓가지 글발들이 기발처럼 나뭇기는 속에  
이제나저제나 장군님께서 나서실  
높은 연단을 우러러보는 사람들  
걱정의 도가니로 소용돌이쳐라

한잎 가랑잎으로 바다를 건느시고  
구름타고 원쑤에게 벼락치신다는  
장군님의 풍채는 얼마나 도고하실고!  
지평이 짙고 허위허위 찾아온 로인도

한번 소리치면 산도 꺾 갈라진다는  
장군님의 음성은 하늘땅을 흔들겠지  
애기 업고 달려온 아낙네도  
진정할길 없어 발돋움하는데

적삼이 땀에 뻘 한 아주머니  
어깨성을 쌓은 틈틈을 끌라  
앞으로만 헤집고 나가는데  
겹겹이 막아선 사람들 끝이 없어  
땀에 젖은 머리카락 쓸어넘겨라

아는이라도 만나면 도움받을가  
사방을 살피던 아주머니  
《애 초동아! 너도 왔구나!》  
《왜 그러세요?!》  
《날 저 맨앞으로 나가게 해다우.》  
《그럼 날 따라오세요.》

큰 보습이 밭고랑을 찢고나가듯  
초동이 살팍찬 어깨가 쪽쪽 길을 내어  
혈하게도 맨앞에 나서는 아주머니  
《그 자리에 서십시오. 자꾸만 나오지 말구요...》  
군복 입은 한 젊은이 두팔 뻗치며 막아나서자  
《이보우 젊은이!  
내가 **김일성** 장군의 작은어머니라우.》

그러자 뜻밖인듯 놀라는 젊은이  
참 잘 오셨다고 친히 손잡아 이끌며  
연단이 잘 보이는곳에 안내하고  
개선연설이 끝난 다음 만나시라고  
정찬 목소리로 차근차근 알려드려라

그제야 옷매무시를 바로잡으신 속모님  
모란봉이 하얗게 사람으로 덮인  
전례없는 환영의 크기에 감탄하시며  
이름할수 없는 감정에 마음 설레여라

이제 몇해만에 만나게 되는것인가  
스무해전 팔도구로 떠나던 날  
《작은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그 목소리 아직 귀에 쟁쟁한데

아주버님 님아 키도 훨씬 컸으리  
어릴적 얼굴모색은 아직 있겠는지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보았으면  
자꾸만 연단을 바라보는데  
초동이가 급기야 《아!!》 하는 순간

폭풍같은 환호가 터진다!  
《**김일성** 장군 만세!》 우뢰와 같이 울리는 함성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  
채수염에 토목조끼에 치마자락에  
뜨거운 눈물을 줄줄이 흘리며  
하늘을 들고 일어서는 환호성을 터친다

아, 피멍든 조국강토에 꽃을 피우시려  
운명의 마지막 숨결을 뿜던 인민을 살리시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을 떠나시여  
강도 일제놈들과 판가리싸움을 하신 장군님

조선혁명의 진군로를 진두에서 택하시며  
눈보라 불비속을 20성상 헤치시고  
30대에 조국을 찾아안고 오신 그이께  
영광 영광을 드린다

하루에 십년세월이 지나는듯  
지지리도 느리게 해가 가던 긴긴세월



피로와도 장군님 우리러 살아오며  
노예살이 종살이 끝장볼 날을  
장군님이 백두산에서 내리시는날로 믿어온  
인민들

노예의 족쇄를 풀어던지고  
매듭 끊은 손들을 추켜올리며  
목놓아 만세합성을 웨쳐부르니  
막히였던 조선의 숨결이 열리고  
삼천만의 가슴가슴에 피가 뛰여라

온 인민의 마음이 여기 모여있고  
온 인민의 눈길이 여기 쏠리여  
장군님을 맞이한 감격에 울고 웃으니  
삼천리강산이 그대로 환영의 대회장!

전설같은 이야기로 긴긴밤도 지새우며  
백두산의 장수별로 우리러보고  
민족의 태양으로 그리며 살아온 인민앞에  
백두의 장엄한 모습으로  
드디여 연단우에 높이 나서신 장군님!

한손 높이 드시여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실 때  
눈물이 앞을 가려 자꾸만 흠치며  
자세히 보고 또 보던 숙모님  
-웁구나! 저 웃을 때의 볼우물  
정기도는 눈가에 어린 비범한 빛발  
유표나는 이새! 정말 웁구나!-

젊음이 넘치신 위대한 장군님  
조국개선의 다감한 첫인사로  
해빛같은 웃음을 삼천만에게 주시며  
만장이 억만파도처럼 뛰여오르는  
감격의 바다를 굽어보셔라

설한풍 휩쓰는 백두의 밀림에서  
하루빨리 자유의 강산을 안겨주시려  
조국광복을 구상하시며 그리신 겨레!  
원췌의 무모한 총칼에 피토하며 쓰러지는  
그 참상이 눈앞에 떠오르시여  
깊은 밤에도 잠 못드시며 불러보신 민족!

항일의 혈전 수만리길을 걸으시여  
기어이 찾으신 조국과 인민을  
크나큰 한품에 뜨거이 안으시는 장군님  
감격에 젖으신 음성으로  
동포형제자매들을 친근하게 부르시며  
드디여 개선연설 시작하셔라

이 강산에 온 누리에 메아리치는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말쑥에서  
반만년 원한의 무덤만 늘어나던 조국이  
새조선의 이름으로 세계에 키를 쏘우고  
락원의 세계에도 창창히 뻗은  
조선이 나아갈 길이 무지개처럼 비껴라

이제부터 새 민주조선 건설을 위하여  
다같이 힘을 합하여 나아갈 때가 왔다고  
삼천만을 불러일으키시며  
하늘높이 한손을 비껴올리시는 모습

장엄하신 그 모습 우리러보시는 숙모님  
저절로 고이는 눈물을 걸잡을길 없여라  
-아주버님과 형님이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서 저 모습을 보셨으면  
정말이지 얼마나 기쁘시랴!...-

자꾸만 갈마드는 그 한생각에  
너무도 아쉬운 마음 참을길 없는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아까 그 젊은이 장군님께로 가보시자고  
웃음어린 얼굴로 앞서걸여라

장군님의 개선연설은 끝났건만  
만세합성을 더 높이 부르는 군중들  
그자리에 선채로 떠날줄 모르는데  
숙모님은 걸음걸음 생각도 많으셔라

정작 만나자니 걸음이 무겁구나  
아주버님, 형님이 앞서야 할 길  
작은어머니인 내가 대신 가다니  
내 혼자 가서 만나다니...

그 순간  
장군님을 더 가까이 뵙자고  
승용차를 타시는 장군님을 뵙자고  
앞을 다투어 물밀듯 나오는사람들

그 굽이치는 물결속에서  
숙모님은 뜨거워지는 눈곱을  
고름끝으로 흠치시며  
가슴 그들먹이 차오르는 기쁨을 느끼셔라  
-내 혼자 만나러 가는것이 아니구나-

아, 정녕 장군님을 만나러 가는것이  
어찌 숙모님 혼자이시랴  
저저마다 그렇듯 장군님께로 달려가고

삼천만이 장군님을 우러러따르고있으니

장군님은 오늘도 래일도 먼 후날도  
크나큰 한품속에 인민을 안으시고  
좋은 세상 좋은 앞날을 펼쳐주시려니  
장군님 개선인사의 날에 울려퍼지는  
조국의 환호, 인민의 환호성은  
세월의 한끝까지 메이리치리라

## 고향길에서

1945년 10월 14일!

장군님께서 지금 고향에 오신다  
작은어머님과 나란히 차창가에 앉으시여  
감격에 목메이는 회포를 나누시며!

삼천리강산이 기쁨에 넘쳐  
밤송이조차 한껏 웃다가  
그만에야 옥같은 열매를 떨어뜨리는듯  
밤알들이 후둑후둑 쏟아지는 이 가을날

남쪽으로 떠나야 할 계절조들도  
환희의 이 강산 차마 못떠나  
대공에 가로세로 날아예면서  
장군님 개선소식 누리에 실어나르는가

이국땅의 눈비에 군복을 적시시며  
혈전만리에 닳아진 신발을 갈아신으시며  
싸우신 이야기 백두산의 전설로 엮으시고  
비로소 스무해만에 고향을 찾으신다

차디찬 눈비만 뿌리던 하늘이  
티없이 개여 구만리로 들리웠는데  
황혼의 저녁마다 피울음치던 메새들이  
이 강산에 넘친 환희에 겨워  
축포인양 하늘가로 날아오르는가

길가에 떨어졌던 가랑잎조차  
그 무슨 생명을 가진듯 대굴대굴 굴러가고  
송아지가 풀을 뜯는 초원의 늪속에선  
크나큰 어항인듯 붕어, 잉어 꼬리쳐라

온통 땅이 웃고 하늘이 웃는 날  
장군님 만나뵈온 사람들  
감동에 겨운 이야기 주고받으며  
만경대에 잇닿은 길로 물결쳐나와라

그 앞장에서 경충경충 뛰는 초동이  
길가집에 대고 논밭의 사람들 불러  
목청껏 웨친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개선연설을 하셨소!》  
세상 기쁨이 제 적삼에 다 감겨있는듯  
진정할길 없는 제 마음을 담아  
열두발 상모처럼 빙빙 휘둘러대며  
장군님 개선소식 목청껏 알린다

그 맨발자국과 짙신과 고무신...  
겹겹이 찍힌 신작로를 따라  
아, 장군님을 모신 승용차는  
환희의 선풍을 내뿜으며  
순간도 늦을세라 만경대로 달려어라  
감동에 겨운 대지의 파도인듯  
높고낮은 언덕을 넘고넘으며

고향집 조부모님 손을 잡으시기전에  
이그러진 공장의 철문을 열어제끼시고  
쇠가루 없힌 로동자의 어깨도 털어주시며  
그들에게 건국의 마치를 쥐여주신 장군님

아, 이 며칠어간만 해도  
시월 구일에는 강선을 찾으시고  
그 다음날엔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오늘은 삼촌만겨레앞에 개선인사 하시교서야  
비로소 조부모님을 찾으시여라

지금 가시는 이 길가에  
스무해전에 떠나신 고향  
손꼽아기다리는 고향집이 있어  
저절로 마음속에 젖어드는 감회를 안으시고  
차창밖을 내다보셔라

낮익은 초가집들이며 다박술 언덕들  
산기슭 원두막이며 작은 돌다리...  
정겨이 바라보시는 장군님  
-예나 지금이나 고향의 산천은 변함이 없군

아, 열네살 어린신 나이에  
인제 가면 언제야 다시 돌아올것인가  
조선이 독립된 다음에야 오겠는데  
그날은 과연 언제일까  
비감하신 마음으로 돌아보시던 고향산천!

백두의 눈비를 다맞으시며 싸우시던 나날  
세월의 락엽은 해마다 내렸어도  
그 락엽밑에 묻히지 않던 고향이었다  
빼앗긴 강토로 마음에 사무치시였고  
못잊을 추억속에 그립던 산천이었다

백두령봉에서 원썬놈들을 굽어보실 때

서리발 이시던 장군님의 눈길  
오늘은 해빛이 유난한 창가에서  
고향산천을 부드러이 부드러이 쓰다듬으셔라

일제헌병놈들이 들이닥치는 말발굽소리에  
닭조차 급한 소리 치며 날아가던 고향아  
수난에 찬 그 세월은 뒤로 물려놓고  
아름다운 모습, 밝은 얼굴로 반겨맞는구나

아, 이 기쁜 날에 함께 못오시는  
부모님을 두고  
장군님은 애석함을 금치 못하시는데  
장군님의 손을 쓸어만지시던 숙모님  
《열네살에 떠났다가 서른이 넘어서  
나라를 찾아안구 오는구만!  
고생인들 얼마나 막심했겠나!》

그 말에 장군님의 겹혀하신 대답  
《전 별루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국땅에 나오니  
오늘을 보지 못하고 희생된 동무들이 생각납니  
다.》

순간 장군님은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못잇을 얼굴들을 하나하나 세워보시는것인가  
못견디게 그리운 동지들을 눈앞에 그리시며  
차창밖 멀리를 끝없이 바라보신다

준엄한 시절에 피도 많이 흘렸고  
아까운 동지들의 희생도 많았다  
이 력사의 봄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했던가

백두의 깊은 계곡과 산언덕에  
조국광복을 부르며 최후의 눈을 감던  
피를 나누며 싸워온 혁명동지들  
이날을 함께 즐긴다면 얼마나 좋을것이라

아, 장군님께선 깊은 생각에 잠기서라  
얼마나 많은 겨레들이 저 하늘밑으로  
살길을 찾아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갔다가  
망국노의 눈물로 해마다 불어나던 그 강들을  
오늘은 손에손잡고 다시 건너오는것인가

사람따라 술과 보집도 떠서  
정처없이 이국땅을 헤매일적에  
이 나라엔 찬바람만 가득 차더니  
오늘은 상봉의 기쁨이 넘실거려라

돌아오는 겨레들을 맞아들이시는 마음  
더없이 만족하시여  
등반이에 몸을 맡기시듯 기대이는 장군님  
지주놈의 빚문서를 찢어던지고  
하루밤사이에 어디론가 고향을 뜬  
한 로인에 대한 안부를 물으신다

《제가 있을 때 고향을 떠나간  
홀배적삼택은 돌아왔습니까?》  
그 말씀에 몸을 다잡고 앉으시는 숙모님  
《돌아왔다우. 이 언덕길을 춤을 추면서  
넘어왔지.》  
《정말 기쁩니다. 다 돌아와야지요.  
이 기쁨을 위해 우리가 싸웠습니다.》

아, 다르게는 올수 없었던 우리 장군님  
한가정을 잃으신 가슴아픈 고통을  
조국과 인민을 건지신 기쁨으로 더시며  
고향땅에 위대한 사랑의 길을 펼치셔라

혁명을 떠밀어나가시던 나날에  
정녕 구원하시자던 우리 민족이였기에  
부모님도 함께 안으셔야 할 그 한품속에  
피로써 찾아내신 삼천만을 포옹하시고  
우리의 장군님께서 고향집을 찾으시여라

만민의 은인이시고 조국의 구성이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  
오시는 길에 축포를 쏘울리고  
오시는 길에 삼천만이 줄지어 깊은 절을 드린들  
우리 인민의 마음 성차지 않으려만

장군님께선 소문도 없이  
자신을 나타내심도 없이  
한낫도 아닌 해지는 저물녁에  
고향집으로 찾아오시여라

...순화강 동쪽에 차를 세우시고  
저녁노을이 붉게 물든 수면우로  
잉어가 번쩍번쩍 울리뛰는 강을  
쪽배를 타시고 건느시는 장군님  
빼격-빼격 노젓는 소리 정거이 들으시며  
고향마을의 전폭을 바라보셔라

세상에 태어나 첫걸음마 땀 땅  
유년시절의 꿈많은 생활이 있고  
부모님의 사랑이 가슴가득 안겨오는  
고향의 정서를 깊이 느끼시는 장군님

조국을 떠나시던 그날에는  
압록강을 건너가시더니  
고향집을 찾으시는 오늘은  
굽이쳐 흐르는 고향의 순화강을 건너오시여라

고향집결에서 《군함바위》를 타시고  
《칼》 휘두르며 떠나셨다가  
일제놈들을 다 베어놓히시고  
스무해만에 아, 스무해만에  
만경대 푸른 기슭으로 돌아오시여라

아, 길지 않은 이 고향길을 다시 밟으시기 위해  
만경대여 말하라!  
너를 조국광복의 봄으로 안으시고  
우리의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은  
몇천몇만리였더냐?!

지구를 몇바퀴 돌고도 남을 혁명로정을  
20성상에 넉넉처럼 휘감아놓으시며  
포악한 일제의 정통을 들이답새기신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

떠나실 때는 눈내리던 겨울날  
얼어터진 조국땅을 돌아보시며 떠나셨건만  
오곡백과 무르익은 이 가을철  
조국광복, 혁명의 수확을 안고  
고향집을 찾아오시거니

고향이여!  
조국이여!  
압제의 더러운 발길에 짓밟혀  
형클어졌던 일만산악의 머리를 빗어넘기고  
동서해의 파도를 불러 억만구슬을 뿌리며  
이 강산의 환희를 폭포에 담아 내리쏟으며  
위대하신 장군님을 마중하라!

## 스무해만에!

가혹한 세월이 썩지른 마파람이  
새된 소리 지르며 달려들군했어도  
벼짚이영 한귀도 들추지 못하고  
비칠거리며 달아나군하던 집

그래도 만경봉에 진달래 피면  
불품 없는 처마살림하는 제비도  
강남 갔다 어김없이 찾아오군해  
할머니의 그리움이 더해가던 집

어제날은 장군님의 고향집이라 하여

원쑤놈들 독이 뻗친 눈길이  
울바자에, 다락문에, 방구석에  
살처럼 꽃혀 돌아갔건만

오늘은 장군님 개선을 기다리는 집  
마당가에 복스러운 햇병아리들  
어미닭 등허리에 펴 날아오르며  
소리도 안나는 해를 치며 재롱피우는데

하얗게 뻗 무명옷도 갈아입으시고  
손자가 들어서면 어수선하지 않게  
마당도 깨끗이 쓸어놓으시고  
사립문도 활짝 열어놓으신 할머니

잠간 발에 나갔다 올 일이 있어도  
그사이 손자가 들어설가봐  
집은 아니 비우시고  
아침부터 장군님 기다리시는 할머니

벌써 하루해가 저무는데  
평양성에 간 머느리는 왜 오지 않누  
장독 뚜껑을 열으시고도  
너무도 손자생각에 골몰하시여  
장플 생각 없이 그냥 서세시고

머칠 있지 않아 장군님이 오신다고  
집에 왔던 그 젊은이도 말하고  
오늘은 개선광장에 나오신다고  
동네방네 떨쳐나 그리로 갔으니  
백성들앞에 인사한 다음에야  
집을 찾아 올법도 한데...

할머니는 이제나 저제나  
무슨 소리 나지 않나 귀기울이시는 순간  
이 무슨 소식이나?!  
내가 헛듣는건 정말 아닐테지  
《장군님께서 오시오!!》, 《장군님께서 오시  
오!!》  
밤나무집 초동의 목소리

그 소리에 집집의 대문이 활짝 열리고  
해바라기도 울박에 얼굴을 내돌리는데  
논밭에서 가을하던 농민들도  
농립모를 벗어쥐고 달려와라

아직 철부지인 아이들도  
바지가랭이에 가막사리 묻혀가지고  
어른들이 하는대로 따라 뛰면서  
신나서 꺽충꺽충 달려와라

나

일순간에 마을은 환희로 번지며  
《장군님이 오셨다!》 《옥란아 빨리 와!》  
저 건너 아주머니, 옆집 간난이  
남녀로소 순화강쪽으로 밀려나간다

할머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어쩔 궁리가 안터 덩덤히 서계시고  
방안에 계시던 할아버님은  
문을 활짝 여시는데  
한발 먼저 들어서는 작은머느리  
《왜 이러구 섰나요, 왔어요! 어머님.》

그러자 허둥지둥 마중나가시던 할머님  
천리만리 또 만리 그 어디 있어도  
찾아가 보고싶던 손자를 앞에 두고  
몇발자국 미처 못가 무춤 서시여라

그 순간 무한한 감개를 안으시고  
걱정의 상봉에 다가서시는 장군님  
《할머님!》 목메여 부르시고는  
모자를 벗으시며 큰절을 드리시여라

《네가 기어이 돌아왔구나!  
이게 꿈이나 생시냐?!》  
덥석 장군님을 안으시는 할머님  
손자의 넓은 품에 얼굴 묻으셔라

하늘에서 내렸느냐, 땅에서 솟았느냐  
떠나갔던 온 가족이 다 떨어지고  
네 혼자 찾아왔구나  
하염없는 눈물이 비같이 내리는데

흐느끼는 어깨를 쓰다듬으시며  
《그만하세요. 너무 이러시면...》  
그만 목갈리시여 말끝을 맺지 못하시는  
장군님의 눈가에 더운 이슬이  
할머님의 동정우에 떨어져라

아, 온갖 수모와 모진 학대속에서  
생때같은 아들들을 빼앗기며  
원한속에 살아온 할머님과 함께  
어머니조국을 부둥켜안으신  
장군님께서 흘리시는 감격의 이슬이여

물어보자, 인류 백만년의 력사여  
그 언제 어느 시대에  
이렇듯 수령과 가정, 수령과 조국이  
스무해만의 상봉을 너의 갈피에 기록한적 있었다

그 언제 있었더냐, 이런 눈물을 받아본적!  
북데기를 안아쌓고 피방아를 찼노라  
허리 한번 편히 못펴고 살아오신  
수수한 농가집의 할머님이  
개신장군인 손자를 맞이한 뜨거운 눈물을  
감격, 기쁨이라는 빛나는 수식사도  
이 순간은 무지개에 비기는 땡기처럼 무색하고  
삼천만의 환호를 다 합치고 노래불려도  
이 순간을 축복하기엔 목청이 모자란다

어제날 전령병이던 부관도  
적삼을 둘러멘 초동이기도  
마을사람들과 함께 소리없이 우는데  
장군님과 할머님이 주고받으시는 마음의  
이야기여

### 장군님

할머님!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가난한 살림을 부축하여 세우시며  
아들, 머느리, 손자 없이 마음고생 이십여년  
알고도 남았지만 이제야 왔습니다.

### 할머님

나무 한대 짝재도 힘이 드는데  
왜놈들 다 잡자니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  
살아서 올것인가 못보고 내가 갈가  
단 한번 손이라도 잡아보고싶었더니  
이 할미의 품에 네가 와서 안겼구나

### 장군님

어디서나 고향은 그리웠건만  
나라 찾는 그 길이 하도 멀고 험해서  
검은 머리 희시도록 기다리신 할머님앞에  
이렇게 늦게야 돌아왔습니다.

### 할머님

장하다 내 손자야  
고생끝에 락이로다  
나는 네가 고향을 떠나던 날  
두루마기 하나 입혀보냈건만  
이 나라의 수령이 되어 돌아왔구나

눈물 고인 할머님의 깊은 주름살에서  
노예살이 막신했던 인민의 수난도 읽으시며  
유년시절의 작은 발자국이 찍혀진  
정깊은 트랙으로 장군님께서 들어서시는데

버선발로 토방을 내려서시는  
칠순이 넘은 할아버님  
《기다리던 손자가 돌아오는구나!》  
백두산을 팔벌려 그러안으시듯  
장군님을 덥석 안으시여라

몸은 비록 활동처럼 굵으셨어도  
마음만은 활줄처럼 팽팽히 메우시고  
원썬놈들 기여들어 행패질하면  
저주와 욕설을 화살처럼 내쏘신 할아버님

기막혀도 단한번 아니 한숨 지으시고  
원통해도 단한번 아니 눈물 보이시며  
굳은 마음 지니시고 참고 견디여내시더니  
맑은 날에 해비처럼 쏘으시는 눈물이어

원썬놈들은 그 무슨 고통인들  
이 작은 초가집에 들보지 않았으랴  
우리 민족의 기를 꺾어보자고  
장군님에 대한 헛소문까지 내어  
그 소문 향간에 구름처럼 떠돌 때

그런 밤 할아버님은 말이 없으셨다  
껌뻑껌뻑 담배불만 옷방에서 태우실뿐  
너무도 억이 막혀 돌아누우신  
할머님의 젖은 손엔 이불깃이 탈리였다.

그런 때 도끼 들고 일어서신 할아버님  
《여보! 오랑캐놈들의 칼날에 넘어질  
우리 증손이가 아니요!》  
뚝 찍어 말하시고  
아닌 밤중에 장작패는 소리 쨍쨍...

그 다음 할머님도 자리털고 일어나셨고  
때아닌 물레바퀴가 소리치며 돌아갔다  
그 물레질소리, 도끼소리에  
밀정놈의 눈썹이 뒤집혔고  
《대일본제국》의 낫짝에 검은 피가 흘렀더라

원썬놈들 제아무리  
악에 받쳐 날뛰었어도  
아,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만경대초가집은  
파도치는 기슭에 우뚝 솟은 절벽처럼  
오늘은 삼천리에 추녀를 높이 들었어라

그 추녀밑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왜놈의 학정밑에서 얼마나 고생 많았는가고  
우리가 좀 더 빨리 나오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장군님께서 차례로 인사를 나누실제

장군님의 손을 잡은 《홀베적삼택》  
못된 세상 갈아엎을 생각은 못하고  
정처없이 이국땅을 헤매다가  
이렇게 장군님 은혜만 받았으니  
백성된 면목이 없다고 송구해 말씀올리자

이 나라의 아들로 마땅히 할 일을 했을뿐이라고  
만면에 환하신 웃음 지으시며 대답하시고  
천천히 손을 드시여 문고리를 잡으시더니  
스무해만에 고향집방문을 열어제끼시여라

문을 여신채 그리히 서계시는  
아, 그리히 서계시는 장군님 들여다보시는  
방안에  
먼저 나와 계시다 반가이 맞아주어야 하실  
부모님과 동생 삼촌은 안계시고...

순간 장군님의 넓으신 품에  
삼천만이 안겨 흐느낀다  
부모, 동생, 삼촌은 다 잃으시고  
우리 인민을 구원하신 장군님!  
가정의 불행은 자신께서 겪으시고  
좋은 세상 밝은 웃음은 인민에게 주셨으니...

드디어 장군님께서 천천히 발걸음 옮기신다  
눈오고 비내리는 수천수만의 산악을  
20성상 타고 넘으시며 원썬를 죽치시교야  
비로소 그 걸음을 옮겨 넘으시는구나  
대대로 발길에 닳아 무디여진  
한뼘 가웃이나 되는 작은 문턱을...

## 삼천만을 잠재우시고

만경봉우에 둥둥 달이 솟는다  
쟁반같이 환하게 웃으며 솟는다  
등잔불 켜진 만경대초가집을  
온 세상이 다 보라고 은빛을 뿌린다

사립문밖을 거니는 그전날 전령병  
사령부 귀틀집앞에 보초서던  
그 마음, 그 자세로  
방문에 비낀 장군님 모습을 우러른다

우등불가에 모여앉은 대원들에게  
만경대와 대동강의 아름다움을 두고  
향촌의 정서속에 이야기해주시더니  
오늘은 고향집에서 이 밤을 보내시여라

백두밀림의 준엄한 나날  
어서빨리 조국을 해방시키려고  
하루밤 묵어가는  
천막속에서도 밤을 지새우시며  
적진에 섬멸의 화살표 그어가시더니  
오늘은 고향집에서 지난날 회포를 나누시는구나

언제 한번 신들메 푸실 사이 없이  
혁명의 진두에서 달음쳐오신 장군님  
어느 하루도 발편잠을 주무시지 못하시더니  
오늘에야 고향집 토방에 신을 벗어놓으셨어라

할아버님께서 삼아주신 짚신을 신으시고  
저 토방을 내려서시여 압록강을 건느신 그날부터  
고향집에 다시 와닿으신 오늘까지  
장군님께서 걸으신 위대한 로정이 없다면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력사의 공백으로 남아있으  
리

부관의 생각은 깊어가는데  
어느새 사립문으로 들어서신 숙모님  
할머님을 부르시여 하시는 말씀  
《어머니, 잠자리를 옮겨야지요.》

며칠전 고향집은 구들을 뜯어  
방안엔 멍석을 깔았는데  
어떻게 스무해만에 돌아오신 장군님을  
누기찬 방에서 주무시게 하랴  
만민이 떠받드는 위대한 수령님을  
20성상이나 풍찬로숙하신 우리의 장군님을

아, 수정기둥에 산호벽을 두르고  
금노전을 깔아드려도  
성치지 않을 인민들의 마음이건만  
장군님께서선 그래도 이 방이 좋하시며  
멍석을 까시고 이 밤을 보내신다

밤이 깊어간다  
난생처음 사립문을 걸지 않으시고도  
만시름 놓으시고 자리에 누우신 밤이라  
조부모님도 일찍 잠드셨는가

장군님께서 조용히  
할머님의 이불귀를 여미여주시는데  
《정말 조선은 해방되구  
너는 내옆에 와서 누웠단말이지?!》

문득 하시는 말씀에  
가슴 뭉클함을 느끼시는 장군님

《할머님 아직 안주무셨어요?》  
《왜 그런지 잠이 오질 않는구나.》

아, 밤은 깊어가도 온 조국이 잠못들이라  
기를 못펴고 살던 세상 끝장나고  
발편잠을 자게 된 세상이 오니  
꿈만 같아 생각 많은 가을밤이여

어제날엔 때문에 빗장을 지른 방에서  
소곤소곤 숨어서 주고받던 이야기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 터놓고 나누며  
집집마다 등불이 꺼지질 않아라

농가에서 나시고 짚신 신고 자라신  
인민속에서 나오신 수령님을 모셨으니  
못살고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주실  
좋은 앞날도 그려보고  
그 앞날을 기쁨에 겨워 걸어보기도 하며  
사람마다 감못드는 희망의 밤이여

그이께선 그 모든 소원 느끼신듯  
슬며시 일어나시며 하시는 말씀  
《할머님, 밤이 꽤 깊었어요.》  
《오냐, 너도 자려무나.》

따뜻이 말을 주고받으시며  
할머님을 정겨이 굽어보시던 장군님  
예나 다름없이 베고 누우신  
할아버님 목침을 조심히 뽑아내시고  
자신의 베개를 대신 베워드리여라

어린시절부터 보아온 목침!  
할아버님이신들 목침이 배기시는줄 왜 모르시고  
폭신한 베개가 좋으신줄 왜 모르시랴만  
고역에 지치신 밤마다 베고 누우신  
구차하게 살아온 가난의 유물이여

장군님은 무겁게 드시고  
오래도록 오래도록 뜯어보신다  
쭉 쭉 터진 이 작은 나무통에도  
우리 인민들의 원한의 력사가 영키여있다

해와 달을 따라 식솔이 늘어나면  
가난이 새끼치듯 목침도 늘어났고  
비를 들고 휘둘러도 거칠것 없는 방에  
목침만이 재산덩이로 굴러다녔다

노루가 꽃을 물고 뛰는 그림을  
금실 청실로 수놓은 폭신한 베개 베고

잘사는놈들이 양단이불밑에서 코를 골 때  
가난한 사람들은 돌같은 목침을 베고  
일에 지친 식은땀을 봉당바닥에 흘렸다

오랑캐놈들이 이 나라의 옥백미를  
통채로 삼켜버릴 때  
우리 인민은 산에 하얗게 달라붙어  
쫓뿌리 캐고 송기를 벗겨야 했다.

저기 헛간에 귀찮은 보습은  
식민지 공업이 와닿은 가련한 처지  
할머니의 손때 묻은 저 베들은  
농민에게 배짱뽕이를 준 우리 나라 《경공업》

지구우에 기적소리 울리고 비행기가 날 때  
우리 조상들은 황소에 코투레를 꿰여가지고  
력사의 밭고랑으로 느릿느릿 걸어나오며  
모든것을 빼앗기고 뜯기우며 살아왔다

멀리 뒤편어진 우리 조국  
너무도 못살은 우리 민족  
어서빨리 낡은것을 털어버리며  
힘을 가다듬고 달려야 하리라

며칠전 강선의 용해공은 무엇이라 말했는가  
《공장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일본놈들이 아무리 다 마사놓았어도  
우리들이 제격 고쳐서 쇠물을 뽑겠습니다.》  
석심하고 웅글은 그 음성마저 새롭다

재능있고 근면한 우리 인민이 있는한  
산도 들어내고 강줄기도 옮기리  
그들에게 공장을 주고  
그들에게 땅을 주고  
그들에게 똑같은 권리와 자유평등을 준다면  
혁명을 지지하여 조국을 받들고 일어서리라

그때까지도 목침을 들고 보시며  
깊은 명상에 잠기셨던 장군님을 보시고  
웃음 섞인 소리로 물으시는 할머니  
《너는 그 불품없는 목침을  
무슨 보화덩이처럼 보며 뭘 그리 생각하느냐?》  
《할머니, 이제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못살던 우리 인민을 다 잘살게 해야지요  
이런것두 다 없애구요...》

그러자 대견하신듯  
손자를 다시 바라보시는 할머니  
《네 몸엔 온통 나라와 백성 생각이 폭배였구나!

정말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더니...》

밤은 깊어  
이제는 조부모님도 잠드셨는가  
백양나무 금빛 잎들이  
마당가에 한잎두잎 내리는데  
장군님께서 작은 책상을 마주하셔서라

아, 어리실적 어머니옆에 앉아  
글을 배우실 때의 책상우에  
백두산에서 쓰시던 조선지도를 꺼내놓으시니  
등잔불이 타는 소박한 방안에  
넓고넓은 조국땅이 펼쳐지는가

붉은 연필을 들고 삼천리강토를 굽어보시며  
점을 찍기도 하시고 삼각표식도 하시며  
깊은 명상에 잠겨계심은  
복구해야 할 공장지구를 짚어가시는듯  
언제를 쌓고 수로를 쥔 자리를 고르시는듯...

아, 어제날 대원들을 잠재우시고  
자신께서는 집필과 작전으로 밤을 지새우시더니  
오늘은 자유의 강산에 삼천만을 잠재우시고  
자신께서는 새조선건설의 구상을 익혀가시는구나

망국노로 시달리는 겨레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시며  
조국을 해방하고 폭 쉬시자고 하시더니  
스무해만에 고향에 오신 이 하루밤마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보내시는 장군님!

이마에 손 짚으셨다가는  
또 붓을 달리시군하시네  
장군님의 모습  
방문에 비낀 그 모습 우러르며  
눈시울 뜨거움에 적시던 부관

사령관동지께서 주무실것을 권하자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방문이 소리없이 먼저 열리며  
장군님께서 나오시여라

사령부귀틀집을 나서시던 그 걸음으로  
고향집 사립문을 나서시는 장군님  
몸소 구상하신 새 조선 건설의 지름길을  
먼저 걸어보시며 확인하시려는듯  
달빛을 밟으시며 천천히 걸으시여라

문득 별 많은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혼자소리처럼 하시는 말씀  
《저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겠소.》  
《사령관동지, 무엇이말입니까?》  
《믿음직한 간부들말이요.》  
《!!》

어제날의 종파나부랭이 변절자들이  
행세식 사자머리를 흔들거리며  
제가 《애국자》노라 《공산주의자》노라  
송사리떼처럼 밀려다니는 오늘

수백수천의 혁명초소에 파견할  
끝끝한 혁명가를 찾으시는 장군님  
천만리 하늘가를 쪽 훑어보시며  
이윽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셔라  
《일없소! 충실한 우리 인민이  
저 별처럼 많은데 문제될건 없소!》

그러시곤 다시 천천히 걸으시던 장군님  
《가만...》하시며 문득 멈춰서신다  
이 깊은 밤 백양나무아래 웬 사람일가?  
《게 누가 서있소?》  
《저... 초동입니다.》

-밤나무집 초동이 어떻게?-  
걸음걸음 다가서신 장군님  
벌써 모든것을 알아보시고  
기특하게 초동이를 굶어보신다

슬기로와라  
그는 보초를 서고있었거니...  
누가 시키지 않았고 맡겨준 직무도 아니건만  
장군님을 따르고 높이 모시려는 마음이  
이 한밤에 너를 충성의 위치에 나서게 했구나

저 별중에 어느 하나인가...  
초동이 어깨에 손 얹으시는 장군님  
《고맙소! 인제는 들어가 자오.》  
《전 일없습니다.  
장군님, 좀 주무십시오! 산에서두...》

아, 말끝마저 채 맺지 못하는  
더벅머리총각의 이 소박한 부락을  
귀중히 받아주시는 장군님  
《나는 일없소. 이건 우리 습관이요.》

밀림의 새벽마다 남먼저 일어나시여  
별이 비긴 샘물에 세수하시고  
작전과 사색으로

새날을 맞이하시던 그 습관!

새벽에서 새벽으로!  
해와 해를 따라 세월은 흘러도  
날마다 새날의 첫머리에 나서시여  
세월을 앞당겨 조국과 인민을 이끄시리니

아, 장군님께서 계시는곳에서는 그 어디서나  
아침해도 서둘러 뜨는가  
만경봉우에 붉은 노을이 탄다  
삼천리강산에 밝아오는 새날이여!

## 찬란한 아침에

붉은 벼를 월계수처럼 엮고  
지붕우에 푸드득 날아오른 수탉  
두다리를 가뿐히 모아짚고 서서  
꼭진한 목청을 돋궂어 청아하게 울어라

그러자 저 추자벌에서 룡악산쪽에서  
동네방네 깨워놓는 닭울음소리  
환희의 강산에 새날을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로 메아리친다

풀벌레 우는 밀림의 밤에도  
문득 생각나던 고향의 정서  
장군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며  
고향집 마당을 쓰시여라

감회롭다!  
어릴적 아침일찍 할아버님이 토방을 내려서시면  
뒤쫓아나오시여 일손을 도와드리시노라  
큰 비자루를 량손으로 불안으시고  
허리를 펴신채 쓸균하시던 마당이다!

대대로 이 마당에서 술한 검불을 담아내고  
기여들던 경관놈도 그때마다 쓸어내곤했어도  
휙뿌리처럼 깊이깊이 박혀있던  
가난과 원한만은 쓸어내지 못했던 마당

아, 장군님께서 모래알을 다 굴리시며  
지푸래기 하나 없이 말끔히 쓸어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셔라

이렇게 조국땅을 쓸어내야 하리라  
일제놈들 남겨놓은 력사의 오물이  
수려한 강산에 어지러이 널렸거니

자기 집 꽃밭은 자기가 가꿔야 하듯  
인민의 손을 한데 뭉쳐

그 모든 쓰레기들을 끌어내고  
이 땅에 인민의 락원을 펼쳐야 하리라

울기강가에서 낚시대를 드리웠던 그날처럼  
장군님께서 마당가에 비를 대시고서도  
삼천리를 다 돌아보시며  
진주를 따내시듯 사색을 고르시는데

하얀 닭들을 날리시며  
부엌문을 나서시는 할머니  
《정말 오늘 떠나겠단말이나?》  
《예, 할일이 많아서 가봐야 하겠습니다》

그 순간 칠골 외가에서 보낸 아이  
토방에 성큼 뛰어올라 굵석 인사하고  
신나서 뚱뚱하게 울리는 말  
《장군님, 칠골집에서 오시랍니다.》

그러자 할머니 다그쳐 잇는 말  
《그것 봐라 스무해만에 왔으니 왜 안그려졌나  
추자별 고모네두 그렇구  
또 마을에서두 뭘 준비한다더라...》

생각에 잠겨 그 말씀 다 들으시고  
할머니 손을 잡으신 장군님  
《할머니, 다 감사하다고 전해주시시오  
나라가 아직 다 취서지 못하구  
인민들도 아직 갈길을 몰라 갈팡질팡하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나라가 해방됐어도 구차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성찬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아, 스무해를 기다려온 고향집은  
백년을 같이 살고싶었던만  
친척과 온 마을은 우리의 장군님께  
환영의 연회상을 크게 받쳐드리고 싶었던만  
장군님의 위업 하도 중하시여  
할아버님도 할머니도 더 말이 없으셨라

어제는 장군님이 오셨다는 소식 듣고  
기뻐서 웃으며 달려왔던 마을사람들  
오늘은 벌써 가신다는 소식 듣고  
서운한 마음으로 모여들여라

꿈결에도 그리웁던 고향에 오시여  
단 하루밤도 편히 못묵으시고 떠나시여라  
래일의 십년과 맞먹고 남을  
오늘의 하루를 드리지 않으시기 위해

모든것이 뒤엎기고 헝클어진 조선  
하나하나 그루를 박아 취세우시며  
새조선의 터를 닦고 기둥을 박아야 할  
거창한 위업을 한몸에 지니신 장군님

아, 집근심을 하면 혁명을 못한다고  
어머니께서 타이르시며 바래주시던  
소사하 초가집을 떠나시던 그날처럼  
고향집을 정겹게 둘러보시고  
장군님께서 토방을 내리시여라

아, 이 집에 술을 건 그날부터  
피죽 끓는 소리 멎을 날 없었어도  
애국심에 불타는 발걸음들이  
대대로 오르내리던 토방돌이여!

늙으신 랑친부모 고이 모시며  
아침에는 김매러 호미차고 나가고  
저녁에는 들꽃도 꺾어들고 들어서며  
밭에 익도록 밟으며 살고싶었던만

아버님과 어머니 그리고 삼촌이  
혁명을 위해 떠나가실 때  
큰뜻 품고 가신 길, 가시는 길 첫자욱들을  
정중히 새겨안고 앉아있는 토방돌

부모님의 뜻이 어린 그 돌을  
우리 장군님께서 다시 내려디디신다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  
인민들에게 크나큰 선물로 안겨주시고도  
더 좋은 세상을 아름 벌도록 주시기 위해!

장군님께서 떠나가신다  
눈보라치는 그날 아침엔  
작은 보집에 인민의 원한도 싸가지고  
두루마기 어깨우에 메고 떠나가시더니  
그 원한 다 풀어주신 오늘에는  
행복한 락원에서 살고싶어하는  
인민의 념원을 안으시고 가시여라

장군님의 인사를 받으시는 조부보님  
어린시절 고향을 떠나실적엔  
정말 혼자서 천리길을 갈수 있느냐?  
따라서시며 마음 놓지 못하시더니  
오늘은 웃으시며 바래시여라

이 아침 장군님께서 가실 길 다 쓸고  
뒤늦게야 달려내려온 초동이네들  
그들을 기특하게 바라보시던 장군님

쑥스러워 싯뜻 내놓지 못하는 손  
 초동이 투박한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이제는 머슴군 초동이가 아니라  
 마을의 주인, 나라의 주인인 김초동이요  
 알겠소, 초동동무.》  
 《알겠습니다!》

난생처음 듣다 처음  
 《동무》라는 호칭을 받는 순간  
 어제날 머슴군 허울은 다 벗어던지고  
 자기는 관관다른 새조선 초동이가 됐으니  
 기분이 구름처럼 둥둥 떠라

떠나는 승용차를 따라서면서  
 만세합성을 울리는 사람들에게  
 차례차례 손저어 답례하시고  
 장군님은 언덕길을 넘어서시여라

어린시절부터 한 가정의 사립문안에서  
 오래 머물러계신적 없이  
 노상 바깥에서 눈비를 맞으시며  
 20성상 싸워오신 장군님

고향과 무송, 흥릉촌과 소사하...  
 혁명가정이 자리잡고계시던 집들에는  
 하얀 베개가 장군님 뒹으로 기다려있었건만  
 언제 한번 베고 편히 누우신적 없이  
 투쟁의 불을 달으시며 혁명의 길에 계셨건만

어제밤도 잠드신 할아버님곁에서  
 해방된 조국과 생각을 나누시며  
 밤을 지새우시고 떠나시는 장군님

일가친척 제집에 한번 모시고싶어하고  
 온 마을이 환영연을 베풀려 해도  
 고향집옆을 지나 강선으로 가시던 그날처럼  
 모든것을 사양하시고 뒤로 미루시고  
 어제도 오늘도 혁명의 한길을 끝추 가시여라

고향사람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고  
 만경대를 떠나시는 장군님  
 이제 삼천만 모두의 손을 잡아끄시며  
 은혜로운 한품속에 안아주시고  
 가장 행복한 삶을 끝고루 주시리라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범하신 사색과  
 탁월한 령도로 조국을 이끄실 때  
 이 땅은 무궁한 번영의 청춘기에 들어서고  
 반만년 부피 큰 이 나라 력사의 갈피엔  
 비로소 위대한 전변의 서사시가 수놓아지리라

진정 우리 장군님은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  
 지난날 노예로 몸부림치던 우리 인민을  
 모든것의 주인인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공산주의언덕으로 이끌어가시며  
 조국을 인민의 락원으로 가꾸어주시려니

오, 서른여섯해 식민지가시발을  
 맨발로 걸어나오시며 자욱자욱 피를 뿌리던 조선  
 아!  
 해가 지는 숙명의 언덕을 넘어가던 너는  
 해가 웃는 광명의 큰길을 달려가게 되리라!

해빛밝은 강산에  
 새 삶은 움트고  
 행복은 꽃피나리니  
 설움과 원한의 피눈물 고이던 이 땅엔  
 그 얼마나 환희에 찬 웃음과 노래가 넘칠것인가!

망국노의 눈비에 젖었던 몸들을  
 붉은 태양의 해빛아래 깨끗이 말리우고  
 거뽀하고도 싱싱한 걸음걸이로  
 오직 인민들은 장군님의 눈길만을 바라보며  
 그이의 부르심따라 나아가리라

아, 장군님께서 개선하신 조국의 가을날이여!  
 어제날엔 복데기만 안고 흠어지던 너는  
 이제는 세월과 세월을 끝없이 이어가며  
 태양의 빛발아래 오곡백과 무르익는 계절

혁명과 건설의 풍만한 수확을 거두는  
 력사의 계절로 바뀌어 영원하리니  
 락원의 강산에 창조의 열매는 주렁지고  
 공산주의미래는 무르익으리라

조국의 일대 전성기가 시작되고  
 인민의 끝없는 행복이 시작되는  
 그 기쁨, 그 희망, 그 미래를 담아  
 이해의 온갖 꽃은 류달리도 활짝 폈어라

## 발을 맞추라, 김철의 행진곡에!

김정순

김철의 아침이다.

봄비는 출근길, 방송차가 행진곡을 울리며 지나 간다. 철의 도시의 노을 비낀 창문들과 쇠물냄새 배인 거리와 용광로의 열풍에 달아오른 하늘가에 시대의 높은 맥박이 울려 퍼진다.

...더 기쁜 쇠물의 소식을 바라며 말없이 문밖에서 따라나서는 어머니와 안해의 간절한 눈동자들 뒤에 두고 제철소집 세대주들이 행진곡을 따라 걷는다. 활짝 열린 수백창문들의 바래움속에 제련군인들이 행진곡에 습관된 발을 높이 든다. 밤새워 만든 프랑카드를 머리위에 펼치며 제철지구 녀인들이 떠들썩 따라서고 그뒤로는 끝없이, 끝없이 지원물자 실은 자동차대렬... 신나게 소고를 두드리는 소년단 꼬마들의 대렬...

보라! 일흔이 넘은 늙은 부부가 손자가 일하는 용해장을 바라보며 파철배낭을 등에 지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행진곡이 마중하는 구내에 들어선다.

러행길에 잠시 들렀던 사람도 저절로 걸음이 급해져 찾아오는 김철!

찾아오면 누구나 피가 뜨거워져 자기 가슴속에 심장이 뛰고있음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는 김철!

당일군도, 인민위원장도, 교원과 의사와 판매원까지 모두 떨쳐나서는 이 거세찬 흐름속에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파견해준 우리의 작가, 예술인 경제선동대도 뛰어 들었다.

평양의 웅장화려한 무대에서 노래 부르던 공훈배우, 인민배우들이 용광로, 해탄로의 열풍속에 웃자락 날리며 노래한다.

사색깊은 숲속의 창작실을 떠난 우리 시인, 작가들이 강철직장의 요란한 소음속에서 열정의 북에 시대의 불꽃을 찍어 로동계급의 심장에 불을 지핀다. 작가, 예술인들의 손을 거친 불을 토하는 선동구호들과 전투속보들과 강철전사의 초상을 그린 무수한 연필화들이 빛나는 삶과 투쟁과 위훈으로 사람들을 부른다.

시대의 흐름속에 생의 발걸음을 맞추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불려야 할 김철의 행진곡!

주체의 궤도를 도는 지구의 공전을 재촉하며 김철의 뜨거운 구내에 울리는 80년대 조선의 힘찬 행진곡!

낮에도 불!

밤에도 불!

《80년대속도》창조의 첫봉화가 타오른 무성한

북변의 철의 숲에 시각마다 기적과 혁신의 함성들이 터져오른다.

.....

얼마전 김철의 75미터 소결로굴뚝보수장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그 아슬한 꼭대기에 누구든 올라가 벗겨진 쇠바줄을 로라에 걸어야 할 과업이 나났다. 피땀침선같은 쇠줄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 올라야 하는, 오르다가 열번도 떨어져 몸이 가루가 될수 있는 그러한 임무! 그러나 한사람이 화점을 막아 돌격로를 열듯이 어느 누구든 기여이 올라야만 하는 절박한 시각.

한 젊음이 나났다.

80년대의 청춘.

연공도 아닌 28살의 제대군인!

아직 첫날상을 함께 받지 못한 사랑하는 처녀와 젊은 동갑이들에게 뜨거운 눈인사 남기고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굴뚝속으로 그는 툴아올랐다. 툴아오르며 병사시절 행진곡을 불렀다

가슴에 꿰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영예로운 별빛이 머리위에 빛난다

.....

그렇다! 《조국보위의 노래》다.

그는 그 시각 조국을 보위하러 오르고있었다. 수령님을 보위하고 당중앙을 보위하고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값높은 삶의 별빛이 기다리는 아득한 상상에 청춘의 불붙는 심장을 높이 올려세웠다.

어찌 이 젊음이뿐이랴!

자신의 심장은 멈춰세워도 제철소의 심장인 용광로를 멈춰세울수 없다는 신념으로 꿰는 쇠물을 식힘이 없이 3호용광로 출선구를 보수한 용해공들!

압연력사에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런 역사를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자고 부르짖으며 모퉁때마다 두배나 되는 《강철비단》을 밀어제끼는 압연공들!

- 《80년대속도》의 한계점을 찾지 말자!

이것이 온 나라앞에 높이 추켜든 김철의 심장, 불붙는 심장의 열변이다.

이것이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에 떨쳐났던 56년 대고조의 전

통을 계승한 전사, 우리 당중앙이 키운 80년대로  
로동계급의 높은 정신세계이다.

이것이, 이것이 마음만 먹으면 산악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는 무서운 기세, 재더미를 헤치고 강  
위력한 사회주의조선을 일떠세우고야말 힘찬 기  
세였던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를 지닌 김철의  
역센 기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우리는 결코 느린 걸음을 걸을수 없으며 남보  
다 몇배, 몇십배 더 빨리 달려나가야 합니다.》**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

김철의 로동계급이 온 나라를 향해 높이 웨친  
이 구호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기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기발,

사소한 침체와 담보도 허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게 하는 창조와 혁신과 투쟁과 위훈의 기  
발, 《80년대속도》의 혁명적기치이다!

강선의 불길속에 내려친 천리마를 타고 《동무  
는 천리마를 탔는가?》고 부르짖던 천리마기수가  
오늘은 이 기발을 들고 날으는 천리마에 속도전  
의 박차를 가하며 소리친다.

《동무는 <80년대속도>로 날으는가?》

그 기수의 무기는 자력갱생!

그 기수의 타격대상은 침체와 담보!

전진과 혁신의 그늘밑에 잠을 자는 온갖 낡은  
사상에 사상전의 포화를 들썩우며, 기존공식과  
공칭능력의 장애물을 힘껏 걷어차며 김철의 기수  
는 세기의 하늘가에 화살같이 날아오른다...

한점의 불꽃이 온누리에 활화산같은 불을 지피  
고 한 전사의 선창에 수억만 대오가 우람찬 합창  
으로 화답한다.

들으라!

천길땅속을 두드리는 검덕의 발파소리,

백두의 하늘에 자랑높은 무산의 대발파소리.

못잇을 강선의 노을속에, 황철의 후더운 하늘  
가에 대안과 룡성과 희천의 기계바다우에 쿵쿵-  
김철의 행진곡은 퍼져간다.

기름진 들판에 한결 더 우렁찬 프락프르발동소  
리. 먼바다에 한결 더 웅글은 배고동소리. 두줄기  
철길우에 어제보다 더 요란한 기적소리.

간석지건설장의 들끓는 소음과 밤을 모르는 갑  
문건설장의 물보라속에

오, 삶이 태동하고 투쟁이 타오르는 이 나라  
도시와 마을에 김철의 행진곡은 80년대의 숨결로

높인다. 그 억센 숨결속에, 맥박속에 백두에서  
발걸음 높이 출발한 조선혁명은 락원의 오늘에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의 기발을 한층 더 높이  
추켜들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서 천만리

영광스런 당중앙을 따라서 천만리

투쟁속에 세대는 바뀌었어도 성스러운 주체의  
붉은 기발은 인류력사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뭇긴  
다!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용해공인 아버지와  
함께 오늘 《80년대속도》창조의 행진곡에 발맞  
춰가는 강철직장의 젊은 용해공은 말한다.

《언제나 우리들을 믿어주는 영광스러운 당중앙  
에서는 오늘 김철의 발걸음이 조선의 맥박으로  
되게 하여주었다.

지금 김철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혁명의 운명, 우리 당의 운명을 생각하고있으며  
한걸음 옮겨도 온 나라앞에 시범동작을 하는 마  
음으로 걷고있다.

우리의 발걸음은 당중앙의 구령을 따르는 빠른  
발걸음이며 높이 든 발걸음이다!

하늘은 무너지지 않을것ियो, 이 땅은 꺼지지  
않을것ियो, 어떤 산악이 막아서도 강물은 바다  
로 도도히 굽이쳐가고야말듯이 우리 당이 올려준  
<80년대속도>의 힘찬 곡조에 맞춰 발걸음 높이  
든 우리는 반드시 공산주의 하늘아래 남먼저 들  
어서고야말것이다!》

사람들이여!

이 불변할 로동계급의 진리에 우리 무슨 말을  
더 보탤수 있을건가!

김철의 행진곡속에 맥박치는 이 강철의 신념,  
백전백승의 신념을 이 세상 어느 힘이 꺾을수 있  
을건가!

김철의 행진곡은 《80년대속도》에 맞춘 억만심  
장의 합창! 김철의 행진곡은 공산주의령마루우에  
높이 울릴 강철의 서곡이다!

전체 작가들이여!

혁명의 체온, 시대의 체온-김철의 열풍으로 심  
장을 더웁히라.

시인들은 천만심장을 부르는 시대의 나팔수가  
되라! 소설가들은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  
로 달리는 80년대 기수들속에 호흡하라!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향도성을 결사  
옹위하는 성벽이 된 조선의 자랑찬 로동계급의  
대렬속에 뛰어들어 그들을 부르며 고무하며 힘차  
게 앞으로 나아가자!

## 그의 휴가

김문창

열흘전에 평양에 출장갔던 한영인비서가 저녁 차로 돌아왔다.

최용국지배인은 그 소식을 듣자 사업일지를 들고 초급당비서실로 찾아갔다.

《그새 수고했습니다.》

한영인비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나오며 그의 손을 반갑게 잡아주었다. 매년 악수할 때마다 체험하는바이지만 최용국은 줄안에 드는 당비서의 작은 여원 손을 잡으며 몸이 약한 그에 대한 동정심과 푸둥푸둥하니 살이 많은 자기 손에 대한 거북함을 새삼스레 느꼈다. 그는 당비서의 손을 슬며시 놓고 응접탁에 다가가 사업일지를 펼치며 앉았다.

《이번에는 무슨 과업들이 제기됐습니까?》 최용국은 만년필을 꺼내 적을 자세를 취하며 물었다.

《과업이요?》 한영인비서는 최용국을 마주 쳐다보며 시물 웃었다. 그는 대답 대신 평양에서 사가지고온 《금수대》담배갑을 내밀었다.

최용국은 새 과업이 제기되지 않은것을 은근히 섭섭하게 생각하는지 《금수대》를 한대 뽑아 묵묵히 붙여물었다.

《지배인동무, 난 래일부터 휴가를 받게 됐습니다.》 비서는 여전히 미소를 지은채 나직이 대답했다.

《휴가를요?!》 최용국은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에 엉덩관을 들썩거리며 환성을 올렸다. 《어쩌다 그런 일이 다 생겼습니까! 정말 잘됐습니다. 잘됐어요!》

비서가 휴가를 받은것이 용국에게는 커다란 행운이 차례진것보다도 더 기뻐다.

최용국은 한영인비서와 탄광기계공장에서 5년나마 같이 일해온다. 결코 짧지 않은 이 나날을 함께 일해오면서 그는 비서한테 휴식이 없는것을 못내 속으로 안타까와했다. 비서는 레스링선수처럼 탄탄한 기사장이나 몸집이 좋은 자기와는 달리 몸이 강말랐고 얼굴에는 풀지 못한 피곤이 늘 서려있었다. 그러면서도 곁에서 걱정하면 도리어 팔씨름을 해보자고 소매를 걷어올렸고 《지배인동무나 기사장동무는 감기에 걸려도 나한테는 비루스가 감히 덤벼들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하고 상대방을 비웃으려고 덤벼들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도당에까지 제기해가며 최용국에게 금강산휴양권을 안겨주었고 부지배인한테는 자기 손으로 보약까지 사다주었다. 행정일군들

의 건강에 대하여 비서가 남달리 원심을 쓰는것만큼 용국이라도 당비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휴가같은것은 받으리라고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터인즉 다문 며칠이라도 집에서 쉬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것이 그의 생각이였다. 그런데 본인의 입에서 휴가를 놀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니 최용국으로서는 여간 놀랍고 반갑지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번에는 휴가를 다 받을 결심을 냈습니까? 우에서 무조건 놀라구 합데까.》

한영인비서는 이 말에 대답을 않고 웬일인지 피하듯 얼굴을 돌리며 시물시물 웃기만 했다.

《그래 어느 휴양소에 가기로 했습니까?》

《휴양소요?... 난 애들과 같이 집에서 보낼 생각입니다. 저 량강도 풍산군에 있는 부모님들도 찾아오셨는데 겸사겸사해서... 꼭 칠년만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잘됐습니다.》

50 이 다 된 비서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다는것을 이미 알고있는 용국은 늙은이들이 알맞추 온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두분 다 여든이 넘는데 아직두 젊은이들처럼 정정합니다. 글썄 제 사업에 대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한영인비서는 자랑하듯 말했다.

《하하하... 옳습니다. 부모들의 심정이 그렇지요. 아들이 할아버지가 되여가도 걱정은 애들때와 같더군요.》

《그런가봅니다. 이번에도 지배인동무가 제 건강때문에 걱정하던 산꼴을 좀 꾸려가지고 왔습니다. 팔주머니, 콩주머니 뭐 올망졸망 싸가지고... 허허 늙은이들이란...》

한영인비서는 이렇게 말하며 최용국을 바라보았다. 최용국은 감동이 비낀 눈웃음을 지으며 행복하게 앉아있었다.

그런데 한영인비서는 잠간 생각에 잠겼다가 서류함에 가서 새빨간 표지의 책을 들고왔다. 최용국은 그 책이 당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할 때마다 비서가 들고 나타나는 책임을 알고있었다. 비서는 책상우에 그것을 펼치며 사뭇 정색해서 물었다.

《지배인동무, 월봉탄광에 보낸 박충채탄기가 어떻습데까. 잘 돌아갑데까?》

《예. 시운전이 비슷하게 잘됐습니다.》

《시운전에 누가 갔됐습니까?》

《내가 직접 갔다왔습니다.》 최용국은 장한 일을 한 사람처럼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박충채탄기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고 공장에서 만든 것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월봉탄광 탄부들이 처음으로 탄폭이 60 센치아래인 최박충탄을 캐고있다는 것을 보고받으시고 최용국 이네 탄광기계공장에서 박충채탄기를 10 대 만들어 보내줄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접하고 공장에서는 월봉탄광 기술자들이 제기한 도면(탄광에서는 자기네 공무직장에서 만든것으로써 이미 반년나마 실험해오고있었다.)에 근거하여 두달동안의 긴장한 돌격전을 벌려 10 대 다 동시에 만들어냈다. 만든 채탄기들은 한영인비서가 출장가던 날 탄광에 보내게 되었는데 비서는 떠나면서 용국에게 지배인이나 기사장이 직접 탄광에 같이 가서 시운전을 보고오라고 신신당부하였었다.

《그래 기계에 대한 탄부들의 반영이 어떻습데 까?》

《그저 막 좋아합니다.》

용국은 탄광로동자들과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누어보지는 않았지만 시운전때 좋아하던 모습들을 그려보며 이렇게 짐작으로 대답했다.

《탄부들이 좋다면 됐습니다.》 비서는 흡족한듯 연필을 집어들었다.

《지배인동무, 여기에다 집행했다고 써넣어도 일없겠지요?》

《써넣지 않구요. 내 책에다도 써넣었습니다. 그러구 우에다도 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용국은 자신있게 대답했다.

한영인비서는 펼친 책장에 집행하였다고 연필로 또박또박 써넣었다. 그러나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쓴것을 도로 지우고 무슨 실책이라도 한듯이 목뒀을 손바닥으로 문대었다.

《어째 그러니까?》 용국은 의아해서 물었다.

비서는 대답을 피하였다. 그러나 용국이가 의아쩍은 눈길을 계속 떼지 못하자 조용히 웃으며 안심시키듯 말했다.

《뭘 지배인동무의 말을 믿지 못해 그런건 아닙니다. 회의에서 토론해보고 올리자고 그러니까.》

그리고는 빨간뚜껑의 책을 처음부터 한장씩 번지며 생각깊은 눈을 거기에 떨구었다. 이윽히 지나서야 머리를 들고 나직이 물었다.

《지배인동무, 우리가 지금까지 집행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중에서 더 잘할수 있는것을 못했다고 생각되는 점은 없습니까?》

용국은 당비서의 뜻밖의 질문을 다시금 의아해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교시집행문제는 이미 다 총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만 혹시 제대로 못한것을 했다고 총화한것이 있을가봐 그러니까.》

《혹시 이번에 올라가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집행과 관련하여 무슨 비판이라도 받은게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한영인비서는 손을 흔들고나서 빨간책을 들고 서류함에 가져다넣었다. 그리고는 담배를 피워물고 공장에 대한 다른 문제로 화제를 돌리었다.

× ×

《지배인동지, 밤에 초급당비서동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중으로 기사장동지하구 함께 월봉탄광으로 오랍니다.》

신발에 잔뜩 묻은 눈을 탁탁 털며 생산과에 들어서던 최용국은 지령원의 보고에 무슨 생똥같은 소리냐는듯 의아하니 그를 보았다.

《비서동무가 탄광엔 뭇하러 갔겠소? 휴간데...》

《이걸 보십시오. 밤 2시 15분에 전화를 받았는데.》

지령원은 얼른 전화접수대장을 펼치고 둘째손톱으로 금을 뺨 그으며 기록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래 무슨 일때문에 오라는지 얘기가 없었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저 기사장동지를 꼭 데리고오라는것만 강조했습니다.》

《기사장을?》

최용국은 자기 방으로 가면서 머리를 기웃거렸다. 어제부터 휴가에 들어간 비서가 무엇때문에 200 리밖에 있는 월봉탄광에는 갔으며 또 왜 기사장과는 함께 오라는것인가? 혹시 그곳 탄광에서 박충채탄기때문에 초급당에 무슨 의견이라도 제기된게 아닌가?

지난 시기에도 탄광들에서는 가끔 만들어보낸 설비들을 두고 의견들을 제기하는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비서자신이 꼭 찾아가서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취하곤하였는데 지배인인 용국이란 데는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고 기사장이나 생산부 기사장을 닦아세웠다. 보통때는 시물시물 웃기도 잘하는 비서였지만 일단 그릇된 현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사정이 없었다. 그렇게 엄격하면서도 뜨거웠다.

최용국은 자기 사무실에 들어서자 초급당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았다. 그랬으나 월봉탄광에서 제기된 의견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쩌다가 받은 휴가를 쉬지도 않고 무엇때문에 탄광에 갔을가?)

최용국은 당비서의 일을 끝내 짐작 못한채 기사장 강태호와 함께 월봉으로 떠났다.

시내를 벗어난 승용차는 허허벌판의 끝게 뻗은

신작로에 들어서자 폐속정같이 달렸다. 차뒤에서는 눈가루가 연기처럼 소용돌이쳐올랐다. 두시간도 못되어 흰뺨같은 눈모자를 고즈넉이 엮은 군경제표식말뚝을 두개나 지났다.

뒤에 앉은 강태호는 상급침대에라도 오른듯 찍 벌린 두팔로 의자등받이를 잡고 드렁드렁 코까지 끌었다. 몸집이 드레진 그는 어디에서나 기회가 없어서 눈을 붙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협의회 같은것을 할 때조차 코앞에서 고개방아를 찧어 용국으로 하여금 아래사람들이 있는데서 깨우기도 거북하고 그렇다고 깨우지 않을수도 없어서 민망스러운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용국은 그러한 기사장을 몇번이나 욕하려고 하였으나 고쳐 생각하고 그만두곤하였다. 아직 잠이 많은 나이인데다 밤마다 늦게 들어가는 그였다. 그런데다가 일년전에 상처한 뒤로는 부엌일까지 해야 하니 잠인들 얼마나 모자랄것인가.

앞에 달린 거울속으로 태평스럽게 자는 기사장의 모습을 바라보던 최용국에게는 불현듯 그저께 저녁 그에 대해 걱정하던 초급당비서의 말이 떠올랐다.

《지배인동무, 이제는 기사장동무가 혼자 난지 이년이 되었으니 새사람을 맞아도 일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을까요?》

최용국은 비서가 기사장의 집문제를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이렇게 대답했었다.

《인제야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비서동무한테 한번 얘기하자던 참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기사장동무네 집에 가서 빨래랑 해주고 왔는데 곁에서 걱정해주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았습시다.》

《그러니 주위에서도 새사람들이 들어왔으면 해한다는것이구만요. 그래 지배인동무는 어데 봐둔 녀자가 없습니까?》

《내가요?》 용국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변명하듯 말했다. 《로동자들과 같이 전기로앞에서 쇠장대를 휘두르라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그런 일은 재간이 없습시다.》

《하, 거기에 무슨 재간이 필요합니까. 진심이면 되는것이지... 나도 재간은 없지만 어디 이번 휴가기간에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비서가 하던 말을 더듬고난 용국은 아침에 지령원이 하던 말까지 겹쳐들어 속으로 무릎을 탁 쳤다. 비서가 탄광에 간것은 틀림없이 그 문제때문인것 같았다. 그렇다고 지퍼서인지 용국에게는 언젠가 초급당비서를 찾아 월봉탄광에서 왔던 한 녀성이 기억에 떠올랐다.

(군대에 있을 때 무전수로 데리고있던 동문데 결혼하자 남편이 심장마비로 잘못되어 지금까지 혼자 산다고 했지. 전쟁고아인데 가까이 있으면

도와주어야 할 녀자라구.)

얼굴모습은 푹푹히 떠오르지 않으나 몸매가 좋고 첫인상을 강하게 주던 그 녀인을 눈앞에 애써 그려보며 최용국은 빙긋하니 미소를 머금은채 강태호를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등받이우에 두팔을 짹 벌려 올려놓은채 꿈나라에 빠져있었다.

《일어나오.》

강태호는 용국이가 흔드는바람에 눈을 떴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더니 으흐흐 소리를 내며 기지개를 폈다.

《예예, 잘 잤군!》

《탄광에 다왔는데 정신을 깨오. 머리두 빗구 모자두 잘 쓰구... 그런데 면도나 하고 올걸 그랬소.》

용국은 기사장의 면도를 안한 거뒀한 불과 다림발이 풀어진 옷을 보고 은근히 걱정되어 말했다.

《어찌겠습니까. 그런데 비서동진 홀애비사정을 통 몰라주거던요. 또 추궁을 받게 됐는걸...》

《추궁을 받겠는지 더 좋은 일이 기다리겠는지가 봐야 알 일이지.》

《지배인동무는 알고있는것 같은데 그래 대판결 무슨 일로 오란다는겁니까.》

《기사장동무네 집문제때문이요.》 용국은 유쾌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문제때문이요?》 강태호는 미덥지 않다는듯 한번 도리질을 하며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거짓말인줄 아오? 그저께 밤에 비서동무가 나한테 얘기가 있었소.》

《그랬습니까!》

강태호는 감동에 젖은 눈으로 용국을 일별하고는 자기의 옷차림을 실망에 차서 내려다보고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될게면 될게구 안될게면 안되겠지.》

× ×

두사람이 탄광에 이른것은 11 시가 다 되어서였다. 그런데 한영인비서는 박충채탄기를 쓰고있는 전차갱 1 중대막장에 들어가고 없었다.

강태호는 어떻게 된 일인가고 문듯이 용국을 쳐다보았다. 용국은 모른듯이하고 탄광지령원에게 물었다.

《박충채탄기가 고장나지 않았소?》

《아니, 잘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우리 비서동무가 막장에는 왜 들어가있소?》

《글쎄말입니다. 그런거야 어디 지령원한테 보고하고 다닙니까.》

두사람은 의아함을 풀지 못한채 탄광통기기사



의 안내를 받아 1 중대막장으로 들어갔다.

채탄장은 멀었다. 내리굴인차를 타고 700 메터나 내려간후 거기서 다시 평도를 따라 2천메터나 들어가야 했다.

콩크리트와 주강동발로 차굴과 같이 궁형으로 미장한 평도에는 가로등마냥 전등들이 홍보석처럼 줄달려있고 아득히 뻗어간 두줄기의 철길에서는 불빛이 알른알른 꼬리를 물고 내뿜었다. 갱도 벽들에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에로!》, 《모두다 1 억 2 천만톤 석탄고지 점령에로!》라는 구호의 붉은 글발들이 기폭처럼 나붙었고 속보장들이 수많은 혁신자들을 자랑하고있었다. 길다란 탄차행렬을 끌고 전차들이 번개같은 섬광을 번쩍거리며 맹렬히 줄달음쳤다.

1 중대막장에서는 박충채탄기가 한창 돌아가고있었다. 라선형으로 타래진 아름다리 정대가 탄벽을 둥그렇게 깎으며 들어가는데 밀려나오는 탄이 번쩍거리며 철관콘베아를 타고 흘러나간다. 실로 여기서는 쇠동발과 들보를 드다루는 일도 없고 발파하는 법도 없이 스위치로 탄을 캐고있다. 채탄공들은 땅속에서 일한달뿐이지 기계공장의 선반공들보다 무엇이 더 힘들것인가.

최용국은 채탄기를 바라보며 가슴속에 차오르는 긍지와 자부심을 견잡을수가 없었다. 채탄기를 만들던 때의 일들이 언뜻언뜻 눈앞에 지나갔다. 바로 이 훌륭한 채탄기들은 자기네 공장에서 만든것이다!

그러나 강태호기사장은 환자의 가슴에 청진기를 댄 의사처럼 심각한 표정이 되어 채탄기 여기저기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최용국은 그러한 그를 툭툭 건드려가지고 휴계실로 들어갔다.

한영인비서는 거기서 탄광초급당비서를 비롯한 여러 사람과 무엇인가 한창 토론하고있었다. 그는 두사람을 보자 반갑게 손을 내밀고나서

《채탄기를 더 좋게 완성하자는 의견이 제기돼서 오라고 했습니다.》 하고 말했다.

《제작에서 잘못된게 있습니까? 우리는 탄광에서 제기한 도면대로 만들었는데요.》

용국은 한영인비서의 눈길을 피해 탄광 초급당비서와 그의 곁에 있는 탄광기술발전부기사장을 문듯이 보았다. 채탄기제작때문에 공장에 여러번 다닌 기술발전부기사장은 눈을 내리깔며 낮을 붉혔다.

한영인 비서가 최용국의 그러한 불만을 모른척하고 기대결에 나가서 토론해보자고 먼저 휴계실을 나섰다. 채탄기결에 모두들 모여서자 그는 이미 채굴한 구멍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 보시오. 이렇게 구멍사이잔주를 남기고 채굴하니 채취률이 40 프로밖에 안된답니다. 이 잔주들까지 마저 캐먹을수 있게 채탄기에 잔주절

삭부를 더 만들어 설치하면 채취률을 70 프로까지 높일수 있답니다. 시급히 만들어주어야 하겠습시다.》

《그거야 ...참, 처음부터 도면에 반영해야지 이제 와서 해달라면 어떻게 하오?》

최용국은 탄광기술발전부기사장을 언짢게 보았다.

《지배인동무, 우리는 해달라는 말을 ... 비서동무가 전화로 우리의 의견을 묻기에 말했을뿐입니다.》 탄광기술발전부기사장은 두손을 벌려보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랬었다. 한영인비서는 어버이수령님 교시집행정형을 하나하나 재확인해 보면서 설비들의 가동정형을 알아보았던것이였다.

《내가 하자고 했습니다.》 한영인비서가 자르듯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용국은 비서가 노했구나 생각했지만 그저 무력대고 받아물고싶지 않았다. 비서야 하자고 말이나 하면 되지만 그것을 실시 하는데 고충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나 하는가. 주강직장의 소재생산으로 부터 가공, 조립에 이르기까지 또하나의 새로운 공정을 세워야 한다. 기본생산과제를 하재도 긴장한데 그것까지 또 해내자면 ...참말로 골치가 아픈 일이였다.

그는 비서의 일이 리해는 되였지만 공장에서 잘못된 일도 아니고 탄광에서 굳이 해달라는것도 아닌데 뭇때문에 일부러 찾아와서 일감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탄광사람들이 있는 자리라 입을 다물고 있을수밖에 없었다.

한영인비서는 그가 침묵을 지키자 강태호를 향해 품속에서 꺼낸 도면을 내밀었다.

《기사장동무, 탄광동무들이 만든 도면이요. 이 잔주절삭부를 만드는데 며칠이나 걸리겠소?》

강태호는 도면을 받아 한참 들여다보더니 슬쩍 용국의 눈치를 살피고나서

《공장에 가서 아래동무들과 토론해봐야 하겠습시다.》 하고 어정쩡한 대답을 했다.

그러자 한영인비서는 목적했던 일이 끝났다는 듯 막장을 떠났다.

일행이 밖에 나와 목욕까지 하고나니 어느덧 세시가 지났다.

일행은 탄광합숙식당으로 안내되였다. 커다란 두리반에 둘러앉았을 때 용국은 비서가 강태호의 옷차림을 여겨보며 눈살을 찌프리는것을 보았다.

넓은 목달개, 두가지 실(검은색과 보위색)로 보기 싫게 단 단추들...

뒤머리를 무게있게 틀어올린데다 얼굴색이 희말쭙하고 몸이 풍만한 녀인이 음식쟁반을 들고

주방쪽에서 나타났다.

용국은 그 녀인을 보는 순간 대뜸 그가 언젠가 비서를 찾아 공장에 왔던 녀인임을 알아보았다.

녀인은 식탁에 다가오자 한영인비서와 최용국에게 이마를 숙여 인사를 보내고 강태호에게는 더 다정히 인사말을 건넸다.

《오래간만이군요. 그새는 왜 그렇게 까딱하지 않았어요?》

《뭘 탄광에 반가와할 사람이 있어야 오지요.》

강태호는 얼굴에 뭐가 묻기라도 한듯 쓰다듬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녀인은 그의 통담기 어린 대답에 얼굴을 붉히며 주방쪽으로 물러갔다.

(기사장과는 벌써 아는사이군.)

용국은 채탄기 잔주절삭부문제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가운데서도 비서의 눈치를 슬쩍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언짢은 표정이었다. 비서는 떠날 때에도 바래우러 나온 그 녀인에게 그저 집에 놀러 오라고 했을뿐이었다.

대신 승용차가 탄광을 벗어나자 강태호에게 물었다.

《그래 잔주절삭부를 만드는데 며칠이나 걸릴것 같소?》

《글쎄말입니다.》

《기사장의 대답답지 않구만. 아래일군들과 협의해도 자기의 안은 있어야 할게 아니요?》

《소재생산부터 하자면 한달은...》

《무슨 소리요? 더 단축해야 하오.》

《더요?》 이번에는 용국이가 놀라며 말했다.

《그게 그렇게 쉬운줄 압니까. 그런데 그런 지시가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비서는 잠시 대답을 안했다. 그저 유리창으로 내다보기만 하다가 묻는것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만 강조했다.

《될수록 빨리 해야겠습니다.》

《비서동무, 지금 직장마다 부하가 걸렸습니다. 비서동무가 출장간후에 지방산업공장을 도와줄데 대한 사회적분공을 또 받았습니다. 탄광에서 당장 해달라는것도 아닌데 정해야 한다면 다음달에 합시다.》

《다음달에요?》 비서의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졌다. 《안됩니다. 무조건 당장 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의하여 만든 채탄기인데 최상의 높이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탄광에서 제기한 도면대로 만들어주었지만 기계의 완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탄광에 제때에 가서 의견들을 들어보았다면 벌써 이 일을 바로잡았을것입니다.》

최용국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강태호가 사정하듯 말했다.

《비서동지, 그렇지만 열흘안에는 좀 힘들것 같습니다.》

《힘들다?... 힘들어도 힘을 합쳐봅시다. 나도 달라붙겠소.》

《비서동지야 휴간데...》

그러나 비서는 그 말을 못들은듯이 그다음부터는 공장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입을 철문처럼 다물고 열지 않았다.

× ×

한영인비서는 공장에 도착하자 즉시 지배인방으로 가서 기술일군들과 직장장들 그리고 직장부문 당비서들을 불렀다.

《동무들을 모이라고 한것은 좋은 일을 한가지 의논하자는것이요. 우리가 얼마전에 만들어보낸 박충채탄기에는 아직도 완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걸 발견했소. 탄광에서 제기한 도면대로 해주었는데 우리한테 무슨 책임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되오. 초급당에서는 오늘 부터 채탄기의 완성을 위하여 채탄기에 설치할 잔주절삭부를 만들 결심이요.》

이렇게 시작한 비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집행에서 어떠한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당원들과 군중들을 발동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지배인도 어쩔 수 없게 되었다.

그날밤부터 작업복을 입은 비서의 모습을 주강로와 선반기 앞에서, 조립직장의 조립공들 속에서 볼수 있었다.

처음에는 마뜩지 않아하던 강태호도 어느새 말려들어가 비서와 그리고 로동자들과 함께 밤을 새기 시작했다.

최용국은 비서한테 의견이 있었지만 모두가 뛰는데 강건너볼보듯할수가 없어서 매일 아침 잔주절삭부추진정형에 대해 직장장들과 생산과에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취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현장에도 나가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면서 비서가 휴가를 놀지 않고 공장에 나와 사는것이 자신의 일처럼 화가 나기도 했고 한편 가슴아프기도 했다.

(정말 고집두... 정 그렇다면 나보구 해내라구 할것이지. 이견 회의에서 비판하는것보다 더 바쁘게 만들지 않는가.)

최용국은 자기가 반대했다는것도 잊고 이제와서는 이렇게 비서를 원망했다.

드디어 열흘이 지나 잔주절삭부를 탄광에 가지고 가서 시운전을 해보게 되었다.

비서는 지배인과 기사장을 탄광에 보내면서 당부했다.

《시운전을 마치고 6시전으로 돌아오시오.》

최용국은 기사장과 함께 탄광에 가서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 그런데 공장에 돌아와 초급당에 들리니 비서는 없고 조직부비서와 선전부비서가 두사람을 기다리고있다가 물었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탄광 초급당비서하구 지배인이 너무 붙들어서 그만...》 강태호가 벌췌 웃으며 대답했다.

조직부비서가 한숨비슷하게 속상한듯한 숨을 내쉬더니 모두에게 자자고 말했다.

《자 늦었지만 우리끼리 갓다웁시다.》

조직부비서는 일어나 숨저고리를 입으면서 밖으로 나갔다.

승용차는 눈보라치는 거리를 조심스럽게 달렸다. 최용국은 어디로 가는지 성에가 낀 유리를 입김으로 녹이며 내다보았으나 어두운데다 아우성치는 눈보라때문에 향방을 종잡을수가 없었다.

《부비서동무, 어디로 가오?》

용국은 무슨 궁궁인지 알수 없어 뒤에 앉은 조직부비서에게 물었다.

《비서동무네 집엘 갑니다. 얼마나 기다렸겠는지 아니까? 탄광에 전화를 거니 시운전은 성과적으로 뻤다는데 지배인동무하구 기사장동무는 오지 않지...》

《미안하게 뻤구만.》

최용국은 한영인비서가 풍산땅에서 늙은이들이 가지고 온 특산물로 음식을 만들어놓고 자기들을 기다리고있음을 대뜸 짐작하고 사과하듯 말했다.

차가 몇자 모두는 조직부비서의 뒤를 따라 비서네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마침 비서가 외출복차림으로 나오고있었다. 뒤따라 외투를 든 늙은 어머니가 나왔다.

강태호는 깜짝 놀라 부비서를 돌아보았다.

《...? !...》

《비서동무는 상급의 소환으로 판곳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조직부비서가 웃으면서 섭섭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용국은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라 큰 몽둥이에 세차게 한대 얻어맞은것 같았다. 그는 비서가 외투를 입는것을 못입게 막아나섰다.

《이런 법이 어데 있습니까. 그래서 휴가를 받았으면 귀찮이라도 해주어야지. 부비서동무도 알면서 말을 안하다니... 좌우간 오늘은 못떠납니다.》

《지배인동무, 뭘 이릅니까? 래일까지 목적지도 도착해야 합니다.》

한영인비서는 자기의 소매를 잡은 용국과 강태호의 손을 애써 웃으며 떼놓았다.

최용국은 최면술에 걸린 사람처럼 외투를 입는 비서를 멍하니 보기만 뻤다.

그래서 휴가를 받았는데 하루도 편히 집식구들과 있어보지 못하게 하고 비서를 아주 떠나보내는것이 얼마나 가슴아픈지 몰랐다. 아, 잔주절삭부만 제기되지 않았던들... 아니, 내가 그러한 립장만 보이지 않았던들 비서는 오래간만에 오신 부모님들과 같이 집에서 단 하루라도 휴식하였을 것이 아닌가.

최용국은 바로 자기가 당비서의 휴가를 빼앗았다는것을 가슴저리게 느꼈으며 지배인인 자기가 당정책집행을 박충채탄기에서처럼 한다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휴식을 빼앗아낼수 있다는것을 통절하게 깨닫게 되었다.

속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깊은 회오에 빠져있던 그는 모두가 비서를 따라 마당에서 큰길로 나갈때야 자신을 다잡고 뒤쫓아나갔다. 트렁크를 든 비서의 안해와 월봉탄광합숙 녀인이 마지막으로 나왔다.

차앞에 이른 비서는 안해에게 고개를 돌리더니 조용한 어조로

《이 동무들에게 량강도 특산물들을 꼭 구경시켜서 돌려보내오. 가만... 거 부비서동무들은 송편을 좋아하고 지배인동무는 팔밥과 모두부를 좋아하지. 그리고 강태호동무는 거 세사발들이 남비에 만두국을...허허...》 하고 당부했다.

《알았어요!》

안해는 이미 알고있다는듯 웃으며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트렁크를 승용차 뒤자리에 들여놓았다.

그것을 본 최용국은 재빨리 다가가 트렁크를 앞자리에다 옮겨놓고 비서의 안해를 차에다 밀어태웠다. 그리고 운전사에게 단단히 당부했다.

《비서동무는 절대 앞에다 앉히지 마오. 알겠소?》

한영인비서가 뜨겁게 악수를 하고 차에 올랐다. 그는 앞자리에 트렁크가 있는걸 보고 마지못한듯 뒤자리에 올랐다.

《잘들 있으시오. 노여운 일들두 많겠는데 리해들 하시오. 그리구 기사장동무는 오늘밤에 저 미순동무하구 거리를 좀 걸소.》

그는 이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차가 움직이자 모두는 그 어떤 거대한 힘에 이끌리듯 옥하니 따라나갔다.

몇발자국씩 뛰여가다가 저마끔 굳어진듯 서버렸다. 그리고 승용차가 거리의 눈보라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오래동안 움직일줄 몰랐다. 눈가루가 신발을 물어버리도록 그쪽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 하늘과 들이 따라외우고 외 1편

한원희

목메이는 낯알향기  
산과 들에 넘치고  
기쁨을 속삭이며  
금나락 밀려오는 논머리에 서시여  
어버이수령님  
소중히 벼알을 세여보시네

한알 또 한알  
열알을 세시고  
스무알을 세시고  
백알도 넘어되는 벼알을  
조용히 소리내여 세시며  
환히 웃으시니

들이 따라 외우고  
하늘이 받아 외우는듯  
이 땅 이 하늘사이에  
한없는 숭엄함이 어리건만  
나는 따라세지 못하네  
눈물이 앞을 가려  
벼이삭이 보이지 않아

왜 미처 몰랐던가  
이른봄날  
평당 포기수도 정해주시고  
한포기는 몇대나 아지쳐  
몇이삭이 달리겠는가  
몸소 알아보아주시던  
수령님의 그 뜻

왜 미처 몰랐던가  
해마다 쌓아올렸던  
분배장의 로적가리  
벼 한알  
벼 두알  
수령님 정성들여 세시여  
내 집 내 쌀독마다 채워주신줄!

아, 한생이 끝날 때까지도  
수령님 주시는 그 사랑  
헤아릴수 없는것이  
나였던가  
우리모두였던가

뜨거움이 젖어드는 눈을 들어  
들을 바라보니  
들도 내 마음인듯  
끝없이 속삭이며 달려오네

백알  
백한알...  
수령님 세여가시는  
그 한알한알이  
이 가슴엔 천근인듯 만근인듯  
이 땅우에도 천만근인듯  
세일수 없이 쌓여지네  
높아만지네!

## 굴착선이 떠난다

배가 떠난다  
배가 떠난다  
우리의 기쁨에 받들려  
산악같은 굴착선이 떠난다

날리는 꽃보라  
터져오르는 환호성  
가슴에 바다에  
기쁨의 파도가 설레인다.

아, 배고동소리 배고동소리  
정다운 노래처럼 들으며  
너를 간석지로 떠나보내는 이 마음  
왜 이리도 설레는것이나

낮에 밤에  
용접의 불보라로 철관을 이어갈 때  
갑판에 흘린 후더운 땀방울...  
후련히 동트는 새벽을  
선체우에서 맞은 날은 그 얼마이던가

한낮에도 끼르륵-  
배무이장에 갈매기 날아와  
우리의 일손에 힘을 주었고  
저녁이면 파도도 처절씩  
개간지의 당부를 전해오지 않았던가  
굴착선을 기다린다고-

그때문에 이어가는 철관과 철관에  
충성을 고이고 지혜를 합치며  
우리는 무엇더라  
바다의 정복자

네가 안아올 새땅을 그려보며...

잘 가거라, 사랑하는 굴착선아  
우리 기쁨 우리 자랑을 안고  
풍랑을 헤가르며  
배고동소리 높이 울리며-  
  
사나운 파도를 타고왔아  
억센 무쇠팔뚝을 휘두르는  
너의 뒤로 백리제방이 일어서고  
황금나락 설레일 새땅이 펼쳐지리라

축복하노라  
네 가는 앞길을  
바다를 막아 조국땅을 넓혀가는  
30만정보의 새 기슭에서  
너는 닷을 내리려니

아, 그날의 기쁨을  
오늘에 안고  
배가 떠난다  
또하나 굴착선이 떠나간다!

## 가사

# 빛나라 주체의 태양

백수길

세기의 암흑을 불태우며  
백두에 솟은 위대한 태양  
그 빛발 압제의 죄사슬 끊고  
자주의 영원한 새봄을 주네  
짓밟힌 인민을 주인으로 키워주신  
그이는 위대한 **김일성** 원수  
온 세상이 우러러바드는  
찬란한 주체의 태양

인민이 바라던 락원 세위  
조선을 빛낸 위대한 태양  
은혜론 그 빛발 새 희망 주고  
창조와 건설의 노래를 주네  
보람찬 새삶을 안기여주시는  
그이는 위대한 **김일성** 원수

온 세상이 우러러바드는  
찬란한 주체의 태양

인류의 력사에 높이 솟아  
누리를 밟힌 위대한 태양  
그 빛발 투쟁의 신념을 주고  
승리와 영광을 안기여주네  
자주의 한길을 휘황히 밝히여주는  
그이는 위대한 **김일성** 원수  
온 세상이 우러러바드는  
찬란한 주체의 태양

영광 빛나라 주체의 태양  
영광 영광 빛나라

# 그대는 혁명전위

조빈

함께 있을 때면  
그대를 따르고  
결에 없을 때면  
그대 생각이 떠올라라  
3대혁명소조원-

우리와 다름없이  
들바람에 탄 검실한 얼굴에  
기대를 다루던 성미대로  
열정에 넘치는 그 목소리  
가슴속 비긴듯 시원한 그 눈길

모를 내도 김을 매도  
그대와 함께 일할 때면-  
주체농법이 새라새로이 새겨져  
들끝에 해지는줄 모르고,

재너머 판 분조로 가면  
그대 기다려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긴긴 메아리처럼  
이대도록 남아있는 그대의 목소리  
계절 따라 할일을 깨우쳐주거니

그대 소낙비에 젖다가도  
꽤약별에 타며  
로동계급의 담찬 기백으로 낱알을 가꾸며  
당의 뜻으로 앞서가는 걸음  
그 날과 날이 보람도 커서  
언제나 들에 사는 사람

별들도 조으는 깊은 밤이면  
당을 받들어 다함없는 생각에  
때로는  
우리가 미처 김을 잡지 못한 이랑우에서  
포기마다 폭폭 복을 돌구어주며  
잠못들고 새벽을 맞은 사람

그대의 웅심깊은 생각과  
진정이 넘치는 말은

쌀은 곧 공산주의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  
이 땅 이 벌에 풍요한 가을을 불러  
기쁨을 드리자는 그 한마음  
우리의 가슴에도 뜨겁게 울려와-

소조원이여  
그대 이끌었더냐, 우리가 따랐더냐  
늘 함께 있다고  
우리 생각하는 나날에  
봄은 가고 여름이 짙었구나  
들이 온통 검푸른 벼의 물결  
이삭패며 훑날리는 벼꽃가루

만풍의 가을을 안고사는  
그대결에  
우리모두 따라서고  
천만이삭 설레이며 파도쳐오는가  
계절조차 반겨 때맞춤 오는듯싶구나

아, 이 땅 이 하늘  
우리의 머리위에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아침노을을  
세폭의 붉은 기폭으로 펼쳐가는  
그대 소조원이여

언제나 자신을 생각한적 없이  
우리라는 말로  
그대 부르며 함께 가며  
당의 뜻을 받드는 소조원의 마음  
우리의 가슴에 거울이 되어 비껴있기에-

우리가 따랐더냐, 그대 이끌었더냐  
정녕 그대 앞서간다고  
가슴 뜨거이 생각하는 나날에  
3대혁명의 밝은 길로 농장원들을 따라세우며  
그대는 늘 우리와 함께 있구나  
그리도 가까이-  
언제나 마음속에-

# 우리는 불을 단다

권강일

한점 불꽃이면 불이고도 남으련만  
손에손은 온통 불뭉치  
우리는 불을 단다  
용광로에 불을 단다

겹겹이 둘러선 사람들  
기발을 펼쳐든 돌격대원들  
얼굴마다 불빛은 어리고  
걱정의 파도는 불결쳐라  
우리는 불을 단다  
용광로에 불을 단다

새로 일떠서는 로를 안고  
구내에  
철의 도시에  
낮 이어 밤 없이 타오르고 타오르던

이 화불이다 불길이다  
아이들이 달려와 벽돌을 깔고  
녀인들이 웃으며 섬겨줄 때  
축로공의 심장에 불던 그 불

생각하면 환희로 들끓던 건국의 나날  
철끝을 까내던 복구의 나날  
이렇게 불을 단 일 그 얼마랴만  
수령님과 당을 받드는 마음  
쇠물과 함께 끓어야 함을  
갈수록 뜨겁게 느껴안았기에  
흘러가는 나날을 줄이며 달려왔나니  
  
한생을 로앞에 산 로당원들

오늘만은 앞장서야 한다고  
끝내 건설장에 달려오던 밤  
지새도록 하늘가에 날리던것은  
다만 용접의 불꽃이었던가

젊은 저 용해공도  
로문으로 다가서누나  
손에 든 화불은  
화선입당의 날에 추켜들었던  
그 불뭉치는 아니라

아, 화입의 불꽃바다여  
더 높이 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준  
수령님과 당의 그 의지를 안고  
태어나는 또 하나의 새 로와 함께  
온 철의 도시가 화입하는  
이 감격, 이 보람이여

한점 불꽃으로는 다 불일 길 없는  
마음속 이 불길  
아버이수령님과 당중앙에  
쇠물보고를 드릴 일념은 불타  
누구나의 가슴에 안고 온 이 화불

불을 단다  
온 도시가 불을 단다  
달려온 나날 그리고 또 앞날  
수령님과 당이 이끄는 주체위업을  
강철로 받들어 힘차게 타오를 불길  
가슴을 헤쳐 우리는  
용광로에 이어놓는다

## 뭇벌들

김명익

시송배전소라면 시내주민들치고 모르는 사람이 별반 없었다. 그만큼 전기는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어있었다. 서일만이 전공으로 일하고 있는 송배전소는 라평강기슭에 자리잡고있었다. 아동공원이 끝나는 숲변두리에 연회색 인조 석미장을 한 2층건물은 어디서나 쉽게 눈에 띄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구태여 이 집을 기억해두지 않아도 좋았다. 만일 전기와 관련한 일이라면 임의의 시각일지라도 송배전소에 전화를 걸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때 어떤 날씨나를 막론하고 전공들이 지체없이 달려와 고장난 전기를 제때에 수리해주고 돌아가는것이다.

그런 때면 마치 그들은 병원의 구급과의사들과도 흡사했다. 다르다면 이마우에 붉은 신호등을 번쩍거리며 질주하는 하얀 구급차가 아니라 손수 번개 표식을 그려붙인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것이며 구급위생가방대신에 뼀찌와 나사틀개와 손칼등속이 나란히 꽂혀있는 전공혁띠를 허리에 띠고가는것이다.

비바람 치고 눈보라 사나운 곳은 날씨에도 그들의 일은 다름바 없었다. 그런 날에는 자전거는 커녕 걸음조차 옮기기 어렵다. 한치앞도 가려낼 수 없는 적막속, 그래도 그들은 가야만 했다.

시송배전소에는 병원의 구급과와 같이 돌발적인 전기사고를 전문 맡아서 수리해주는 전공이 따로 있었다. 그를 고장대기반이라고 불렀다. 고장대기반에는 두명의 전공이 배속되어 일하고있었다.

서일만은 정전직후부터 이 일을 맡아 해오고있었다.

파괴된 제철소를 일떠세우고 새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벽찬 건설장들은 젊은 제대병사 서일만을 끝없는 위훈으로 열망시켰다. 그러나 그가 받아 전 배치장은 전공이었다... 전주를 세우고 전기줄을 늘이고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이런 일에서 그 무슨 요란한 위훈을 바랄수 있었으랴. 하지만 그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전쟁의 포화속에서 명령에 복종하는데 더 많이 익숙되어온 서일만이었던것이다.

그때로부터 벌써 스물다섯해도 나마 흘렀다. 시내의 거리와 마을과 주택지구들마다에 세워진 수백의 전주들과 거미줄마냥 늘어진 전선들과 더불어 그의 한생도 흘러왔다. 헤아릴수 없이 많고

긴 전주들과 전선줄들에는 그의 성실한 로력과 땀과 손때가 묻어있었으며 청춘도 꿈도 함께 있었다. 이제는 머지 않아 유정한 이 모든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작별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니 어쩐지 마음이 허전했다. 아, 무엇인가 좀 더 크고 보람찬 일을 해놓았을수도 있었으련만... 흔히 나이 든 사람들이 덧없이 흘러간 자신의 생애를 아쉽게 돌이켜보듯 서일만도 가끔 이런 생각에 잠기는 때가 없지 않았다. 그러느라하면 황혼이 짙어가는 이름없는 불길우에 우뚝우뚝이 서있는 전주들의 어렴풋한 행렬들이 자기가 살아온 생애의 표적인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렇다 하여 그는 자기의 직업과 일터를 두고 하찮게 생각한적은 한번도 없었으며 남모르는 금지감으로 하여 오히려 버젓한 심정이기도 하였다.

그와 손잡고 함께 일하자고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중에는 얼마를 있지 못하고 제절로 떠나가 버린 이들도 적지 않았다. 공적도 세우고 이름도 떨치는것이 어찌 생애에서 즐겁지 않은 일일수 있겠는가. 비오는 밤이건 눈보라 치는 새벽이건 혹은 꽃물결 흐르는 명절날이건 기름 묻은 전선 통구리를 어깨에 걸치고 거리와 골목길을 누벼야 하는 이런 일만이 꼭 청춘시절에 알맞는 직업이라고 단정할수 없지 않은가고 떠나가며 그들은 말했다.

그들모두를 보내며 서일만은 결코 호젓한 심경에만 잠겨있지 않았다. 보다 책임적이고 보람있는 새 일터에서 그들의 일이 잘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이 더 컸었다.

그러나 그도 예순고개를 눈앞에 바라보면서부터는 왜 그런지 마음여 이상해졌다. 모두들 이렇게 떠나가버리고 자신마저 자리에서 물러나있게 될때 여기 고장대기반에는 누가 남아있게 될가... 아닌밤중에 급히 걸어오는 전화를 받고 집집마다를 찾아다니며 고장난 전기를 고쳐 불을 넣어주고 또 어디론가로 찾아떠나야 하는 구점스러운 이 일을 그 누가 혼연히 맡아해줄텐가. 청춘도 꿈도 여기에 고스란히 바쳐가며 일할 사람도 대체 있거나 할것인지...

일만은 이것이 로파심인줄 알면서도 나날이 짙어가는 이런 상념에서 좀처럼 벗어날수 없었다. 이제라도 한녀석을 꼭 붙잡아두리라. 버둥질을 쳐도 놓아주지 말아야지... 그는 배치장을 들고



송배전소에 찾아오는 청년들을 눈독을 들이고 살피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고장대기반에 한 청년이 문득 나타났다. 가름한 얼굴, 영민해보이는 눈동자...

(강무영이라...)

일만은 전기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 배치되어온 자기네 새 동반자의 이름을 익혀보려는듯 입속으로 뇌이였다.

청년은 말수가 적고 일을 배우려고 애를 썼다.

(음, 때바로 만났거던...)

일만은 마음이 흐뭇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때이른 만족이었으랴. 일만은 날이 갈수록 자기가 사람을 잘못 골라잡았다는것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통좁은 데트론바지에 단추 대신에 차크를 덴 잠바식작업복에는 언제나 칼날같은 주름발이 서있었으며 장갑은 매일아침 낀채 그대로였다. 일만은 단정한것을 좋아했으나 지나친 사치는 경계했다. 전공은 순찰원이 아니였다. 때없이 전주에 게바라 올라 기름문은 완목을 타고앉아 일을 해야 하며 수많은 부속을 드다루어야 한다. 일만은 그가 일을 할 때면 주름잡힌 바지에 대하여 신경을 쓰는것처럼 보이였다.

무영이가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이 있었으니 일터로 오고갈 때 머리를 짓속이고 다니는 그것이었다. 전공들의 일감은 언제나 머리우에 있었다. 전주와 애자와 전선을 눈여겨 살피며 다니는것은 전공의 의무이기도 했다.

일만은 이 말을 한두번만 일러오지 않았다. 그러나 무영은 고개를 짓속이고 땅바닥을 보며 걷는 자기의 버릇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문에 삶은 소린들 좀 했겠는가.

이날도 그들은 시중심선로를 따라 일터로 가고 있었다.

《무영이, 우리는 학자가 아니라 전공이라는걸 잊지 말아야 해.》

일만의 어조는 매우 엄정하였다.

그 말에 무영은 숙였던 머리를 번쩍 들었다. 그러나 눈길은 전주가 아니라 일만이의 얼굴쪽을 스쳐 판곳을 보고있었다. 그는 투덜거렸다.

《우리 전공들도 학자들처럼 머리를 숙이고 다니는 때가 돌아와야 해요.》

일만은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어떤 때라구?!》

일만은 욕이 나가는것을 참느라고 눈썹이 이그려졌다.

무영은 무겁게 눈길을 떨구며 침울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전기줄들이 모두 팽속으로 늘어지게 된다면

도시미화에도 꼭 유익할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바이...》

무영은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대로 되어있지 않고있는 전기설비상태와 운영에 대하여 입을 삐죽거리며 엮어내렸다.

일만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도시미화란말이지. 기름문은 전선통구리를 메고다니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것이겠지. 저쯤 되면 발을 붙이고 일하기가 어려울거야. 이너석을 내가 꽤 감당해낼가...) 그는 믿음이 허물어지며 마음이 좋지 않았다.

입이 쓰거워난 일만이 말없이 얼마간 걷고있는데 마주달려오던 승용차 한대가 그들의 앞에서 멎었다. 《백두산》호였다. 키가 후리후리한 사람이 내렸다. 시민들의 생활을 말아보는 인민위원장이였다.

《수고합니다. 아바이!》

키가 큰 그는 모자채양을 약간 들어올리며 인사를 했다. 그들은 구면처럼 악수를 하였으며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영은 궁금한듯 저만치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승용차는 떠나가고 그들은 다시 걸었다. 몇걸음 못가서 몸이 보기 좋게 나고 점잖게 생긴 중년 부인이 다소곳이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했다. 일만은 조금 쳐들린 턱을 약간 끄덕여보이고는 스틱스적 걸었다. 인사를 보내는 사람들은 길 맞은편에서도 있었다.

《아바이는 아내는들이 꽤 많기도 하군요.》

작업장에 다달으자 무영이가 말했다.

《...그 간부동지는 전우인가요?》

일만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으며 꼼꼼히 생각하는것이였다. 거리를 오며가며 인사를 건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할 때 어찌 그가 한생을 바쳐 일하여온 직업과 성실한 로력을 때여놓고 말할수가 있겠는가. 시안의 어느 기관과 아파트와 단층마을 골목집에도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곳이란 없었다.

《성실한 전공이라면 시안의 어떤 분들과도 벗으로 사귀며 살아갈수 있다네...》

하고싶은 말이 하많은 일만이었으나 생활과 체험을 통하여 무영이가 더 많이 느껴주기를 바라며 그는 긴 말을 삼가하였다.

그런데 무영은 무엇때문인지 머리를 한번 기우뚱 했을뿐이었다. 그리고 작업을 시작하자는 독촉의 말이 있을 때까지 무영은 무슨 책임가에 정신이 팔려있는것이였다.

눈이 내렸다. 련사흘을 줄곧 내리고있었다. 새벽에는 또 눈보라가 일었다.

그들은 고장난 전기때문에 눈보라치는 어둠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춥고 피곤하였으며 속이 출

출 하였다. 그런데 일만은 집으로 들어갈념을 않고 솜옷을 던져입으며 먼길 떠날 차비를 하는 것이었다.

《어디에 또 갈곳이 있어요?》

공구를 거두고 손을 씻던 무영이가 의아한 눈길로 물었다.

《설류봉에.》

《설류봉엔 무슨 일로 또 가요?》

무영이 시뭇이 묻기는 하였으나 그 자신이 몰라서 묻은것은 아니었다. 설류봉에는 텔레비존중계소로 보내는 39호전주가 있었다. 장마나 눈사태가 지면 이 전주는 늘 위협을 당하고있었다. 겨울에는 눈이, 여름에는 산골 거품물이 눈사태처럼 쏟아내린다 하여 설류천이라고 부르는 개울이 있었다. 39호전주는 처음에는 산기슭에 세운것인데 개울이 그리로 다가들었다.

《거기엔 담당보선공이 있지 않아요.》

무영은 눈이 실췌었다.

《그래도 가 봐야 해. 다른 선로들을 돌아보며 오느라면 혹시 늦어질수도 있거든.》

일만은 털모자를 눌러쓰고 신 끈을 죄었다. 무영이는 망설이는듯 머뭇거리다가 따라나섰다. 일만은 추위를 생각하며 그를 만류하려다가 그냥 함께 떠났다.

두사람은 시내를 가로질러 산들이 첩첩히 들어앉은 오솔길로 잡아들었다. 그들은 삽시에 눈사람으로 되어버렸다. 바람은 사정없이 그들을 깊은 눈구덩이에 쓸어넣히곤하였다. 그래도 쉬임없이 갔다. 설류봉의 눈사태보다 39호전주에 먼저 다달아 선손을 세야 하는것이다. 그리하여 마음이 조금해났으며 반달음쳤다. 다행히도 39호전주는 그때까지 무사했다. 그들은 전주 주변의 눈무지를 쳐내고 통나무바자를 높이 둘러쳤다. 그리고 일을 끝내자 곧 설류봉을 떠나왔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힘겨웠다. 얼고 지쳐버린 무영은 자주 눈속에서 허둥거렸다.

《아바이, 우리가 이렇게 눈속에서 고생하는줄 누가 알기나 할까요?》

얼굴에 묻은 눈가루를 문질러대며 무영이가 웅얼거렸다.

《뭘 말인가?!》

일만은 정말 말귀를 못알아들었는지 아니면 그에게 서운한 대답을 하기가 주저되었던지 이렇게 되물었다.

무영은 눈가루가 목덜미안으로 새여든 모양인지 갑자기 몸서리를 치고나서 다시 물었다.

《아바이는 예서 인생을 바쳐가며 일해오고있지요...》

일만은 또 대답하지 않았다. 그대신 무영이의 옷자락에 묻은 눈더뭉이를 활활 털어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작로길에 나섰다. 여기서부터는 걷기가 한결 수월하였다. 눈보라도 잠잠해지고 햇빛도 눈부시게 빛나고있었다. 가로수의 잔가지들은 갓 내린 눈속에 소복이 쌓여 고요히 잠들고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얼음보송이로 만든 조각처럼 조금만 건드려도 일시에 부서져버릴 듯싶었다.

묵묵히 걸어가던 무영이는 심심한듯 다가가 얼음보송이가지들을 건드리려는것처럼 하였으나 신비스럽게 바라보았을뿐 그저 지나쳐버리곤하였다.

《아바이, 하나 물어도 좋아요?》

무영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얼굴을 돌렸다. 때마침 담배를 붙여물던 일만은 결눈으로 그를 힐끔 바라보았다.

《저... 아바이는 혼장이 몇개나 돼요?》

《.....》

한순간 일만의 눈길은 한곳에 정지되어있었다. 그리고 담배를 힘있게 빨았다. 진한 연기가 그의 입과 코를 메우며 연거퍼 새어나왔다. 무영은 군침을 삼키며 그를 주시하였다.

《...공로메달이 있지. 전력전에 받은거라네...》

그는 전쟁시기에 받은 훈장들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았다.

가늘게 찌프러들었던 무영의 눈은 불시에 등실해졌다.

일만은 담배맛에 여념이 없는듯 진한 연기를 줄곧 들여마셨다.

《아, 참. 아바이는 장하군요... 어쨌든 그렇게 말할수 있어요...》

불쑥 한마디 던진 그는 가슴이 벅차오르는듯 차고 시원한 공기를 한껏 들여마시고는 다져진 눈길로 달음박질쳤다. 그리고 철모르는 애들처럼 다져진 눈길우를 지치기도 하였다. 그러던 그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피복 돌파서서 팔을 휘저으며 웨치듯 말하는것이였다.

《...그렇지만 더 큰 공로를 세웠더라면 더욱 좋았을거예요... 이대로는 너무 고요해요. 위훈도 공훈도 없이 아마 저같은데 살 재미가 없었을거예요.》

그리고 무영은 허리를 굽혀 눈덩이를 한웅큼 쥐여들고서는 그 눈덩이로 얼음보송이나무가지들 향하여 힘껏 던졌다. 햇숨같은 눈속에 포근히 묻히여 고요히 잠들었던 잔가지들이 별안간 놀라며 몸을 떨었다. 그러자 눈꽃들은 어디론가로 날아가버렸다. 눈덩이는 다른 가지에도 련이어 날아들었다.

일만은 눈가루가 날리는 바람결때문인지 가슴이 딱 맞질리운듯했다. 그러거나말거나 무영은 더 멀리로 미끄러져 달아나며 눈덩이 던지는 장

난질을 멈추지 않았다. …원 너석이라구. 웅큼하거던… 어린애야, 이를 어찌면 좋은가?…

겨울이 풀러가고 새봄이 왔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아침저녁으로 불어왔다. 오래지 않아 봄장마가 들 계절이었다. 고장대기반에 년중 일거리가 제일 많은 때이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번개질이 시작되면 건강치 못한 사람에게 악성감도가 달려들듯 불비한 전기설비들에 돌발적인 고장이 생기는것이다. 고장대기반의 전화종은 무시로 따르릉거리고 일만이네들은 눈코 뜰새가 없을것이었다.

장마전에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해놓아야 했다.

바로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구름 한점 없는 밤하늘, 별무리 총총한 밤이었다. 이 밤 그들은 산록주택지구인 옥계동에 나가 고장난 전기를 고쳐주고 돌아오고있었다. 서일만이 습관처럼 턱을 조금 쳐들고 뒤에 섰고 무영이 그보다 한두걸음 앞에서 걸었다. 고개를 땀군

무영이의 어깨에서는 전선통구리가 간단없이 건들거렸다. 무엇이 그리도 심사가 뒤틀렸는지 가끔 땅에다 대고 툭툭 발길질이었다.

방금전까지도 까막눈천지였던 주택지구의 창문들에는 불꽃이 피어났다. 파르스름한 텔레비존불빛이 창가마다 어려여있는 이런 거리를 걸어가기란 참으로 유쾌하고 희열에 넘치는것이었다. 전공들이 아니고서는 느낄수 없는 기쁨이며 보람인것이다. 그래서 암흑을 밝히며 흘러나오는 저 불빛들이 너울너울 춤추며 마주오는듯싶기도 하고 낮추 내려앉은 못별들과 정다웁게 속살거리는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때문에 전공들은 온밤을 헤매이며 전주를 오르내리고 때로는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고비들을 웃으며 넘기는것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런 밤이면 무영이조차도 곧잘 명상에 잠기곤했었다.

《아바이 얼마나 좋아요!》

《뭐가 말인가.》

이렇게 되묻는 그의 마음도 나쁘지 않았다.

《저기요. 저 별들!》

무영이 손짓을 하는 검푸른 하늘에는 자잘한 금모래인양 못별들이 가득히 떠있었다.

《저 못별들을 보느라니 한가지 생각이 나요.》

무영은 깊은 생각에 잠기여 밤하늘만을 바라보며 걸느라고 이따금씩 일만의 어깨를 몸으로 슬치곤하였다.

《…아바이, 우리는 학교시절에 종종 별들을 두고 밤새는줄 모르고 이야기했답니다…》

추억을 더듬는 무영이의 음성은 부드럽고 감상적이었다…

졸업을 앞둔 그들은 자주 라평강동쪽에 나와 청춘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꿈을 꾸었다.

《…나는 언제나 저 별들이 좋아… 어디로 가든 저렇게 빛을 뿌리며 살고싶어!》

무영이가 말하면 동무들은 다같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쳐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하였다. 그런중에 누구인가 조용히 즉흥시 한구절을 읊기도 했다.

오, 별 빛나는 별이여!

밤하늘의 저 별처럼

우리모두 한생을 값있게 살리

조국땅우에 빛나는 못별이 되리…

그러면 그들은 더욱더 말이 적어졌다. 그리고 자기와 미래를 두고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것이였다…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한다 해도 저 별처럼… 빛나게 보람있게… 그들의 생각은 끝이 없었다.

무영이는 그때를 생각하며 아바이와 함께 걷는것이 더없이 즐거웠듯 비칠거리기까지 하며 더 자주 그의 어깨를 슬치곤했었다.

그러다가도 어두운 창공에 불금을 그으며 별이 장가를 갈라치면

《아, 저 별이 어디로 사라져버려요!…》

하고 애석하게 부르짖으며 몇걸음 따라가기까지 한다.

그때마다 저러다가 영 저 살벌처럼 마음이 봉 떠버리지나 않을가. 전공의 마음이야 하늘이 아니라 전주에 앉아야 실속이 있는건데… 하고 일만은 저혼자 한숨을 쉬며 가슴아프게 생각하는것이였다.

그랬던 무영인데 웬 영문인지 이 밤에는 통 말조차 하지 않는다. 구름도 없고 별들도 그 밤처럼 많건만 숙여진 머리는 들릴줄 모르고 무겁지도 않은 전선통구리는 실새없이 이쪽 어깨에서 저쪽 어깨로 옮겨지는것이였다. 일이 고달픈탓일가. 하긴 그럴만한 사연도 없는것은 아니였었다. 오늘 나갔던 옥계동지구에서 그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을 끌며 고장난곳을 찾았던것이다. 새로 나온 텔레비존영화상영시간이 늦어진다고 궁둥이에 붙어 다니며 졸라대던 조무래기들도, 어두운데 고생이라고 사다리까지 가져다주던 마음 무뎠던 동네 아낙네들도 끝내 기다려내지 못하고 허를 차며 가버렸다.

《야, 정말이지 이런 일은 못해먹을 노릇이구나.》

무영이도 종시 투덜대기 시작했었다.

전기고장이란 의사가 청진기나 맥을 짚어보고 환자의 병을 알아내듯 하지를 못한다. 경험과 익숙된 눈으로 살펴보고 알아내야 하는것이다. 하

물며 어둠속에서이라. 그때문에 전공의 수고가 남다르다는것이며 숨은 보람이 있다는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무영은 이날까지 말끝마다 타발인 것이었다.

종시 말이 없는 사이 두사람은 송배전소가 자리잡고있는 라평강기슭에 이르렀다. 넓지 않은 강물이 어둠속에서 걸죽한 타르처럼 소리없이 흐르고 있었다. 유보도를 따라 화강석돌의자들이 놓여있고 우유빛 공원등불이 어둠에 둘러싸여있었다. 하루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그들은 자주 이 돌의자에 앉아 잠시 다리쉬를 하곤했었다.

앞서걸던 무영이가 먼저 전선통구리를 철썩 내려놓으며 벗어섰다. 서로 부딪친 전선들이 발밑에서 가냘프게 울었다. 일만은 그 소리가 류달리 가슴에 여리게 마쳐와 돌의자에 앉으려다 말고 우두커니 선 무영을 저르기 지켜보았다.

《아바이, 이야기를 좀 해줘요. 글썽 우리 일이 달리는 뿔수가 없을가요. 언제까지나 주먹치기 방법으로 전기고장을 알아내겠냐요. 여기에 무슨 보람같은것이 있어요…》

마침내 입이 열린 무영이의 불만은 끝이 없을 상 싶고 일만은 참을수 없는 모멸감에 낮이 뜨거워났다. 담배를 붙여무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도대체 우리 일이 어쩔다는거냐… 일이 고달프다고 아무렇게나 말하는게 아니야.》

홍분으로 하여 그의 음성은 가끔 동강이 났다.

무영은 즈름해졌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었다.

《방도를 찾아보자는거지요. 이대로 그냥 일하는 피로와요. 참을수가 없어요…》

순간 일만의 가슴은 철렁! 하고 내려앉았다. 그렇게 되고마는구나. 피로울테지. 별처럼 빛이 없는 이 일이 더는 재미가 없을테지. 떠나가버리라지. 그렇다한들 붙잡지는 않을테니. 고장대기반이 빈집으로 남아있더라도 그래야 해. 군말없이 수격수격 일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애당초 소용이 없어… 아, 하다면 이 일을 묵묵히 맡아해줄 청년이 그리도 없을가. 공원등의 불빛은 질어가는 어둠에 물리어 답답하게 고즈넉이 비치고 그의 가슴은 미여지듯 쓰러왔다.

그런데 무영은 그의 손을 덥석 그러쥐며 열띤 음성으로 말하는것이였다.

《아바이, 달리 쉽게 일할 방도를 찾아보자요. 고장난곳을 탐지해내는 기구같은것을 만들수 있지 않아요…》

일만은 이미 그의 말을 귀동으로도 듣지 않으며 무영이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어떻게나 세계들어 잡은것인지 빼낼수가 없었다. 그런데 무영은 제절로 손을 거두더니 주머니에서 종이같은것을 벌걱거리며 꺼내놓았다.

《숨길게 없지요. 이제 와서… 어차피 저는 아바이의 도움을 받아야 할것이니까요. 글썽 이걸 좀 봐요. 원리는 명백하지요… 임의의 고장난 전기선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변전소에서는 이 선로에 일정한 전압의 고주파전류를 통과시킵니다. 만일 전선줄이 완전히 끊어진 고장이라면 그 지점에서 고주파전류는 더는 흐르지 않을 것이며 채 끊어지지 않는고 접촉이 불량하거나 접지가 생겼다면 그 지점에서 고주파전류는 극히 적게 흐를것입니다. 이때 우리 전공들은 반도체 전자기기로 만든 고주파탐지기를 가지고 고주파전류의 흐름소리를 수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정황에서나 고장난곳을 제때에 찾아낼것이 아닌가요… 여기 이 도면이 그거예요. 성낼건 없어요. 저는 제 힘으로 다 해놓고 아با이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했었지요…》

무영은 고개를 쳐들고 어린애처럼 주먹끝으로 코등을 쑥 문지르고나서 씩웃하고 웃었다.

일만은 또 한번 가슴이 철렁하였다.

무영이를 향해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그를 처음 맞던 때처럼 자기의 새로운 동반자의 이름을 입속으로 외워보았다.

(강무영이라…) 영민한 두눈, 가지런한 흰이… 갑자기 일만이의 눈길은 허공에서 허둥거렸다…

《무영이, 우리는 학자가 아니라 전공이라는걸 잊지 말아야 해.》

이제껏 무영이에게 강요해온 이 말을 그는 더는 되풀이할수 없음을 깨달았다.

《우리 전공들도 학자들처럼 머리를 숙이고 다니는 때가 돌아와야 해요.》

아, 무영이의 그 말이 정당할수도 있지 않은가… 무릎을 짚고 힘겹게 일어서는 일만은 가쁜듯 숨을 들이그었다. 강물은 지척에서 철썩거리고 일만은 그 물길을 따라 끝없이 걷고싶어졌다.

그리고 난생처음으로 전기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강물은 소리없이 흘러갔다.

간밤부터 비가 내렸다. 보기도문 무더기비였다. 불뿔모양의 번개가 무시로 날아내렸다. 멀리 가까이에서 파르릉거리며 우뢰가 울부짖었다. 조용하던 라평강이 굽이치며 흘러다.

고장대기반의 전화종이 다급히 울렸다. 주머니에서 젖은 담배를 꺼내어 말던 서일만은 불을 붙이려다 말고 수화기를 들었다.

출입문에 한발을 내어짚고 젖은 옷을 쥐여짜던 무영이가 그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들은 비바람에 넘어진 전주를 세우고 방금 들어서던 길이였다. 한시도 마음놓을수 없는 때이다. 온 기업소가 비웃을 걸치고나와 비상동원태세로 대기하고

있었다. 자연은 그 어떤 횡포한짓도 가리지 않고 전력공급을 중단할는지 짐작할수 없었다.

전화를 받던 일만이 담배를 그대로 재떨이에 비벼놓고 방수포비옷을 걸쳐입었다. 거기서는 아직도 물방울이 똑똑 들었다.

《어디인가요?》

쥐여짤 옷을 화락화락 털며 무영이가 물었다.

《4호급수장선로!》

대답은 짧았으나 긴장감이 느껴졌다. 도시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4호급수장은 시밖의 산턱에 있었다.

무슨 고장이겠는가? 그것은 알수 없다. 명백한 것은 순시도 지체 말고 전기를 살려내야 한다는 그것뿐이다. 문명한 도시에서 수도물공급의 중단이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그만큼 전공들의 책임감은 무거운것이다.

대기했던 자동차가 급히 발동을 걸었고 정문을 벗어나었다. 들리는것은 온통 비소리뿐이다. 자동차는 4호급수장부근에 와서 멎었다. 일만이가 먼저 내렸다. 삼이며 바줄이며 전기부속들이 부리워졌다. 그들은 무거운 공구들을 나누어지었다. 그리고 전주와 전선을 따라 한결음씩 더듬어나갔다. 변전소를 통하여 알려진 고장상태는 불완전접지였다. 전기줄이 끊어지거나 전주가 넘어지는 것과 같은 완전접지는 발견해내기가 수월하지만 불완전접지는 눈에 띄지 않는다. 대낮에도 힘들다. 지금은 밤이다. 비까지 억수로 퍼붓는다. 고장난 지점은 과연 어디일까?

비는 그하냥으로 내리고 번개는 이마우에서 짹 짹 뻗었다. 전주들이 야무지게 울부짖으며 몸부림쳤다. 전공들에게는 전주가 육체의 일부분처럼 느껴진다. 그리하여 지금 그 소리는 모질게 그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두사람은 같은 전주를 엿바꾸어 오르내리며 한구간 또 한구간씩 훑아나갔다. 시간은 덧없이 흐르고...

걸음을 옮겨가는 일만의 귀가에는 비바람소리가 아니라 전화종소리가 소란스레 따르릉거린다. 중단된 수도물때문에 곳곳에서 오고 또 부르는 전화종소리다... 정말 이런 때 고장지점을 제격 알아내는 탐지기같은것이 있기만 하다면... 일만은 부지중 떠오른 생각에 스스로 놀라버린다. 한생을 이런 일에 익숙되어온 자신이 아닌가. 나이탓일까. 아니, 그것은 아니였다. 라평강반의 별 많은 그 봄밤, 무영이에게서 고장지점탐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때부터였다. 무영은 그 후 야전전화기처럼 생긴 탐지기를 만들어가지고 왔었다. 안테나도 있었으며 레시바도 달려있었다.

거기서는 물매미울음소리처럼 삐-이, 하고 전류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물론 그것은 완전히 성공한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성공은 의심할바 없

었다. 일만은 누구 보다도 그것을 믿고있었다.

그는 이 모든것을 돌이켜 생각하기가 부끄러웠다. 자신은 한생을 바쳐 이 일을 성실히 해온다고 자부하면서도 그런 생각은 왜 못했을까. 엄두조차도 내지 않았지.

《...이대로는 너무 고요해요. 위훈도 공훈도 없이 아마 저같으면 살 재미가 없었을거예요.》

일만은 이제 와서야 무영이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자신을 보았으며 그것이 또한 피로왔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한생을 판에 박은듯한 공정을 되풀이하며 살아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생활방식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창조가 없고 혁신이 없는 생활은 굶이치는 강물이 아니였으며 갇혀있는 고요한 호수였다. 일만은 참다운 생의 보람에 대한 지극히도 당연한 진리를 생활의 첫걸음을 내어딛는 무영이에게서 깨닫게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었다. 생활은 결코 오래 살았다고 해서 다 현명한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나 그에게 이러한 뉘우침은 얼마나 때늦은 것이였으랴. 후회를 씻기에는 너무도 남은 여생이 아쉬웠던것이다.

《아바이!》

무영이 목소리가 비바람소리에 간신히 미쳐왔다. 앞선 전주꼭대기에서 연방 소리를 쳤다. 일만은 물창을 철버덩거리며 마구 달려갔다.

《여깁니다... 고장난곳이 여기...》

일만은 그 소리를 비물이 흘러내리는 매끄러운 전주를 타고오르며 들었다. 전주의 철완목에 의지한 무영이가 그의 팔을 부축해주었다. 그리고 줄이 달린 레시바를 채치있게 그의 귀전에 걸어주며 기쁨에 넘쳐 속삭였다.

《자, 들어봐요. 여기 애자에...》

탐지기가 사기애자까이 닿자 레시바에서 울려나던 물매미소리가 가뭇없이 사라졌다. 사기애자에 실금이 생겨 그리로 비물이 스며들어 접지가 일어난것이 틀림없었다. 퇴격에 의해 이런 사고가 가끔 생기는것이다. 그들은 서둘러 애자를 분리하고 새것으로 맞추었다.

전기는 다시 살아났다.

《정말 용하구만. 대단해...》

전주에서 먼저 내려선 일만은 탐지기를 메고 뒤따라내리는 무영이의 젖은 손을 꼭 잡아주었다.

《에 참, 전주에 올라가보지 않고도 몇십미터밖에 쳐척 알아맞춰야 하는건데...》

무영은 그의 칭찬하는 말을 못들었는지 입안으로 흘러드는 비물을 연신 훔쳐내며 속상한듯 두덜 거렸다.

그들은 4호급수장의 대형뿔프들이 용을 쓰며 돌아가는것을 보고서야 그곳을 떠났다. 비발은

조금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어느 한 갈림길에 이르자 무영이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전 다른곳엘 좀 틀러 갈데가 있어요.》

《다른데라니. 어델 말인가?...》

일만은 눈이 둥그래졌다.

《설류봉에요.》

《설류봉?!... 39호전주땀에?!...》

《그래요... 담당보선공이 좀 늦어질수도 있지 않아요. 비가 심상치 않아요.》

무영은 리해시키려는듯 설명했다.

일만은 그 어떤 고마움으로 하여 가슴이 뭉클하였다. 얼마나 많고 긴 나날을 거쳐 이러한 밤길을 걸어온 자신이었단가. 그때마다 이 무거운 전기줄을 흔연히 받아메고 그의 발자국을 따라 끝없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그런 인간이 없을까 봐 근심과 걱정으로 가슴설레였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젊은 새세대, 그들은 성장하고있다.

나자신이 손잡아 이끌어주던 그 길, 아니 난 아직 걸어도 못본 그 길도 그들은 앞장서 달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이다. 일만은 이렇듯 미더운 청년들을 키워주고 거창한 《80년대속도》창조의 돌격선에 내세워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뜨거운 손길을 몸가까이 느끼며 눈곱이 젖어 들었다. 일만은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무영이를 따라 갈림길에 들어섰다.

그때는 눈에 묻히었던 크고작은 개울들이 지금은 온통 흙탕물로 목이 메었다. 그들은 허둥거렸으며 흙사태에 떠밀려 쓰러지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부둥켜안아 일으켜주고 이끌어주었다. 일만은 힘겨운줄도 고달픈줄도 몰랐다. 그저 뜨거운 것이 가슴에 자꾸만 피어올랐다.

새날이 밝아올무렵이었으나 사위는 비구름때문에 어둠의 장막속에 짙 잠겨있었다. 설류천의 물소리가 깊은 골안에 가득 찼다. 산골물이 사뭇치며 흐르는양은 눈사태를 방불케 했다. 지심을 울리는 폭발음이 광광 터지기도 했다. 39호전주는 그 기슭에 서있었다.

그러나 설류천은 아직 전주까지는 접근하지 못하였으며 뽕얀 비말을 확확 들쭉쭉뿜이였다. 게다가 누구인가 벌써 이곳을 다녀간 흔적도 있었다. 말쑥들을 새로 박고 큰돌을 채워넣었다. 담당보선공일수도 있었으며 또 다른 그 누구일수도 있었다. 39호전주는 어떠한 위험도 받지 않고 텔레비존중계소에 전력을 보내주고있었다. 그들의 사업에 뜨거운 지원의 손길을 돌린 아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의 정이 온 가슴에 벅차올랐다.

그들은 안도의 숨을 몰아쉬고서 시내를 향하여 발길을 돌렸다. 광란하며 흐르는 설류천을 태연히 굽어보며 점잖게 웅웅거리는 39호전주가 그들을 배웅하였다. 하늘은 제멋에 지쳐버린듯 안개비를 실실 날렸다. 두사람은 고개를 넘고 골안을 지났다.

시내로 통하는 큰길이 나졌다. 새벽을 맞는 도시는 불빛으로 환했다. 일만은 부지중 그 무슨 간절한 생각을 품으며 느닷없이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아, 그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다. 검은 구름이 두렵게 드리웠던 하늘 한가운데가 번듯이 열리었으며 거기서는 샘물에 씻은듯한 금빛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있었다.

《참 좋구만!》

일만은 혼자소리로 부르짖었다.

《뭇가 말인가요.》

무영은 빛나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모든것이 다 말이지... 저 별들이, 아니 우리들이 자네와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이 밤이 말일세...》

일만은 무영이 손을 술그니 더듬어쥐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밤하늘에 무수히 떠서 빛나고있는 저 못별들에 대하여 무엇인가 자꾸만 이야기하고싶었다. 그러나 그는 입밖에 내지 않고 혼자서만 생각하였다. 그럴수록 생각은 하염없이 깊어지기만 하였다.

무영은 아무 말이 없었다. 조금 있더니 그는 나직이 노래를 불렀다. 아늑한 보금자리도, 화려한 꽃다발도 바라지 않는다는 영화주제가였다.

일만은 자기의 동반자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그러자 미덥고 부러운 생각이 온몸에 그득히 실려왔다.

《아바이, 앞으로는 전주와 선로때문에 전공들이 고생하지 않아도 될거예요.》

무영이는 노래를 푼 그치며 말했다.

《이런 깊은 산중의 선로도 말인가?!》

그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원격화를 실현하면 어떤 깊은 산중의 선로도 변전소도 다 감시하며 조작할수 있거던요.》

《그래!》

일만은 머리를 연신 끄덕거렸다.

그리고 그들은 더는 말이 없었다. 노래소리도 다시 울리지 않았다. 무영이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서너걸음 앞서걸는데 버릇처럼 턱을 조금 쳐든 일만은 스택스적 뒤따라섰다.

그들의 머리우에서는 못별들이 다투어 반짝이고 있었다.

## 봄비

## 리복은

## 1

로동안전기사 윤경호의 집에는 두 아들이 있다. 생일도 같고 생김새도 누가 누군지 인차 못가려 볼 장난 세찬 애들이다. 눈은 벌써 아버지를 닮아가며 서글서글해지고 얼굴은 어머니처럼 동그스름한 애들인데 키만은 누구를 따를지 모르게 아직은 호박 크듯 무럭무럭 자라기만 한다.

두 아들한테 쏟는 부모의 사랑은 각별하다. 혹 집을 떠나 어느 먼데 갔다 돌아온 아버지의 가방에는 아들한테 줄 선물도 꼭같은것이 들어있기가 일쑤다. 레컨대 장난감 호드기도 같은 색깔에 소리도 어느 하나가 다르게 울려서는 안된다. 셀세기를 시키자고 사오는 놀이감도 꼭 두개씩... 어머니 오정실 역시 같다. 어느 한 애도 남들한테 다르게 보이도록 단장시키지를 않는다. 옷상점에 가서 애들의 옷을 살 때도 색깔이며 문양이며 형태며가 같은 두벌을 찾는것이 이제는 굳어진 버릇처럼 되었다.

그래그런지 두 아들은 여덟번의 생일을 맞으면서도 종이장만한 간격도 없이 커왔다...

그러나 두 아들의 생활은 늘 나란히 서서 실도 랑도 함께 넘어뛰듯이 엮여지지 않는다. 차이가 조금씩 생긴다. 물론 큰것은 아니다. 혹시 누가 애들을 아버지가 공민등록증 가족란에 올려준 제이름 대신에 선동이, 후동이란 애칭으로 불러보라. 어느 애는 대답하고 어느 애는 들은척도 안하는가... 그래 한때는 그 애칭이 제이름인가싶이 아무 타발 없던 후동이 언젠가 먼저 온 가족한테 (온 가족이라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순차로 보며는 형인 선동일것이다.) 선언했다. 이제부터는 후동이라 찾으면 영 대답을 안하겠다고,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살뜰히 부르곤하는 《경수》라 해야 대답을 한다고... 이것때문에 애들속에서 후동이는 다투는 날이 종종 있다. 모두 그 애칭을 입에서 짹 떼버렸다. 경수, 이렇게 불렀다. 이것은 차이가 아닐까?...

하지만 그보다는 작년 9월 초하루부터 학교문턱이 제집문턱처럼 익숙해진 두 아들한테는 자기식의 생활이 더 활기있게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단 몇시간을 간격둔, 그래서 선동이와 후동이란 애칭이 누구에게나 친근한 단어처럼 익숙하게 된 그런 차이밖에는 없이 흘러갔건만 애들의 달라지는 모습앞에서 부모들은 자주 마주앉는다.

때로는 미쁜 마음으로, 때로는 마음에 끼는 걱정 실린 구름을 가셔내며... 애들의 장래를 생각한다. 두 자식을 훌륭히 키워 사회에 떳떳이 내세워주자.

요즘 어머니 오정실은 더욱 그랬다.

다심한 어머니들은 다 그렇지만 오정실은 이즈막에 와서 애들의 성장과 더불어 생각이 깊은 때가 많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더러 그 반대일 때도 있다. 애들을 감싸주던 주름 없던 그 따뜻한 마음속보자기에 잔주름이 실리는 일이 문득문득 끼여든다. 체몸에서 후동이란 딱지를 떼달라 툭툭대던 경수때문에 오정실은 은근히 걱정을 못놓는다. 그 또래가운데서 으뜸가는 장난꾸러기라는 말이 부엌에까지 날아들게 한다. 아침에 알뜰알뜰 닦아놓고 직장에 나간 구들에 엉치에 먼지를 잔뜩 매단채 서슴지 않고 뛰어드는 아들이 누군가. 그래서 어느날은 오정실이 후동이를 앞애다 말뚝모양 세워놓고 《넌 커서 뭇이 되겠는지 모르겠어!》 하고 짜증도 내봤다. 어제는 경수때문에 집안에 소동이 일어났다.

...이날,

이 장난꾸러기들은 어찌 그랬는지 방한벽에 세워 놓은 아버지의 책장을 넘어뜨렸다. 책이 한구들 쏟아졌다. 그바람에 책장우에 앉아 늘 시간을 《빠꼭, 빠꼭》 알려주던 시계도 내동댕이치듯 한쪽에 나동그라져 숨이 멎고말았다. 애들은 시계를 흔들어도보고 귀에도 대보고 뚫아쳤다. 점점 가슴이 콩알만큼 좁아졌다. 책들은 장을 세우고 꽂아놓으면 이런 일은 없었던것처럼 해놓을수 있지만 시계야 어떻게 본래대로 해놓을가, 공리를 짜냈다. 짜내면 시계는 변함없이 살아날것 같았다. 어른처럼 뒤더수기도 뻑뻑 굽어보며 지혜를 뽐아보려 애썼다. 먼저 선동이가 위대한 발명이라도 한듯 손벽을 찰싹 치며 고아댔다. 《됐어! 시계수리방할아버지 한테 가자!》 시계수리방은 좀 멀었다. 후동이도 마음이 혹 끌렸다. 번들거리는 안경을 끼고 일하는 수리공할아버지가 눈에 얼른거렸다. 허지만 좀 생각하더니 끝을 살살 흔들었다. 《그만두자. 언제 고칠지 몰라. 벽에 주련이 걸려있는 시계를 못봤니.》

선동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너 가기 싫었구나. 혼자 가겠어.》 하며 선동이가 막 나가려 하자 후동이는 붙잡았다.

《거기 가서 고치는 새면 어머니가 들어와. 우리끼리 고쳐보자. 뒤편 뜯으면 살릴수 있어. 수리방에서 찬찬히 봤거든.》 후동이는 빠기였다. 그 고집이 어찌나 하늘소발통같았던지 선동이는 애써 짜낸 궁리를 밀어버리고 동생한테 녹아들고말았다. 하긴 자기도 한번 제눈으로 시계속도 보고 신기한 부속도 살살 만져보고 싶었으니깐...

뒤뚜껑을 제졌다. 하나 이 엉터리없는 《수리공》의 손에 《빠꾸기》가 다친 자기 심장을 맡길 리 없었다. 시계의 류사는 축 늘어졌고 큰바늘 작은 바늘은 유치원때 가지고 놀던 완구보다도 못하게 거들거렸다.

이 모든 사실은 그날저녁으로 부모들한테 속속이 발가지고야말았다. 오정실은 후동이를 세워놓고 책망했다.

《넌 정말 겁이 없어. 크면 뿔이 되겠는지 모르겠어. 네가 어떻게 시계를 고친다고 그래. 형 말대로 했으면 뿔을텐데. 두고 봐라. 시계가 다시 살아나도 너한테는 빠꾸, 빠꾸 울어주지 않을거야.》

밤, 오정실은 애들이 잠에 꿀아떨어지기를 기다리고있다가 남편한테 애들의 장난질을 말해주고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요새 일에만 파묻혀 애들한테 관심이 적어지는것 같지 않아요?》

오정실은 저우기 긴장되어 남편의 한쪽팔을 살며시 잡았다. 말이 없다. 단말도 침묵으로 노상 대답해주는 남편이지만 오늘이야 살뜰히 말해줄수 있지 않는가. 다른것이 아니라 애들의 문제인데...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으니 말이에요. 신발을 단단히 신겨야겠어요. 귀한것두 모르고 큰다니까... 선동인 그래도 형구실은 하느라 장난질을 해도 뭐나 생각을 하며 제설자리를 찾는것 같은데...》

《허허...》 하고 남편이 가벼이 웃자 오정실은 눈이 동실해서 남편을 바라보았다. 말해보라는것이다. 아날세라 남편의 목소리가 비로소 귀가에서 은근히 울렸다. 《그 말을 하자고 여태 눈을 붙이지 못했구만.》

《...그렇게 애들이 크다간...》

《그래서 철없는 애들이라니까. 들어보니 당신도 철없는 애들한테 말려드는것 같애.》 숨소리...

《당신한테도 소녀시절의 추억들이 많을거요. 가령 고기잡이를 하려고 강가에 나간 오빠한테 성화를 부리며 다래끼를 들고 줄줄 따라다니던 생활같은것말이요... 시계야 고치면 그만인데. 큰일을 쳐서 잘못된것처럼 애들이 생각하게 해선 안되겠소. 고장난것은 애들한테 맡겨버리고 새

시계를 사다놓자구.》

《...그저 일밖에 모른다니까...》

윤경호의 얼굴이 베개우에서 빙글 옆으로 돌려지자 오정실은 소녀시절에 있었던 생활의 갈피들이 추억되는지 자기 생각에 잠겨버리고말았다.

다음날 두 아들은 별난 《완구》를 아버지한테서 받아들었다.

《두개면 좋겠는데 하나밖에 없구나. 마음껏 가지고 놀며 살펴보아라.》

두 아들은 눈이 사발만큼이나 커져가지고서도 환성을 질렀다. 정말 그것은 여직껏 가지고 놀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완구》, 장난감이었다.

## 2

봄이 지나갔다. 일요일이었다. 봄날에 차례진 휴식은 누구에게나 참으로 즐겁고 의의있는것이였다. 한낮때 소일거리로 겨울을 낸 김치웁을 가지고 그 자리를 반반히 메우고있는 아버지한테로 두 아들이 달려왔다. 벌써 봄이며 이마며 코끝에 봄별이 빨갛게 내려앉은 애들이다. 애들은 아버지한테 달라붙자바람으로 소란을 피운다. 승벽내기로 이런것을 묻는다. 까치둥지에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는가 안들어가는가? 어디서 둥지를 부지런히 틀고있는 까치한테 온 정신을 훌쩍 맡겼나 급히 달려온 모양이다. 그때 윤경호는 봄날처럼 맑고 불타는 애들의 눈길에서 무엇인가 인차 뽑아냈다. 부러 되물었다. 너희들 생각에는 어떤가고.

《물이 새지 않을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을 낳고 새끼를 까요.》

선동이의 대답이다.

《왜 안생다고 그래. 나무가지로 둥지를 트는걸 년 방금 보지 않았니. 비올 때 나무밑에 서봤지...》

후동이의 야무진 반박이다.

이때 부엌에서 늑가마를 윤택나게 닭아대던 오정실이가 바깥에서 떠드는 애들의 소란에 끌린듯 나왔다.

《여보, 애들이 흥미있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물었소.》

마치 윤경호는 내가 대답해줄수 없으니 어디 당신이라도 한번 씨원히 말해주구려 하듯 능청스러운 미소까지 짓고 말하는것이였다.

《너희들은 별걸 다 생각했었구나. 그런걸 내가 어떻게 아니... 호호.》

오정실은 애들을 쳐다보며 밝게 웃었다.

《하긴 너희 어머니 말은 꼭 옳아. 어머니 너자니까 까치둥지에 한번도 올라가본 일이 없을테니까. 그러니 맞는셈이 아니냐. 허허.》



윤경호도 웃고 오정실도 웃고 두 아들도 덩달아서 깔깔 웃어댔다.

《까치는 다른 새들과 달리 겨울이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먼 다른 나라로 찾아가며 사는 <계절조>가 아니란다. 언제나 사람들이 사는 근처에서 제둥지를 틀고 사는 새란다.》

《당신두, 애들이 그런 계절존지 뭔지 까다로운 말을 어떻게 다 새겨들어요.》

이러며 오정실은 미소어린 눈매로 남편을 할끔 쳐다본다.

《모르니 애들이 알꽃아 묻는게 아니요. 당신도 까다롭게 들리면 내 <강의>를 한번 받아보지.》

《아이참...》

오정실은 함빡 퍼진 미소어린 얼굴을 손으로 가리우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윤경호는 한동안 애들한테 차근차근 말했다. 동지 그 보금자리에 비물이 새어들면 어떻게 되겠는가. 까치는 령리하고 부지런한 새여서 동지도 묘하게 틀어놓는다... 이런 설득력있는 아버지의 말을 두 아들은 옛말처럼 들었다.

결국 형 선동이가 동생 후동이를 물리친 셈이 되고말았다. 했으나 후동이는 볼만 뒤편 꼬집어 보고는 더 고집을 세우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두 아들은 까치둥지때문에 종내 다툼질을 했다. 오정실은 가슴이 철렁 무너지듯 아팠다. 두 아들을 나란히 세워놓았다. 그러나 아픈 마음과는 다르게 입으로는 평시처럼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너희들은 공연한걸 가지고 싸움질을 했어. 한집에서 재미나게 사는 까치들이 싸우는걸 봤니?...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의중계 사는것만 본 모양이구나.》

이렇게 허두를 뻔 오정실은 두 아들이 더는 서먹서먹하게 지내지 말라는듯 따듯이 어루만져주는 재차 말했다.

《나무가지로 지은 둥지여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셀수도 있지뎐.》

《어머닌 몰라요. 아버진 안샌다고 그랬어요.》

선동이의 고집스러운 말에 오정실은 더 무슨 소리를 꺼낼 생각을 잃었다. 사실은 자기가 진것으로 하여 울적해진 후동이의 기분을 다소나마 가쳐주려 했는데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선동이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하긴 생각하면 애들이라 할가.

《넌 가만 있으란데두. 경수, 넌 어째 물이 샌다고 생각하니?》

다른 이유가 바로 새고 안새는 거기에 있었기에 오정실은 재차 캐물었다. 그런데 후동이의 대답에 그는 다시금 가마에서 밥을 태운 순간처럼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난 샌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싸웠니?》

《이겼다고 뽐내니까 그랬지요.》

후동이의 .대답은 여전히 고집스러웠고 여물었다.

《그래...》

비로소 오정실은 진정할수 없었던 마음을 어느 정도 누르며 두 아들을 품에 꼭 껴안아볼듯 싸잡았다. 역시 애들은 애들인것이 아닌가.

어느 한쪽이 서운하지 않게 편들어주려던 오정실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풀어지고야말았다.

그렇다. 어느 한 애한테도 짝이 생길세라 젖도 꼭같이 물려주던 어머니, 자식의 몸에서 일어난 소소한 변화도 인차 자기처럼 느끼고 가슴해보는 어머니의 그 살뜰한 감각은 이렇듯 나날이 펍 펍 커가며 달라지는 자식들의 모습앞에서도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지 모른다. 자식을 키워가는 길에는 털끝만한 차이와 간격과 가식이 없는 어머니의 그 모성애란 정을 아직은 다 느끼지 못하는

그 아들들이 오정실한테는 무척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이제 선동이만 더 이겼다고 우쭐령대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은 다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그 아들로 어머니품에 안겨있을것이니. 오정실은 아무래도 선동이만은 따로 불러다 잘 타일러 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오정실은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해버렸다. 남편은 잠자코 듣기만 하였다. 말이 없었다. 늘 자기 말에는 입이 철렁이같은 그런 남편이지만 이날따라 오정실은 남편이 원망스러웠고 가슴이 답답했다. 애들 교양에 자기보다 무슨 더 좋은 수가있으련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밥상에 나왔자 오정실의 이런 무거운 마음이 가쳐지고말았다. 후동이가 제법 어른처럼 꿈소리를 꺼냈는데 듣고보니 누구나 웃지 않을수 없었다. 나무에 올라가 둥지에서 오돌오돌 떠는 새새끼를 꺼내왔다는 것이었다.

《거참, 꿈도 신통한걸 췌는데. 추워 새끼들이 떨고있었다니 제 어이를 다 잃었던 모양이구나. 까치더냐?》

《무슨 새끼지를 모르겠어요. 그저 새갈예요. 아버지, 어이는 뭐가요?》

《...어이, 그건 새끼를 가진 짐승들의 어미를 두고 정확히는 <어이>라고 부른단다.》

이번에는 선동이가 호기심이 난듯 끼여든다.

《엄마와 같단말이지요. 호호...》

《아니, 엄마가 아니라 어이라는데, 어, 이.》

《여보, 찬밥이 되겠어요.》

어이요, 어미요 하는 소리에 문득 오정실의 가슴은 짜늘해왔다. (참, 별난 일이 다 있지...)

### 3

또다시 옛새가 흘러갔다. 아침저녁으로 꽃샘을 하던 날씨는 더는 싱그러운 봄향기를 피워올리는 아지랑이한테 성가시게 굴지 않고 자취를 감추었다. 어디를 가봐도 봄살이 포동포동 올라갔다.

해동이 되기를 기다리던 봄비가 밤에 폭 내렸다. 소문도 없이 내린 그 봄비는 한껏 대지를 부풀게 하고도 아직 성차지 않는지 새벽 한때 멎었다 또 내리기 시작했다. 날이 흰해지자 벌써 집집들에서는 겨우내 없어두었던 꽃우산과 비옷의 먼지를 씻어내며 봄비의 달디단 맛을 향수처럼 느껴보며 맛았다.

아침을 끝내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오정실은 갑자기 선동이가 뛰어드는통에 흠칠 놀랐다. 애의 옷은 흠뻑 젖었다.

《어머니! 경수가 나무에 올라가요!...》

《...?! 뭐라구?...》

오정실은 행주치마를 두른채 밖으로 나갔다. 눈길은 비속을 뚫고 한참 허둥거렸다. 허겁지겁 선동이한테 끌리듯 미루나무가 서있는 근처에 다달은 그는 급기야 온몸이 땀 굳어졌다. 나무중턱에 착 달라붙은 후동이를 본것이다. 큰비자루를 꺼꾸로 세운듯한 나무의 상수리는 하늘가에 흘러가는 모든 무겁고 침침한 비구름을 쓸어다 쿵 꿇질러놓은듯싶었다. 중턱에서 쑥 올라가 거무스꺼운 등지가 걸려있다.

(종내 일을 쳤구나.) 오정실은 이제는 딛고선 땅덩어리가 흔들거리는것만 같았다. 애 후동아, 아니 저녀석 그러면 또 툄툄대, 경수라고 찾아야 놀라지 않을수 있어... 이런 급한 대목에도 수다스러운 생각으로 속이 치미는게 이상했다. 허나 아무 소리도 못하게 혀가 차돌처럼 굳어졌다. 그냥 내버려둔채 잘되기만 바라며 서있으라는것인지. 남편은 어데 있담. 기쁠 때나 피로울 때나 마음의 기둥이 되어 곳곳이 받들어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옆에만 서있어도 후동이는 무난히 까치둥지를 제손으로 만져볼상싶었다. 집에 아직 남편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피땀 들자 오정실은 선동이를 시켜 속히 데리고 나오라 했다. 곁에 있던 선동이까지 떠나자 오정실은 넓으나넓은 이 땅우에 홀로 쓸쓸히 서있는듯 피로왔다. 문득 나무밑에 놓은 후동이의 신발에 눈길이 가 박혔다. 흙에 계발린 신발이다. 얼른 신발을 걸어잡았다. 그리고 흙을 닦아내듯 손으로 흠쳤다. 눈길은 그냥 나무중턱에서 떼지 않은채... 여태 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가, 형한테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오죽 컸으면 꿈결에도 올라가보고 비내리는

이런 날에도 올라갈가. 불현듯 너희 어머니는 너자니까 나무에 올라가지 못했을거라는 그때의 남편 말이 귀속에서 뺨 올랐다. 당신은 그날 부추겼어요. 그날 《강의》가 오늘은 어떻게 되었나 보세요. 좋게만 말해줬어도 후동인 고집을 저렇게 세우지 않을거예요. 집쪽을 얼른 쳐다봤다. 아직 남편은 안보인다. 지금 한가히 거울을 앞에 놓고 얼굴에 폭 퍼진 비누거품을 면도칼로 흠쳐낼지도 몰라. 수염이 작히나 많은 사람이라고...

오정실은 이상했다. 어째 이런 별 생각이 다들가.

이윽해서 남편도 뛰어왔다. 그는 나무에 달라붙은 아들의 모습을 주의있게 바라보더니 안해한테 넌지시 말을 건네는것이였다.

《용쿠만! 우리 경수가 장하오!》

흥분에 젖은 낮익은 목소리가 곁에서 문득 울려서야 오정실은 남편이 와 서있는것을 알아차렸다.

《어쩌면 빨리 나오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번 타박하듯 나직한 소리로 말하고서야 오정실은 허아래 땅땅 굳어있던 말마디들을 배알듯 나무꼭대기를 향해 웅쳤다.

《애, 경수야! 그만 오르고 내려오려마! 어서, 떨어지겠어!...》

그는 남편을 채차 쳐다본다. 웃고있다. 그 어떤 흥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사람처럼. 로동자들 속에서 손톱눈 하나 상할세라 로동보호사업으로 엄격해진 남편의 얼굴에 저런 미소가 물결치고있는것이 이상했다. 그는 가슴이 타는듯 옆에 바루 선 선동이의 작은 손을 잡고 꼭 중간에 몰아넣었다. 이 땅에서 너만은 발을 떼서는 안된다. 알기라도 하는가? 자식걱정으로 이 어머니의 가슴에서 너희들을 키워주던 그 젖줄기가 아니라 지금은 가슴에 그 무엇이 흘러내리고있음을.

드디어 한치한치 이악하게 오르던 후동이는 그 매혹의 등지-까치보금자리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여보! 다 올랐소! 다 올랐소. 우리 경수가!...》

오정실은 남편의 굵은 목소리에 눈굽이 달아올랐다. 이것 또한 이상한것이였다. 그는 선동이를 꼭 잡고있던 손을 놓아버렸다. 일시에 온몸을 압박했던 긴장감이 팍 빠져나간듯 노근했다. 목덜미며 어깨가 축축한것도 느껴졌다.

《어머니! 등지에 비가 새들지 않았어요!》

나무우에서 웅치며 말하는 후동이의 쉼쉼한 목소리가 아래로 굴러내려오자 오정실은 그저 반사적으로 고개만 끄덕이며 응, 응, 했다. 지금 아들에게 보내줄수 있는 사랑이란 폭 젖은 목소리로 나직이 응답한 그 소리와 측은하게 짓는 미소밖

에 없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한대 맞은듯 머리가 땡했다. 어째 형한테 이번에도 진 애인테도 목소리가 저렇게 명랑할까. 이런 때 자식들이 찾게 되는 그 본능적인 목소리가, 아니다!... 두 아들의 편을 똑같이 들어주려던 나머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들어갈수도 있다는 그 두리몽실한 대답을 해준 순간이 없었다면... 다시 회초리가 지나갔다. 밤새 비는 얼마나 많이 왔는가. 그러니 너를 부추긴건 아버지가 아니라 이 에미란말이지.

오정실은 꼭 자기때문에 지금 일이 빚어진것만 같았다. 철없는 애라고 고려도 없이 말한 순간이 지나가자 그는 얼굴이 확 붉어졌다.

후동이는 인차 내려왔다. 오정실은 아들이 나무에서 떨어지듯 내려서자 부둥켜받듯 안고 신발을 신겼다. 새것처럼 흙이 거의 흠쳐있는 깨끗한 신발이다. 대신 어머니의 앞치마는 얼룩이 폭 퍼져서 비에 젖어있다.

《새끼를 짰던?》

선동이가 동생한테 바투 다가서며 궁금한듯 묻는다.

《아니.》

《알이 있던?》

《것두 없어.》

《그럼. 비가 안새는걸 뭘로 알았니?》

《손을 넣어봤지뭐.》

《그래서야 아니?》

《알을 낳으려 칸 털이 하나도 젖지 않았어. 이거야.》

까치가 물어다 알을 낳으려 깔았던 깃털 하나를 후동이는 얼른 주머니에서 꺼내보인다.

《젖었구나뭐.》

《아니야...》

젖던 깃털을 도로 받아들고 눈이 동실해 어머니를 뵈는 처다보는 후동이. 정말 젖었다. 내려오는 새 그렇게 된 모양이다.

《에씨- 비만 안왔어두 안젖었을건데...》

후동의 타박은 맞기도 하고 또한 틀리기도 한 말이다. 그러나 오정실은 일부터 그것을 가려내려고는 안했다. 두 아들은 집으로 달음박질하였다.

벌써 옷들은 폭 젖었으나 오정실은 머리우에 불안했던 비구름이 흘러가고있는것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천진한 애들의 모습에 어딘가 끌려선지, 남편이 껄껄 웃으며 걸음을 성큼 떼서야 그는 자기로 돌아와 따라섰다.

《당신 생각엔 어떻게?》

《...?》

《선동이도 한번 나무에 올라가 제눈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

《이자 후동이한테 물어보는걸 보니 꼭 그래야 할 가봐. 진짜 우리가 풀어준 대답을 그너석은 아직 찾지 못했거든.》

《...그럼 또 <강의>를 하세요.》

탓하듯 말했으나 오정실의 목소리는 맑았다. 미소를 상긋 지어보였다. 말해주세요. 애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 땅의 모든것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그래서 애들의 성장에 다소나마 밑거름이 되고 날개가 된다면 그런 사랑이 얼마나 좋아요...

문득 시계, 등지, 계절조, 어이... 그리고 고기잡으러 강가에 간 오빠를 졸졸 따라다니던 그 추억의 다래끼가 선명히 뇌리에 떠올랐다. 타자기에서 찍혀나오던 단어처럼 명백하게 말하던 남편의 말마디들이었다. 재차 그 모든 목소리가 귀에서가 아니라 가슴속에서 울렸다. 바로 자식들한테 말해준 그 대답속에 자기와 남편간의, 자기와 자식간의 차이며 간격이며 또 사랑의 정도가 있는것이다. 그는 자식들한테 하는 대답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젖이나 주며 어루만지던 그 모성애라는 단순한 한계를 벗어나 조국앞에 책임지는 사랑의 대답이 되여야 한다는것을 벌써 깨닫지 못한것이 무척 후회되었다. 조국의 미래를 맡고 꽃피울 인간 들이 누구인가, 후동이는 펍 후날 누가 추억을 거슬러 왜 나무에 올라갔는가를 묻거들랑 웃음으로 대답할지 몰라... 하고 오정실은 생각하였다.

그는 이제 집에 들어가 애들의 젖은 옷을 마른것으로 바꿔입히면서 후동이한테는 반드시 《이번에는 네가 이겼어.》하고 말하리라 다짐하였다. 그것으로 다시금 빚어질 모든 후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생각밖이었다. 남편도 그러기를 바라는양 싫었다. 그리고 자기도 오늘 아들과 함께 난생처음 그 까치등지가 실린 아찔한 나무에 올라가본듯이 마음이 사뭇 울렁거렸다.

그는 후동이가 애써 제손으로 쓸어본 깃털 깔은 까치의 보금자리도 만져본듯 기분이 상쾌해졌다. 애들을 키우느라 마련한 요람의 폭신한 자리를 지켰던 순간처럼...

(봄비는 더 일찌기만 왔더라도 오늘일은 좀 더 빨리 있었을지 몰라.)

오정실은 중얼거렸다.

## 첫새벽 푸른 하늘

백의선

한밤 꿈속에도 어러오는 하늘  
탄전길 걸으면 더욱 푸르러와...  
가까이 보고싶어라, 저 멀리 평양  
첫새벽의 하늘이

동트는 이른아침  
수령님 새날의 창문을 여시면  
탄부들 생각하며 바라보신다는  
화력발전소의 흰 연기 피어나는 그 하늘

꽃구름처럼 흐르는 그 흰연기를  
탄부들의 아침인사처럼 받으시며  
아버이수령님 오늘도  
더없는 기쁨으로 새날을 맞으셨으리

내 바라노라 간절히  
수령님 창문을 여시는 그 아침에  
나의 땀 흠뻑 배인 석탄이  
수천도의 불길로 화실에 타오르기를  
타오르며 그 하늘에 내 마음 수놓아주기를

바라노라, 바라노라  
수령님 새벽참에 먼 길 떠나시면  
탄부의 정열이 물들은 그 하늘이  
언제까지나 차창에 비껴있기를  
온종일 기쁨으로  
그이의 가슴속에 남아있기를

아, 수령님 다정히 미소를 보내시는

가사

아름다운 그 하늘의 새벽빛 담아  
콘베아에 탄은 실려 번쩍이며 흘러가고  
눈부신 태양등의 빛발에도  
그 새벽빛은 내리는것이 아니나

첫새벽의 그 하늘이 있어  
창조의 벽찬 열풍을 터뜨리며  
철의 도시 구내로 기적소리 울려가고  
그이의 기쁨으로 시작되고 꽃피나는  
조국의 온 하루가 펼쳐지는것이 아니나

탄을 안고 불을 안고  
불타자, 나의 심장이  
그 열도의 뜨거움도  
그 박동의 거세임도  
첫새벽 하늘가에서  
아버이 수령님 다 안아보시거니

거창한 채탄기로 탄벽을 허물며  
가자, 천길 또 천길  
조국의 그 맑고푸른 하늘을  
수령님의 기쁨으로 펼치며  
가자, 만길 또 만길

아, 막장은 깊어 깊어만가도  
행복하여라, 탄부의 마음에는  
언제나 그 새벽하늘이 푸르러  
어디서나 그 하늘의 흰구름이 흘러...

## 막내아들 채탄공이 되었네

한찬보

삭도 등실 오고가는 산기슭 탄전마을  
다섯남매 탄부집에 웃음꽃 피였다네  
아 막내아들 아버지를 따라  
채탄공이 되었으니 온 가정이 경사일세

마을에선 사람들이 막내라 부르지만  
막장에선 혁신자로 소문을 떨친다네

아, 발파소리 들으며 자란  
탄부집의 막내아들 일숨씨도 다르다네

아침이면 출근길에 어깨도 나란히  
온 집안이 가는 모습 마을의 기쁨일세  
아 대를 이어 석탄전선 지켜  
온 나라의 일터마다 검은금을 보내주네

# 국경역에서

김정철

머나먼 대륙의 한끝  
그 몇나라를 지나오느냐  
기적을 울리며  
렬차가 오네, 강을 건너  
렬차가 오네, 국경을 넘어

멀리서 오는 손님  
이웃에서 오는 손님  
어디부터 안내하랴 반가운 손님들아  
어디나 환영의  
넓은 길이 열렸는데

무엇부터 보여주면 내 좋으랴  
폐허속에 우리 힘으로 일떠세운  
공장들을 먼저 볼가  
년년이 만풍인 농장벌  
공원속의 도시라, 파원속의 마을이라

어디 가나  
생활이 노래이고 춤인 나라  
즐거운 로동과 배움의 나날에  
건강과 우정이 꽃피는 나라  
내 그대들께 보여주고싶어라

아, 내 진정 자랑하고싶은것  
위대한 수령님 어버이로 모시고  
영광스런 당을 받들며  
이 땅 이 시대에 사는 공민의 행복

천이면 천가지 인민을 위한 법  
우리 수령님 세워주시고  
영광스런 당이 배풀어가거니  
사람들 화목하고  
풍요하고 아름다운 나의 조국이어

세상엔 나라가 많아도  
언제나 한번 오고싶고  
걸어보고싶은 공장과 들길  
이 땅에서 바라고 그리던 래일을 찾고  
자주로 꽃핀 인간의 삶을 보나니

자동화의 불빛 흐르는 기계바다  
산악같은 언제를 보아도  
이 땅우에 펼쳐지는  
먼 10년후의 그 휘황한 전망들도  
자신의 기쁨으로 오늘에 안아보는 벗들

그래서 내 나라 동쪽에 살면서도  
내 나라 서쪽에 살면서도  
락원의 이 땅을  
해쫄는 나라로 찾아오는것인가  
아침의 조국으로 찾아오는것인가

오 렬차가 오네! 국경을 넘어  
머나먼 대륙의 한끝에서  
대양 건너 섬나라에서  
조국이 전성기를 맞이했으니  
손님도 많아라

어제날 리별의 찬비속에  
떠나가는 렬차의 구슬픈 기적소리  
망국노의 설음만 더해주던 국경역에서  
내 오늘은 주인으로  
온 세상을 맞아들이나니

어버이수령님 모시여  
영광스런 당을 받들어  
아 내 나라는  
인류의 마음속에 솟아있는 조국이어라.

# 내가 서야 할 위치

오충근

**때;** 현대  
**곳;** 어느 한 광산에서  
**대역**  
**철민**……새로 온 제대군인  
**광현**……광산기사장  
**윤옥**……광산설계기사  
**명순**……철민의 어머니  
**준필**……건설사업소 연공  
**기타**……연공소대장, 로동자 1  
**무대;** 높은 산마루에 자리잡은 삭도건설작업장. 삭도탑의 밑기둥이 무대 우측에 있다. 삭도탑으로 오르내리는 철사다리가 있고 거기에 안전바줄이 드리워져있다.  
 무대 한쪽에는 야외휴게실이 있다. 이 동식책상과 접철식의자 몇개, 책상우에는 전화기가 놓여있다. 휴게실 한쪽에는 작업공구들과 물바게쓰, 물차관이 적당히 놓여있다.  
 배경으로 초여름 산촌의 풍경과 함께 연연히 뻗어나간 은빛 삭도줄이 보이고 높이 솟은 철탑들이 구름속에 휘감겨있다. 그아래로 웅장한 선광장이 바라보인다.  
 막이 열리면 철민 안전바줄을 타고 삭도탑에서 내려온다.  
 몹시 힘에 겨운듯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모두숨을 쉰다.  
 △ 이때 쌍안경케스를 걸친 윤옥이 삭도탑에 설치할 《주삭안내력》(삭도바가지가 떨어지지 않게 삭도탑에 설치하는 배모양으로 길게 된 부속품)을 어깨에 메고 들어온다.  
**철민;** (반가와하며) 윤옥동무!  
**윤옥;** 아이 철민동무구만요. 또 삭도탑에 올라가는 연습을 했구만요.  
**철민;** 그렇소… 윤옥동무, 그게 뭐요?  
**윤옥;** 삭도탑에 설치할 《주삭안내력》이예요.  
**철민;** 그렇소?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받아서 무게를 가늠해보며) 음, 그렇게 무겁지는 않구만.  
**윤옥;** 삭도를 많이 운영해본 로동자동무들의 의견도 있어서 만들었는데 제대로 작용하겠는지 모르겠어요.  
**철민;** 윤옥동무, 이걸 내가 탑에 올려다 설치하겠소.  
**윤옥;** 얼마나 동무가…?  
**철민;** 왜 미덥지 않단말이지?(섭섭해한다.)

**윤옥;** 아이참, 동무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사장동지가 승인하겠어요?  
**철민;** 오늘이야 방법이 없을게요. 8 호탑에 올라가는 사람이 광산적으로 두사람밖에 없는데 강아바이는 휴양을 갔지, 오늘은 연공소대장 한사람밖에 없지 않소.  
**윤옥;** 하긴 이 《주삭안내력》을 달자고 해도 두사람은 있어야만 해요.  
**철민;**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겠다는거요. 더우기 이 《주삭안내력》은 삭도의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우리 로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동무가 창안한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이 메고 올라가는것보다 내가 직접 메고 올라가면 동무의 마음도 더 기쁠거라구 생각하는데.  
**윤옥;** 아이참 동문…(가지고온 종이꾸레미를 철민에게 주면서) 받으세요.  
**철민;** 이게 뭐요?  
**윤옥;** 어제 상점에 들리니까 색깔이 아주 고운 여름내의가 있지 않겠어요. 동무에게 맞겠는지…  
**철민;** 고맙소. 야 이거 벌써부터 신세진다. 하하…(받는다.)  
**윤옥;** 아이참, 그게 무슨 신세겠어요. 어머니랑 오셨다는데 갈아입으세요.  
**철민;** 그렇게 하지.  
**윤옥;** 난 7 호탑의 활차상태를 다시 확인해야겠어요. (탑쪽으로 나간다.)  
 △ 뜨거운 마음으로 처녀의 모습을 이윽도록 바라보고있다.  
 △ 이때 로동자가 상자에 무엇을 지고 들어온다.  
**로동자;** (처녀를 쳐다보고있는 철민이를 보고) 이 사람아, 이걸 좀 받아달라구.  
**철민;** (달려가며) 이게 뭘니까?  
**로동자;** 눈은 뵈다 뭘하겠나, 보라구.  
**철민;** (상자를 받아 내려주면서) 야, 요란한데요. 사랑, 파자, 아니 이거 벌써 살구가 나왔구만요.  
 △ 철민 상자를 내려주고 살구부터 몇알 켜다.  
**로동자;** 이사람아, 마음대로 손대지 말라구.  
**철민;** 왜요!  
**로동자;** 이걸 기사장이 직접 조직해서 올려보내는데 오늘 8호탑시운전작업에 동원되는 연공들의 몫이야.

**철민**; 그럼 내 몫도 있구만요.

△ 철민 우적우적 살구를 다 먹고는 또 상자를 넘겨다본다.

**철민**; 아바이, 사이다도 있구만요. 목마른데 그것 두 한병 축넘시다.

**로동자**; 이사람아, 안된다는데두. (상자를 들어다 야외휴게실에 가져다놓고) 자네가 뭐 연공인가, 밑에서 바줄이나 잡아당겨주는 주제에...

**철민**; 팔세하지 마십시오. 밤낮 밑에서 바줄이나 잡아주겠습니까? 내 오늘 저 중간발판까지 래두 한번 올라가보자는겁니다.

**로동자**; 정신 있나, 이게 뭐 뉘 집 사닥다리인줄 알아? 높이가 68 메터야. 오죽하면 오늘 이 삭도를 건설한 건설사업소 연공까지 초청했겠나?

**철민**; 옛...?! 아바이, 그게 정말입니까.

**로동자**; 허참, 정말이 아니문 더운밥 먹구 식은 소릴 하겠나... 저 상자것두 그 사람때문에 기사장이 직접 올려보내거야.

**철민**; 그래요...(심각해진다.)

**로동자**; 참, 내 정신 봐라. 자네 어머니가 왔단만, 기사장네 집에 있다구 빨리 내려보내라던걸...

**철민**;.....

**로동자**; 이사람아, 귀가 먹었나...?

**철민**; 소식은 듣구 올라왔습니다.

**로동자**; 그래 어머니 왜 왔나!

**철민**; 뭐 두루두루...아들이 보구싶어 왔겠지요.

**로동자**; 내려가보라구,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넬 데려가자구 왔단데...

**철민**; 누가 그러니까?

**로동자**; 왜 모르겠나. 다 토론이 있었다면서?

**철민**; 에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로동자**; 이사람아, 기사장이 단단히 이르던데 빨리 내려가보라구.

△ 로동자 휴게실 바깥쪽과 물주전자를 들고 탑아래로 나간다.

**철민**; (무거운 생각으로 진정못하다가) 이 탑 하나때문에 건설사업소 연공까지 초청했단말이지. (탑을 쳐다보다가) 에이, 내가 저절로 점령 못한단말이야...

△ 철민은 결심한듯 안전띠를 몸에 감고 탑으로 뛰어오른다.

△ 이때 광현 연공소대장과 함께 등장. 광현은 대공전화기를 들고 소대장은 바줄을 어깨에 걸치였다.

**광현**; (탑우의 인적기를 들고 놀라며) 저 누구요?

**소대장**; (탑을 쳐다보다) 아무래도 철민동무가 탑에 오르는 연습을 또 하는것 같습니다.

**광현**; (엄하게 소리친다.) 당장 내려오지 못하겠

어. 내려오라는데두.

△ 이윽고 철민 탑에서 내려온다.

**광현**; 정신있어? 누가 탑에 마음대로 오르라구 했어. 응! 누가말이야...!

**철민**; 저도 생각되는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광현**; 그래 연공이라는게 삭도탑이나 한두번 올라가보면 척척 되는줄 아는가 영!

**철민**; 기사장동지,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소대에 제대군인들도 있다는게 제구실 못해서 건설사업소 연공들까지 초청해다 쓰니...에이 참.

**광현**; 동무들은 비철바가 아니야. 필요에 따라 초청해다 쓸수도 있는게구... 쓸데 없는데 신경을 쓰지 말구 어머니가 집에 와있으니 빨리 내려가보라구.

△ 철민 안전띠를 벗어놓고 밖으로 나간다.

**소대장**; 기사장동지, 사실 오늘 건설사업소 연공을 괜히 초청해다 쓰는게 아닙니다.

**광현**; 왜 자존심이 꺾여서...?

**소대장**; 인제야 그 동무들이 시공을 끝내구 우리 기업소에 탑을 인계해주고 간지두 반년이 나 되지 않았습니까.

**광현**; 여보,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을 괜히 가져다 쓰는줄 아오! 다 부대조건이 있는게지...

**소대장**; 옛...?

**광현**; 그 친구들이 먼저 공무직장 학빈동무를 좀 빌려쓰자는게 아니겠소.

**소대장**; 예, 거 8 급용접공말이지요.

**광현**; 뭐 스텝땅크를 용접하는데 한 이틀만 사정 하더군.

**소대장**; 하긴, 하하...

**광현**; 거, 엄준필이라구 75 메터굴뚝을 통채로 옮기구 신문에도 큼직하게 소개된 친구 있지.

**소대장**; 아니, 그 동무가 옳니까?

**광현**; 우리도 고급연공을 달라구 했지. 펄펄 나는 친구인데 한 이틀 단단히 붙잡아두자구.

**소대장**; 일감이야 많지요 뭐. 에이, 우리 소대두 그런 고급기능공이 이제 한사람만 더 있어두 무섭지 않겠는데.

**광현**; 가만있소. 동무네 소대에도 6급공 한사람을 주겠소.

**소대장**; 아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광현**; 오겠다는 동무가 있으니까. 아직 떠들진말구...

**소대장**; 알겠습니다...

△ 이윽고 로동자, 윤옥이 들어온다. 윤옥이가 로동자의 물바게쓰와 주전자를 들었다.

**광현**; 병철아바이, 내가 이야기하던걸 다 가져왔습니다.

**로동자**; 예, 저기 가져다왔습니다. 좀 가져올가

요?

광현; 아직 놔두십시오. (시계를 보면서) 그런데 이 동문 떠났다는데 왜 아직 오질 않을까... (윤옥에게) 기사동무, 7호탑활차가 어떻게?

윤옥; 쌍안경으로 감시했는데 일없을것 같습니다.

광현; 그럼 건설사업소 연공동무가 오기전에 7호탑부터 먼저 시작해볼까?

소대장; 그렇게 합시다.

광현; (대공전화기를 쥐고) 원동소, 원동소!

소리; 예, 원동소 들었습니다.

광현; 내 기사장인데 삭도직장장동무요?

소리; 그렇습니다.

광현; 먼저 7호탑부터 검열해보겠는데 내가 이제 신호하면 수동으로 몇바퀴 돌리시오.

소리; 알겠습니다.

광현; (대공전화기를 끄고) 올라갑시다!

△ 소대장 바줄을 메고 탑쪽으로 나간다.

△ 윤옥, 휴게실에 와서 《주삭안내력》을 메고 나가려고 한다.

광현; 그게 뭐요?

윤옥; 《주삭안내력》입니다.

광현; 그건 놔두오.

윤옥; 부서 기술협의회때 노동자들의 의견도 그렇고 해서 경사가 심한 7호탑과 8호탑에는 달기루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광현; 글썄 앞으로 운영과정에 필요하면 달아보는것이구 오늘은 부하운전을 시험하겠는데 그걸 언제 달구 하겠소.

윤옥; 간단합니다. 볼트나트 몇개만 가지고 올라가 달면 됩니다.

광현; 그런걸 탑에 자꾸 주어달면 앞으로 보수할때도 일감이 많아지고 거치장스럽소. 하여간 당장은 삭도바가지가 잘못되는것은 아니니까 부하운전을 한 30분 해보구 결심하자구.

윤옥; 알겠어요.

△ 광현 대공전화를 책상에 놓고 장갑을 끼고 나간다.

△ 철민 볼트나트를 들고들어와 《주삭안내력》구멍에 맞추려 한다.

철민; (윤옥에게) 윤옥동무, 공구함을 가지고 오오. 볼트를 가져왔는데 맞는가 맞춰봅시다.

윤옥; 철민동무, 기사장동지가 안내력은 후에 보자구 했어요.

철민; 후에 보다니? 부하운전이라는거야 달걸 다 달구 시운전하는게 원칙이 아니요. 내가 메고 올라가겠소. (《주삭안내력》을 메려고 한다.)

윤옥; 놔두세요. 기사장동지의 지시인데. 괜히...

철민; 윤옥동무, 동무야 기사가 아니요. 기술적으

로 확고히 파악이 있는 다음에야 자기의 결심을 내밀어야지. 난 동무에게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소.

윤옥; 아이참, 사회에서는 원칙 하나만 가지곤 할수 없어요. 뭐 군대와 꼭 같은줄 아세요. 난 동무에게서 그게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아요.

철민; 뭐라구...?

△ 윤옥 총총히 탑쪽으로 올라간다.

철민; 윤옥동무...!

△ 이때 광현이가 들어온다.

광현; 아니, 넌 왜 아직두 거기에 서있니 영?

철민; (말없이 먼산만 쳐다본다.)

광현; (가까이 다가서며) 내 아까 사람들이 있어서 말을 안했는데 너두 인제는 어머니생각두 할줄 알아야지. 오죽하면 어머니가 여기까지 찾아왔겠니?

철민; 기사장동지, 어머니랑 오셨을 때 우리 집 문제를 좀 토론해주시시오 예, 내가 뭐 어머니와 꼭 함께 있어야만 호잔가요.

광현; 나는 일전에 도에 회의를 갔다가 너의 집에 들러보구 생각되는바가 많았다. 너의 어머니가 그 불편한 몸으로 창고두 다시 짓구 위생문화사업두 혼자서 하더구나.

철민; 그런거야 인민반에서 도와주면 되는건데.

광현; 인민반도 그렇지 아무려면 제자식만 하겠니? 요즘 그 허리병때문에 물리치료까지 받는다는데 말이 아니더라.

철민; 에이, 어머니는 정말 괜히 고생한다니까. 평양 형님네 집에 가있으래두 말을 듣지 않구.

광현; 네가 제대되여와 아직 제 살림도 꾸리지 않았는데 너의 어머니 성미두 그래 형님네 집에 가있을것 같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직 어머니의 속심을 알기는 멀었어.

철민; (가볍게 한숨을 쉰다.)

광현; (더욱 다정하게) 마음놓고 내려가라는데 두... 이제 내려가면 로임파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있을게다.

솔직히 말하면 너를 보내는것도 우리가 아무데나 막 보내자는것도 아니구 광산기계공장으로 보내자는거다.

철민; 옛...?

광현; 거기 지배인이야 너무 잘 알지 않니. 너의 아버지가 직장장을 할 때 그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니니?

철민; 내가 거기에 간들 쉽게 제구실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정말...

광현; 글썄 거기서 너를 받아주겠다구 전화가 있었다는데두 그런다.

△ 이때 삭도가 도는 소리 들린다. 광현 책상



우에 두고갔던 대공전화를 들고 급히 나간다.

△ 철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을쪽을 내려다 보고 섰다.

△ 윤옥 탑쪽에 들어와 쌍안경으로 삭도의 움직임상태를 감시하여 수첩에 적고있다.

윤옥; (무거운 생각으로 마을을 내려다보고 서있는 철민에게) 어머니가 기다리실텐데 내려가보지 않아 일없겠어요!

철민; ………

윤옥; 편지를 하다못해 인젠 직접 데리고 가지자구 오신게지요?

철민; 정말 안타깝소…

윤옥; 그렇게 골똘할게 있나요.…. 기사장동지가 다 수속까지 해주신다는데 어머니를 가서 모시도록 결심해야지요워.

철민; 진정으로 하는 소리요?

윤옥; 그럼 어머니를 이 산골에 오라고 하실수야 없지 않아요.

철민; 우리 어머니를 나는 잘 알고있소. 내가 이렇게 제구실 못하고 밀려다닌다면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할거요.

윤옥; 그렇다구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제저녁 참모회의 뒤끝에도 기사장동지가 단단히 이야기했대요. 요즘 제대군인동무들이 찍하면 굴착기도 운전하구 탑에두 막 오른다구.

철민; 그럼 우리가 아직두 《신입병사》생활을 해야 한다구 생각하오. 군대에서는 6개월이면 단독근무를 수행할수 있단말이요. 에이 이거야 정말…

△ 이때 7호탑쪽에서 찾는 소리 들린다.

소리; 기사동무, 거 휴계실에 있는 지레대를 하나 가져다주시우.

윤옥; 알겠어요.

△ 윤옥은 휴계실에 세워져있는 지레대를 들고 나간다.

△ 탑쪽에서 작업하는 소음이 들린다. 철민은 그쪽을 바라보고 섰다.

△ 이때 명순이와 준필 함께 들어온다.

명순; (철민이를 발견하고) 철민이가 아니냐?

철민; 어머니! (반가와 달려가 손에 든것을 받아준다.) 어머니, 수고했어요.

△ 철민은 휴계실 접철식의자를 가져다 퍼준다.

명순; 오냐, 넌 그래 이 에미가 왔다는 기별 못들었니?

철민; 왜 못들었겠어요. 기사장동지가 내려가라는 걸 일이 좀 바빠서…

명순; 네가 무슨 일을 크게 한다구… (준필에게) 이 애가 내 아들이라우. 건설사업소에서

너희들의 일을 도와주러 온다는 연공아저씨다.

철민; 그럼 오늘 8호탑때문에…?

준필; 예…

명순; 아니 넌 무슨 인사가 그러냐. 저희들의 일을 도와주러 왔다는데두.

준필; (철민을 대견스레 보다가) 아들이 아주 든든하게 생겼습시다.

명순; 예, 작아도 고추알이라우. 호호… 군대에 있을 때는 포조준수를 하면서 단단히 한몫을 했다우. 그런데 여기 와서는 심부름이나 한다구 가슴을 뻑뻑 허비지우.

준필; 그럼 제대되여왔어두 한몫 단단히 해야지, 젊은이 안그렇나!

철민; 말두 마십시오. 개밥에 도토리입니다.

준필; 허. 일자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게로군.

철민; ………

준필; 저기 기사장동지랑 보이는것 같은데 전 올라가보겠습니다. (탑쪽으로 나간다.)

철민; (의자를 펼쳐주며) 어머니두 참. 이 가파로운데 올라올게 뭐예요. 내가 내려가겠는데…

명순; 어쩐지 한시가 바쁘더구나.

철민; 어머니, 저 탑이 68미터래요.

명순; (쳐다보며) 높기두 하지… 쳐다만 봐도 어줄어줄하구나.

철민; 어머니, 저 탑만 오늘 부하시험을 하면래일부터 삭도를 막 돌리게 돼요. 그럼 저기 선광장까지 이 삭도로 광석을 광광 나르게 되거던요.

명순; 원 너석두, 누가 그런 이야기를 듣겠더냐. 그래 넌 기사장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못들었니?

철민; 네, 들었어요.

명순; 너의 지배인두 사람이 좋더구나.

철민; 아니, 그럼 어머니가 지배인동지까지 만났어요.

명순; 내가 일부러 만났겠니, 기사장실에 있는데 마침 들어오셨더구나, 그래서 렴치불문하구 네 이야기를 했다.

철민; 어머니두 참, 그런 개인문제를 가지구…

명순; 그런 말을 지배인에게 하질 않구 그럼 누구에게 하겠니.

철민; 그래 지배인동지가 뭐라구 합디까?

명순; 지금은 초시기니 그렇지 이제 한몫 할 때가 있을거다구 여간 대견해하시지 않더구나. 그래두 내가 하두 딱해하니까 좀 토론해보겠다구 하긴 했는데…

철민; 보세요. 지배인동지두 우리가 이제 한몫 할 것이라고 얼마나 믿고있어요. 그런데 기사장동진 나를 그저 어린애로만 생각하구…

**명순;** 그런 말 말어라. 생전에 너의 아버지 친구 들치구 어디 기사장만한 사람이 있니. 네 아버지가 전후에 공장복구를 하다가 놈들의 불발탄에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 비보를 받구 그 먼 출장길에서 그 밤중에 달려와 얼마나 가슴아파 울었다구...

**철민;** 어머니는 또 그 이야기를 하세요.

**명순;** 이번에 한달강습을 나올 때도 허리병에는 개미술이 좋다구 하면서 그걸 글썽 들고와 제손으로 술잔에 따라서 내가 입에 대는 걸 보구야 끝내 자리를 뜨지 않겠니. 그래 너희들은 이 어미 허리병이 있다구 말로나 걱정했지 좋은 한약 한첩 달여서 먹여 준 일있니?

**철민;** 아, 그런거야 내가 이제 앞으로 어련할라구요.

**명순;** 듣기 싫다!... 출장 나왔다가도 집에 들러서는 이렇게 사람의 집에 사람이 그리워서야 되겠냐구 하면서 그리도 기사장이 말 한 마디 해도 눈물나게 해주더라.

**철민;** ...(부루퉁해 앉아있다.)

**명순;** 예구 그 속통이 언제면 고쳐지겠니. (가방에서 사진 한장을 꺼낸다.) 이 사진이나 구경해라.

**철민;** 이게 웬 처녀니까?

**명순;** 우리 인민반장 시누이다. 진료소 준의인데 주사도 잘 놓구 마음씨는 얼마나 곱다구.

**철민;** (사진을 받아쥐고) 준의요...? (시답지 않게) 우리 광산 처녀들보다 더 잘생긴것 같지 않구만요.

**명순;** 거 눈새 입새랑 좀 보려마, 얼마나 처녀답게 생겼나.

**철민;** 어머니, 이 처녀 키가 좀 작지 않아요?

**명순;** 키? 응 키는 좀 작더라... 키나 쟁충하게 커서 뭘하겠니.

**철민;** 글썽 목이랑 발은게 어쩐지... 어머니, 녀자들은 목이랑 쑥 빠져야 해요.

**명순;** 원 녀석두, 와새모가지처럼 목이나 길어서 항아리안의 고깃 잡아먹겠니. 그저 녀자들 이란 든든하게 생기구 직업이 좋아야 하느니라. 진료소 준의가 어디냐?

**철민;** 어머니두 참, 같은 값이면 진료소 준의보다도 병원의사나 기사가 더 낫지요. 난 이제 좀 더 있다가 기사쯤 얻어보자는겁니다.

**명순;** 어이구 눈은 높아가지구 찌찌...  
△ 이때 광현, 윤옥, 준필, 모두 들어온다.  
△ 철민 광현이를 보자 슬금슬금 피해나간다.

**광현;** 아니, 여기까지 올라왔소?

**명순;** 목이 빠지게 올려다보아야 어디 내려와야지요. 바쁜놈이 우물 판다구... 마침 저 아주버니가 올라오더라니 따라왔지요.

**광현;** 괜히 아들 보구싶으니까. 하하... 참 (윤옥에게) 기사동무, 인사를 하오. 철민동무의 어머니요. (명순에게) 우리 기술과 설계기사동무입니다.

**윤옥;** 어머니, 오시기 수고하셨습니다. (깁듯이 인사한다.)

**명순;** 체네기사로구만... 수골 하누만. (윤옥이를 쇠쇠 훑어본다.)  
△ 윤옥 당황해한다.

**광현;** 왜 남의 처녀를 그렇게 넘겨다보시우. 그래 마음이 있수?

**명순;** 기사장아주버니두 참, 우리에게겐 처녀가 없는줄 아시 우?  
△ 모두들 즐겁게 웃는다.

**윤옥;** (당황해하며) 저... 전 7호탑의 활차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구 오겠습니다.

**광현;** 그렇게 하오.

**윤옥;** 어머니 그럼...(고개숙이고 나간다.)

**광현;** 그래 어떻게 하기로 했수?

**명순;** 병어리속은 제에미도 모른다더니 어디 속 씨원히 말이나 하우.

**광현;** 아주머니, 소뿔은 단김에 빼랬다구 오늘중으로 수숙을 하도록 로임파에 지시하겠으니 끝구 내려가십시오.

**명순;** 네, 고맙습다.

**광현;** 허, 무슨 인사가 그렇습니까. 내 지금껏 잘 도와주지 못해서 이모저모 미안한게 더 많은데.

**명순;** 그런 말씀 마시우... 그런데 이 애는 도대체 어딜 갔수?

**광현;** (일어나 두루 살펴본다.) 응, 저기 소나무밑에 앉아있구만. (그쪽을 향해) 철민이, 이리 좀 오라구.

**명순;** 예구, 그저 속만 살아가지구. (허를 찬다.)  
△ 철민 무거운 생각으로 등장.

**광현;** 이사람아, 어머니와 같이 빨리 내려가라구.

**철민;** 기사장동지, 저를 생각해 주는건 좋지만.

**광현;** (책상을 가볍게 치면서) 또... 또... 쓸데없는 고집을 쓴다니까.

**철민;** 기사장동지, 저의 마음을 좀 리해해주십시오. 네, 내 여기서 삭도탑 하나 제대로 오르지 못해 일군들에게 걱정시키는 주제에 다른데에 간들 또 제구실을 변변히 해낼것 같습니까.

**명순;** 어떻게 늘 앞서기만 하겠니,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광현;** 앞서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러나 생활이란 욕망대로 되는게 아니야. 글썽, 이사람이 찍하면 제마음대로 삭도탑에 오르는 연습을 한다가에 내 오늘도 욕즘 했습다. 그게 뭐 사닥다리 올라가듯 되는 일입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건설사업소 연공까지 가져다 쓰겠습니까.

**명순;** 제마음대로 탑에 쭉쭉 올라가다가 어쩔려구.

**광현;** 그래서 나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 기업소안에서래두 직종을 당장 조절해줄가 하다가 아무래도 며칠 있으면 어머니에게 가야 할 사람인데 하구 제가 하겠다는대로 놔뒀지요.

**명순;** 보려마. 그저 남의 속은 알지도 못하고 찌찌찌...

**광현;** 고집이 세기루 하늘소 뒤통같다니까요. 하하...

**철민;** 어머니, 정 몸이 아프시면 형님네 집에 몇해 올라가계십시오. 그동안 여기 개발지에도 생활이 꽃피겠지요. 그때 어머니! 나하구 함께 와 살면 되지 않아요.

**명순;** 뭐라구? 너는 이 예미의 속을 다 모른다. 너의 형님이 내려와 무슨 소리인들 안했겠니. 그래두 제대되여와서 제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가까이에서 의젓이 일이나 하는걸 보면야 남들 보기두 그렇구 내 마음인들 오죽이나 좋겠니.

**광현;** 그럼요, 이사람아, 어머니는 자네가 제대되여오면 때묻은 고향땅에서 제살림이나 퍼는걸 보겠다구 얼마나 학수고대했는지 알기나 하나. 그러니 옛날부터 내리사랑은 있어도 올리사랑은 없다구 했지요.

**철민;** 어머니, 아버지의 손때묻은 공장가까이 가서만 일해야 한단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가서 제구실을 못한다면 남들이 더 손가락질을 할게 아닙니까. 어머니, 섭섭히 생각지 말구 내려가십시오, 난 정말 속에서 불이 막 나서 죽겠어요.

**명순;** (섭섭해하며 가방을 들고 일어선다.) 네가 정 그렇다면야 할수 없지. (허리에 손을 짚으며) 어이구 내가 여기까지 괜히 왔지. (가려고 한다.)

**광현;** 남들 보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들 구오예!

**명순;** 복잡할게 별루 없지요. 내 한사람 아무말없이 돌아가면 되는건데. (밖으로 나간다.)

**광현;** 아주머니! 아주머니! 얘, 어머니를 빨리 불러라.

**철민;** .....

**광현;** 음, 철딱서니가 없다구야. (급히 나간다.)

△ 철민 깊은 생각에 잠겨 고민한다.

△ 음악이 흐른다.

△ 그의 심중의 목소리로 설화가 울린다.

**설화;** 《어떻게 할것인가...?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가야 한단말인가... 만약 내가 그렇게 한

다면 뒤날 이곳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지도 못할것이다. 그렇게 필요치 않았던 사람을 누가 기억해두겠는가. 아 내가 군대에서 조준수로 있을 때와 같이 나를 진정 필요한 존재로 붙잡아두고싶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사람도 없단말인가.

자기가 선 초소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존재로 된다는것은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렇다면 나는... 나는...?》

△ 철민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나며 높이 솟은 철탑을 쳐다본다.

철민은 모대기며 철탑기둥을 휘어잡는다.

△ 윤옥이가 달려들어온다.

**윤옥;** (피로와하는 철민을 보고) 철민동무, 저기 내려가시는게 어머니가 아니세요. 예, 왜 어머니를 혼자 가시게 하나요?

**철민;** 윤옥동무, 동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응! 그럼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윤옥;** 철민동무... 난 이런 때 동무를 붙잡고싶진 않아요.

**철민;** 뭐요, 그러니까 동무도 내가 가는데 찬성이란말이지... 응?!

**윤옥;** 철민동무는 아직 어머니의 그 마음을 다 모르고있는것만 같아요. 그 먼곳에서 여기까지 동무를 찾아오신 어머니의 마음도 리해해드려야 하질 않아요.

**철민;** 그러니까 동무두... 동무두...?!

**윤옥;** .....

**철민;** 그게 진정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요? 나는 동무만은 믿었소... 동무만은 내 마음의 모두를 알아주리라고 믿었던말이요. 우리 함께 이 첫개발지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자구 약속했구. 이제 여기에도 공장대학이 생기면 그때엔 내가 바로 첫 공장대학생이 되여야 한다구 동무는 얼마나 절절히 호소했나 말이요.... 나는 그 약속을 잊을수 없소... 절대루... 그런데 나를 보고 어머니와 함께 가라구... 그게 정말 동무의 심장의 웨침인가말이요? 응... 왜 말이 없소.

**윤옥;** 철민동무... 그럼 뭐라구 말하란말이예요... (흐느낀다.)

△ 이때 탑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 윤옥 눈물을 거두고 명순이가 내리간쪽을 지켜보고 섰다.

**윤옥;** 제가 어머니에게 가서 리해시키겠어요. (달려나간다.)

**철민;** 윤옥동무!

△ 준필, 소대장, 노동자 탑쪽에서 내려온다.

**소대장;** 한대 피우구 8호탑을 마저 해치웁시다.

**준필;** 그렇게 합시다.

△ 노동자 정반에 파자, 살구, 사이다를 적당히

담아가지고 온다.

**로동자;** 어서 들라구. 기사장동무가 자네들이 수고 한다구 일부러 조직해서 가져온거라우.

**준필;** 허, 이거 별루 하는 일도 없이.

**소대장;** 자, 어서 들시다.

△ 소대장은 자기가 먼저 쥐고 쟁반을 준필이 앞에 당겨놓는다.

**준필;** (우두키니 탑아래 서있는 철민에게) 여보게 쭤은이, 여기 오라구, 사이다두 있네.

**소대장;** 철민동무!

**철민;** (엳서며) 그만두겠습니다. 여기서 신선한 공기나 마시지우.

**소대장;** 하하... 기사장동무한테 욕을 좀 먹더니 아직 내려가지 않는게로군.

**로동자;** 그런게 아니라 내가 아까 괜한 소리를 좀해놔서... 원 처녀에들처럼 비쭈거리기는... (팔소매를 당긴다.)

**철민;** 싫습니다. 그런걸 먹지 않아도 내가 이제 저 탑에 한번 오르는걸 보시우.

△ 이때 기사장이 황급히 들어온다.

△ 철민 광현이를 힐끔 쳐다보고는 《주작안내력》을 안고 나간다.

**준필;** 기사장동지. 우린 먼저 시작했습니다.

**광현;** 어서 들라구. (전화기앞에 와서 수화기부터 든다.) 로임과장에게 주오... 과장동무요. 내 기사장이요. 거 삭도직장 연공소대에 김철민이라구 있지... 뽕소 제대군인말이요.... 그동무 수속문제 어떻게 됐소... 아 그거야 우리가 토론된 문제가 있지 않소. 뽕소, 우리가 그 동무를 광산기계공장에 보내주는 대신 연공 한사람 달라구 하자구 하질 않았소... 내 기계공장 지배인하구는 잘 아는 사이니까 우리 사람을 그냥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실무적인 문제야 동무네가 뒤에서 처리해야지... 그래 끝결한 제대군인로력을 우리가 공짜로 줘서야 되겠소? 그대신 그쪽에서도 여기 집이 있어서 오겠다는 6급기능공 연공 한사람 있다니까 그 사람을 줘야겠다고 잡아떼라는데두... 여보, 우리야 지금 개발광산인데 기능공 욕심이야 동무네가 더 신경을 써야지... 쯤소. 오늘중으로 철민동무의 수속은 빨리 끝내도록 하오. (수화기 놓고 준필에게 가까이 가서 앉는다.) 많이 먹소. 동무때문에 가져온건데.

**준필;** 많이 먹었습니다. 기사장동지... 그 좋은 제대군인을 왜 내놓습니까?

**광현;** 사실은 그 동무의 집사정이 좀 곤란해서... 그 동무를 내놓는 대신 우린 그 기업소에 서 6급공 연공 한사람을 떼오려구 하오.

**준필;** 음... 로력교체구만요.

**광현;** 허허... 솔직히 말하면 동무도 오늘 우리에

게 거저 온게 아니란말이요.

**준필;** 네?!

**광현;** 동무네 기사장이 말 안함데? 그 욕심쟁이 좀보지. 우리 사람을 이틀씩이나 가져다쓰면서 모르는체 하는걸.

**준필;** 그러니까 나도 역시 일대 일이구만요.

**광현;** 일대 일이나 삼대 칠이나 뭐 동무들이야 상관있소. 허허... 더 들라는데두.

**준필;** (불쾌한 기분으로 말없이 담배를 꺼내문다.)

**소대장;** 기사장동지, 제격 8호탑을 해치우지 않겠습니까!

**광현;** 그렇게 하자구.

△ 소대장과 준필 탑에 오를 차비를 한다.

△ 이때 철민이 탑에 오를 차비를 하고 메고 나갔던 《주작안내력》을 조립해가지고 탑밀에 간다.

**준필;** (탁아서면서) 그걸 주오. 내가 메고 올라가겠소.

**철민;** 걱정 마십시오. 나도 자신있습니다.

**광현;** (탑밀으로 가는 철민에게) 넌 뭐야?

**철민;** 이걸 달자면 사람이 더 올라가야 되질 않습니까! 저도 한번 올라가봅시다!

**광현;** 뭐라구? 이게 어딘줄 알아.

**소대장;** 철민동무, 지금 올라가도 사람 불을 자리가 없소. 기사장동지! 제가 먼저 올라가 할 차상태를 검열하겠으니 수동으로 몇바퀴 돌려주십시오.

**광현;** 음.

**소대장;** 그럼 제가 먼저 올라가보고 신호한 다음에 올라오십시오.

**준필;** 그렇게 하지요.

△ 소대장 능란한 솜씨로 탑에 오른다.

**철민;** (주작안내력을 어깨에 멘채로 광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윤옥기사동무가 그러는데 8호탑은 경사각도가 심해서 이걸 달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광현;** 넌 뭘 안다고 자꾸 나서면서 그래... 그건 달지 않아도 일없어.

△ 철민 참을수 없는듯 휴계실쪽에 내려가 《주작안내력》을 소리나게 메친다. 그바람에 책상우 물고뿌까지 떨어진다.

**광현;** (쏘아보면서) 오늘 왜 저래! 정 할일이 없으면 여기 와서 안전바줄이나 쥐여주라구.

△ 철민 말없이 올라와 안전바줄을 으스러지게 들어친다.

△ 광현 손으로 해빛을 가리우며 탑을 쳐다본다.

**광현;** (대공전화를 하려다가) 가만있자, 여기서는 해가 비쳐 잘 보이지 않는군.

△ 그는 대공전화로 원동소를 호출하며 나간

다.

△ 이윽고 삭도가 다시 움직인다.

준필; (담배를 꺼내어 한대 물고 담배갑을 철민에게 내민다.) 젊은이, 한대 피우자구.

철민; (무뚝뚝하게) 전 피울줄 모릅니다.

준필; (하는수 없이 담배를 피워물며) 성격이 보통이 아니로구만.

철민; 그런 배짱도 없이야 어찌겠습니까.

준필; 하하... 그렇단말이지. 여보게, 알고보니 동무나 내나 같은 처지로구만.

철민; ...?

준필; 이젠 뭐 여기서 사람은 보는 관점이 글렀단말이야. 척척 장기쪽 쥐여웁기듯하면서...

철민; 누가 뭐라고 합니까?

준필; 알고보니 내가 오늘 동무네 기업소 용접공하구 일대 일로 바뀌여왔단말이야. 허참.

철민; 아니 사람이 바뀌여오다니요?

준필; 그렇게 됐소. 하하... 솔직히 말하면 내야 오늘 하루 일하다 가면 되는거지만 동무야 초소에서 오래동안 단련된 제대군인인데 뭐가 부족해 그렇게 가겠소?

철민; 아니 나두요?! 누가 그럼디까 예! 누가요! (소리친다.)

준필; 음...! 그러니까 동무에게는 아직 이야길 해주지 않았구만. 내 이제 기사장동지가 동무네 로임과장에게 전화하는 소릴 들었는데 사실 6급공 연공이라는게 별사람이 아니요. 나도 6급공인데 처음에는 3메터짜리 풀장목 하나 비끄러멜줄 몰라 벌벌 기었소.

철민; 그러니까 내가 6급공 연공하구 바뀌여간단 말이지요... 아저씨, 난 절대로 그렇게 갈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구실을 하기전에는 한 걸음도 이 초소를 들수 없습니다.

준필; 힘을 내라구... 연공이라는게야 이 심장이 크면야 장수힘이 저절로 솟구 발에두 날개가 돋는다니까...

철민; 알겠습니다... 난 그런것두 모르구 아저씨만 괜히 고깝게 생각하구... 정말 안됐습니다.

준필; 원 별소릴 다 하는군.

△ 철민은 그 어떤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안전바줄만 으스러지게 틀어잡고있다.

△ 이때 광현, 명순, 윤옥이가 탐밀으로 올라오고있다. 윤옥은 명순이의 가방을 들고 그의 손을 이끌고 들어온다.

광현; 아주머니, 올라왔던바에야 삭도가 돌아가는 걸 구경하고 가야지 언제 다시한번 오겠습니까.

△ 윤옥은 접철식의자를 명순에게 펼쳐준다.

윤옥; 어머니, 여기가 선선하구 삭도도 잘 보여요...

명순; 그래... 예규 (윤옥이를 탐스럽게 쳐다본다.) 아니, 그런데 저 애는 왜 저렇게 바줄을 감아쥐구 섰수. (철민을 보고 의아해한다.)

광현; 그게 안전바줄이라는거우다. 교예단에서두 조수들이 밑에서 안전줄을 단단히 쥐여줘야 배우들이 공중에서 마음대로 날구뛰지 않습니다까. 하하... (탐밀으로 간다.)

명순; 예. (심상치 않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혼자 소리로) 그러니 그 성미에 노란자위노릇을 못하구 저렇게 결가지구실을 하니 제 심사가 편할리 없을테지?

윤옥;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 철민동무는 꼭 훌륭한 연공이 될거예요. 제대군인들속에서도 철민동무의 결심이 여간 아니거든요.

명순; 그래... 체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나...

윤옥; 저... 우린... 같은 함숙생이거든요.

명순; 그래... (윤옥을 쇄죄 본다.)

윤옥; 어머니, 저 여기에 좀 앉아 구경하십시오. 전 삭도가 돌면 쌍안경으로 탐의 유동상태를 봐야 해요.

명순; 그래...

△ 윤옥 쌍안경을 들고 탐쪽으로 나간다.

광현; (탐을 올라다보다가) 한 30분 자동반으로 돌려볼가.

소리; 그렇게 합시다.

광현; (대공전화기를 들고) 원동소...! 원동소, 자동으로 한 30분 돌리시오.

소리; 알겠습니다.

△ 이윽고 삭도가 돌아가는 소리.

광현; 아주머니 어떻게습니까.

명순; 어이구 높기두 해라. 그런데 저 아저씨는 무섭지도 않는게지. 기계다리처럼 딱 뻗치구 서서.

광현; 저 사람들이 우리 광산의 보배지요. 난 저런 사람을 보통사람 열하구두 안바꾸겠다니까요 하하...

준필; 기사장동지, 난 별루 할일이 없는것 같구만요.

광현; 하, 왜 없겠소. 이제 한 30분만 부하운전시험을 하구 저 너절할 발판이란 다 철수해야겠는데.

준필; 내가 뭐 저런 뒤거뎅이나 해주려고 왔습니까, 전 가보겠습니다.

광현; 여보, 동무, 그런 법이 어디 있소. 우린 뭐 할일이 없어 동무네 기업소일을 해준줄아오?

준필; 기사장동지, 사람을 그렇게 물건다루듯하면 안되지요.

광현; 뭐요? 아니 동무! 그건 어떻게 보구 하는

소리요 엉?

△ 말없이 안전띠를 풀어놓고 나간다.

준필; (로동자에게) 아바이, 이거 안됐습니다.

로동자; 이사람아…!

광현; 별 싱거운 사람 다 봤군…!

△ 삭도가 돌아가는 소리 더욱 요란하다.

광현; (다시 대공전화기를 들고) 원동소! 원동기 상태는 어땠소? 좋다구… 그럼 만부하로 돌리시오.

△ 이때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광현; 이게 웬소리요, 아니 저기 저 삭도바가지가 왜 저래…? (다시 대공전화기를 들고) 원동소…! 원동소, 빨리 삭도를 세우시오. 세우라는데두.

△ 이윽고 갑자기 삭도가 멎는 앙칼진 소리.

광현; 제길 어떻게 된 일ियो.(삭도를 쳐다본다.)

소리; 기사장동지, 탈선입니다.

광현; 뭐 탈선?!

윤옥; (급히 달려들어오며) 기사장동지, 삭도바가지들이 탑상부로부터 내려쫓리는 순간 다른 탑에서보다 유동상태가 대단히 심합니다.

광현; (탑을 쳐다보며) 어떻게 됐소!

소리; 아무래도 탈선복구부터 먼저 해야겠는데 건설사업소 연공동무에게 지레대를 쥐여 빨리 올려보내주십시오. 둘이서 뜨면 탈선복구는 인차 할수 있습니다.

광현; 그 친군 없소!

소리; 아니, 없다니요.

광현; 다 제밥 먹고 자랐다고 말을 듣소? 갔소.

로동자; 이거 야단났군. 아무래도 혼자서는 안되겠는데…

윤옥; 기사장동지, 제가 가서 데리고오겠습니다.

광현; 놔두시오!

로동자; (윤옥에게) 어서 갔다오라구.

△ 윤옥 탑아래로 달려내려간다.

△ 광현이 대공전화기를 놓고 준필이가 벗어놓고간 안전띠를 친다.

로동자; 기사장동무, 안되오. 저기가 어디라구.

광현; 일없습니다.

명순; 아주버니, 젊었을 때하구 달라요. 그만두시우.

△ 이때 안전바줄을 쥐고 탑밑에 섰던 철민이가 언덕우에 올라선다.

철민;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광현; 뭐? (말없이 밀어제끼며 자기가 준비한다.)

철민; (광현이의 손에서 안전띠를 나누채면서) 왜 이래요, 내가 올라가겠다는데두요.

명순; 애야, 너 무슨 본때냐 엉?

광현; 복잡하게 놀지 말구 어머니나 모시구 내려가!

철민; 갈 때는 가더라도 내 저 꼭대기에 한번 올라가보구야 가겠습니다.

광현; 운동장 철봉대인줄 아니? 괜히 나라에서 6급공 7급공을 만들어놓은줄 아는게군, 비켜!

철민; 못비키겠어요.

광현; 뭐라구…? 건방지게…

명순; 애 철민아…! (팔소매를 쥐여당긴다.)

△ 이때 윤옥이와 함께 들어온 준필이 광경을 한쪽에서 지켜보고있다.

철민; 전 기사장동지가 절 무엇때문에 그렇게 쉽게 보내주는지도 압니다. 저같은건 필요없는 존재로 여기기때문이겠지요?

광현; 뭐라구, 이 애가 제정신이 있소?

철민; 전 결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 밀려다니기 싫습니다. 그리고 기사장동지의 사람 보는 그 낯은 관점의 희생물로는 결코 될수 없습니다.(탑으로 오르려 한다.)

광현; (잡아내리며) 비켜! 이 배은망덕한너석! (자기가 오르려고 한다.)

철민; (막아서며) 기사장동진 탑으로 오를 자격이 없습니다.

광현; 뭐가 어째?

철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줄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자신의 힘을 믿을수 있다고 봅니까? 기사장동진 올라가다가 떨어질수도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동자에게) 아바이, 안전바줄을 잡아주십시오. (안전띠를 단단히 조인다.)

명순; (달려들어 철민이의 팔소매를 기어이 잡아당기며) 이너석아, 네가 감히 누구알이라고 함부로… 응! 올라 못간다. 내가 반대다. 내가! (앞가슴으로 막아선다.)

△ 이 광경을 더는 목격할수 없는듯 준필이가 뛰어든다.

준필; 아주머니!

△ 일동 놀라며 준필이를 쳐다본다.

로동자; 이사람이 왔구만 응! 여보게, 빨리 좀 도와달라구 응!

준필; 아바이, 알겠습니다. (명순에게 다가서며) 아주머니, 제가 데리구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6급공이 올라가지 못하는데두 더 높이 올라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보게, 함께 올라가자구!

철민; 아저씨…! (뜨거운 걱정을 삼킨다.)

명순; 철민아…!

철민; 어머니! (다정히 바라보며) 걱정 마세요.

명순; …기사장어른… (안타까이 바라본다.)

광현; 놔두시우… 모두들 제멋대로 놀게 놔두라구요. (휴게실에 내려와 쓰거운듯 담배를

피운다.)

준필; 아주머니, 너무 걱정 마시우. 보아하니 펄펄 날겠슈다.

△ 준필이도 벽에 걸린 새 안전띠를 띤다.

철민; (가슴조이고 서있는 윤옥에게) 윤옥동무, 《주작안내력》을 내게 주오.

윤옥; 옛…?!

△ 윤옥은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자책감으로 몸둘바를 모르고 섰다.

철민; 윤옥동무, 이 《주작안내력》은 우리 노동자들의 의견을 받고 동무가 직접 창안한것이 아니요. 이게 바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가치없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것이요.… 이게 있어야 삭도가 앞으로 탈선되지 않는단말이요.

윤옥; 그거야 물론…

△ 광현은 더 참을수 없는듯 담배꽁초를 쥐어 버리고 밖으로 나간다.

△ 윤옥은 《주작안내력》을 가져다 철민의 잔등에 꽂꽂 지어준다.

윤옥; (뜨거운 걱정을 누르며 조용히) 철민동무, 꼭 부탁해요… 조심하세요…

철민; 알겠소.(탑 밑에 가 선다.)

준필; 자, 앞서게 젊은이, 내 어깨를 딛구 탑에 오르라구.

△ 철민은 준필의 어깨를 힘있게 딛고 사다리에 붙는다. 그뒤로 준필이 닝큼 사다리에 달려오른다.

명순; (소리친다.) 애야, 단단히 정신차려라.

철민; 어머니, 알겠어요. (손을 높이 든다.)

△ 윤옥 가슴조이고 서있는 명순에게 가까이 온다.

윤옥;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철민동무는 꼭 오를거예요. 제가 밑에서 바줄을 쥐여주고 저기 중간팔판까지는 두번이나 올라가봤어요.

명순; 그래… 그렇단말이지… 그래두 얼마나 무섭겠냐?

윤옥; (쌍안경을 벗어 들고 탑을 쳐다보고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이 어려있다.) 어머니, 철민동무가 지금 웃고있어요. 지금 막 웃으면서… (눈물을 찍어낸다.)

명순; 그래? 그게 그렇게 잘 보이느냐?

△ 윤옥 쌍안경을 명순의 목에 걸어주면서 시력계를 조절해준다.

윤옥; 어머니 보이지요!

명순; 오냐, 보이는구나… 녀석두… (대견해서 눈물을 닦는다.)

△ 광현 무대 한쪽에 들어와 탑을 무거운 생각으로 바라보고 섰다가 무슨 용단을 내린듯 자기도 휴게실벽에서 안전띠를 벗겨 띠고

나선다.

명순; 아니… 아주머니… 그만두시우.

윤옥; 기사장동지…!

광현; 일없소…!

△ 광현 묵묵히 탑에 오른다.

△ 이윽고 무대에는 안개에 휩싸인다. 음악과 함께 배경이 움직이면 뒤무대에 구름이 휘감긴 8호탑의 상부가 자태를 나타낸다. 《주작안내력》을 달고있는 철민의 모습이 보인다. 광현이도 그의 옆에서 함께 작업을 하고있다.

△ 방창이 울리고있다.

흰구름 흘러가는 철탑우에서  
청춘의 억센 날개 펼쳐가리라  
수령님 위하여 당을 위하여  
한평생 값높은 삶을 빛내리

아, 이보다 더 큰 행복 어디 있으랴  
이보다 더 큰 영에 나는 몰라라

△ 무대를 휩쌌던 구름이 걷히면 전과 같은 장소이다. 조금 움직여 탑의 밑부분은 보이지 않고 그대신 뒤무대에 높이 솟은 탑체의 일부가 보인다.

△ 탑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 모두들 그들을 마중하며 달려간다.

△ 이윽고 철민이가 땀을 씻으며 들어온다.

철민; 어머니…!

명순; 철민아, 네가 끝내… 그래 어디 상한데는 없느냐?

철민; 일없어요 어머니.

명순; 용타 녀석두 (대견히 바라보며 눈굽을 훔친다.)

철민; (윤옥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윤옥동무, 《주작안내력》을 단단히 피였소. 이젠 삭도가 아주 안전하단말이요.

윤옥; 철민동무, 고마와요… (뜨거운 눈길을 보낸다.)

△ 윤옥 쟁반에 사이다와 살구를 가져다놓고 쌍안경을 쥐고 나간다.

철민; (의자를 당겨주며) 어머니, 여기 좀 앉으세요… 그래 내가 일하는걸 다 봤어요?

명순; 보구말구, 저 망원경을 대니 눈앞에 보는것 같더구나.

철민; 그래요. (사이다를 따라 어머니에게 내민다.)

명순; 너나 먹어라.…”

철민; 어머니, 내가 저 높은 탑우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명순; 그거야 나를 어떻게 하면 되돌려보낼가 하

구 생각했겠지. 맞았나?

**철민;** 허허... 하긴 비슷이 맞았어요.

**명순;** (서운한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원, 너석두... 그러구보니 내가 제생각만 했단말이구나.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서...

**철민;** 노엽게 생각지 마세요. 왜 제가 어머니의 그 심정을 모르겠어요. 전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받는것을 무척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허지만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제구실을 변변히 하지 못하는 아들을 한집안에 데리구 산다면 어머니의 마음인들 편하겠어요?

**명순;** 난 그저 자꾸 지나치게 생각해서 탈이야, 누가 너를 그렇게...

△ 이때 광현이 들어와 서성거리고있다.

△ 윤옥이도 들어온다.

**철민;** ... 아니예요. 아까 기사장동지가 탑에 오른 연공소대장동무를 보며 하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저런 사람은 보통사람 열을 주고도 바꿀수 없다구요. 그런데 내가 가는 문제를 두곤 어떤가말이에요. 난 이제 가슴 아파 그래요. 어머니...!

**명순;** 철민아...!

**철민;** 어머니도 아시지 않아요. 난 군대에 있을 때 기준포 조준수로서 모두들 얼마나 귀중히 여겼어요. 조준수가 없이는 포를 쏠수 없으니까요. 어머니,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집단에 없어서는 안될 그런 존재로 산다는게 얼마나 값높은 생활입니까. 그런데 난 지금...(피로운듯 입술을 깨문다.)

**명순;** (다정히 철민의 두손을 쓸어주면서) 철민아, 내가 미처 네 마음을 다 몰랐었구나... 내 너하구 집에 가잔 소리를 다시는 하지 않으마... (눈물을 감추지 못한다.)

**철민;** 어머니, 절 욕하지 않지요.

**명순;** 욕은 무슨 욕이겠느냐...?

**철민;** 내 이제 기사장동지한테서 개미술 만드는 방법이랑 다 배워가지구 어머니의 그 허리병을 내손으로 꼭 고쳐드리겠어요. 네 어머니...!

**명순;** (눈굽을 훔치며) 너석두...!

**광현;** (심한 자책으로 모대기다가) 인젠 그만들 하시우...

**명순;** 기사장아주버니야 이 애의 성미를 잘 알지우. 그저 철없는게 버릇없이 그랬거니 하구 다 잊어버리시우.

**광현;** 아니지요. 오늘 일이야 절대로 잊어서야 안되지요. 내가 생각해보니 사람에 대한 관점부터 글렀었슈다. 사람의 힘을 믿지 않았거던요. 새로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을

파소평가하구 그들을 내세워줄줄 몰랐슈다.

사실 기능만능주의에 빠져서 기능공들이나 가지구 일을 쉽게 해먹자는 리기주의도 없지 않아 있었구요. 아주머니, 내 아주머니를 위한체하면서도 저 사람을 보내주구 그자리에 기능 높은 연공을 빼다가 메꾸자는 나쁜 사상도 있었었슈다.... 철민동무! 나를 용서하라구!

**철민;** 기사장동지...!

**광현;** 아주머니, 철민이가 인제는 군대의 조준수 때처럼 제자리에 든든히 들어선것 같슈다. 이런 사람을 보내서야 안되지요.

**철민;** 기사장동지. 여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초소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높은 뜻을 받들어가며 자기 위치를 든든히 고수할것입니다.

**광현;** 아무렴, 그거야 그렇지 않구.

**명순;** (가방을 들고 일어서면서) 아주버니. 오늘 괜히 나때문에 안됐습니다.

**광현;** 무슨 말씀을...

**윤옥;** 어머니, (명순이의 가방을 자기가 쥐며) 오늘밤은 우리 합숙에서 저와 함께 쉽시다. 예, 어머니...!

**명순;** 그럴가...? 예구 아주버니두 우리 철민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서두 이런 처녀를 옆에 두구도 모르는체 하시구.

**철민;** 어머니두 참.

**광현;** 그래 정 마음에 드시우?

**명순;** 그럼요. 우리 철민이가 그러는데 처녀들이란 이렇게 목이랑 쪽 빠져야 좋다면서요. 호호...

**광현;** 옛? 그렇다면야... 윤옥동무 어평소.

**윤옥;** 아이참... 저는 몰라요. (광현이의 뒤에 숨는다.)

**광현;** 됐슈다, 나도 반대 없슈다.

△ 모두들 즐겁게 웃는다.

△ 이때 책상우에 놓여있는 대공전화기에서 《8호탑 8호탑》 하고 찾는다.

**광현;** 철민동무, 거 대공전화를 가져오오.

△ 철민 대공전화를 광현에게 가져다준다.

**광현;** 말하시오.

**소리;** 아직 멀었습니까!

**광현;** 왜 멀었겠소. 하하... (의미있게 웃으면서) 모든것이 다 깨끗이 결속됐소. 삭도를 만부하로 돌리시오!

**소리;** 알겠습니다.

△ 이윽고 삭도가 돌아가는 소리 더욱 빨라진다.

△ 준필, 소대장, 로동자도 모두 들어와 기쁨에 넘쳐 삭도를 하엿없이 바라보고 섰다.

**준필;** 기사장동지, 인제는 고장이 없을것 같습니



다. 가두 일없겠습니까.

**광현:** 준필동무, 동무가 오늘 내게 많은걸 깨우쳐줬네, 용서하라구.

**준필:** 기사장동지두 참, ...기사장동지, 저 제대군인동무를 단단히 붙잡아두십시오. 놓치면 안될 좋은 친구입니다.

**광현:** 왜 놓치겠나, 우리 광산의 조준수란말이야 조준수! 하... (심중한 어조로) 철민이, 여기도 병사가 서야 할 조준수의 위치야! 자기 초소에 굳건히 서주길 바란다.

**철민:** 기사장동지, 병사의 위치는 언제나 변함이 없을것입니다!

△ 삭도가 도는 소리 더욱 정답다.

△ 철민이 철탑을 높이 바라볼 때 방창이 흐른다.

구름우에 더 높이 탑은 솟아도  
저 하늘끝까지 나는 가리라  
보람찬 병사시절 그 영예 안고  
수령님 전사로 싸워가리라.

아, 여기는 나의 초소 내가 설 위치  
한평생 값높은 삶을 빛내리

△ 모두들 희망에 넘칠 때 막이 내린다.

## 날바다 20 리 파도우에

장호건

때맞춤 왔구나

들끓는 갑문건설착공식장이여  
내 머나먼 대륙의 어느 항에서  
전파로만 이 소식 들었다면  
그 얼마나 서운했으랴

수천의 건설자들과 함께  
첫삽을 박는 마음  
만리대양우에서  
내 산악같은 파도를 헤쳐나가던  
그 순간의 흥분에도 비길수 없구나

어버이수령님  
수평선 저 멀리 피도섬을 에돌아  
크고작은 만들을 친히 돌아보시며  
날바다 20리 파도우에  
휘황히 펼쳐주신 사랑의 설계도여!

안겨오누나,  
저 망망한 푸른 파도를 딛고  
장엄히 솟아오를 대갑문언제  
그 언제우로 기적소리도 높이  
서해의 갈매기들을 놀래우며  
아득히 내달릴 전기기관차의 모습...

들리는듯싶구나,  
풍치 더욱 아름다와질 대동강기슭

숲속에 날아예며 우짚을  
그 행복의 새소리들도...  
승어때 꼬리치는 맑은 강물우로  
환희에 넘쳐 오갈  
대형짐배들의 은은한 배고동소리도...

개간된 간석지 드넓은 벌엔  
물결치는 금나락  
서해의 푸른 파도와 키다툼하고  
록음속 새 거리, 새 유원지들은  
어서 오라 문 열고  
배길로 찾아오는 세상사람들을  
웃으며 다정히 맞아드리리

아, 그날을 그리며 한삽  
그날을 안아보며 또 한삽  
세계 갑문건설 력사우에  
로동당시대 기념비를 쌓아올리는  
한없는 공지여, 크나큰 환희여,

때맞춤 왔구나,  
내 구슬땀을 바쳐 빛내일수 있는  
위대한 어머니조국에!  
때맞춤 왔구나,  
은혜론 사랑의 해발아래  
먼 미래도 오늘에 꽃피우는  
더없이 행복한 이 시각에!

## 남조선에 류포된 아메리카니즘과 민족허무주의사상의 독소

박종식

### 1

오늘 미제국주의의 극악한 식민지통치와 그 주구 전두환역도의 군사과쏘통치밑에 짓밟혀있는 남조선에서는 온갖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부르조아 사상조류들이 널리 퍼져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정신세계를 병들게 하는 극히 해독적인 작용을 하고있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적침투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로서 해외침략의 길잡이로 되고있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부화타락하게 만들려고 교활하게 날뛰고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일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양키문화>와 왜색, 왜품이 판을 치고있으며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좀먹고있습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로서 《양키문화》의 침투와 파괴도당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문화정책》으로 인하여 널리 퍼지고있는 현대 반동적부르조아사상조류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통치와 군사과쏘통치를 합리화하고 숭미사대주의사상과 민족허무주의사상, 《반공》사상과 몽매주의사상, 비관주의와 퇴폐주의, 부화타락한 개인향락주의 등 온갖 반동사상을 퍼뜨림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는 커다란 해독적작용을 하고있다.

특히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화정책으로 인하여 남조선은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히 식민지로 전락되었을뿐아니라 미제와 전두환역도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인한 아메리카니즘의 침투와 민족허무주의사상의 만연으로 하여 오늘 남조선은 사상문화적으로도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굴러떨어졌다.

아메리카니즘의 침투와 민족허무주의사상독소의 만연-이것은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화정책과 친미주구이며 민족반역자 전두환역도의 민족문화말살정책의 주되는 내용으로 되고있다.

아메리카니즘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로서 해외침략의 길잡이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아메리카니즘은 그것이 항용 《양키이즘》 혹은 《양키문화》 혹은 《미국식생활양식》 혹은 《아메리카정신》으로 불리우고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엄밀한 의미의 《문화》라는 개념에는 해당될 수 없는것이다. 그것은 아메리카대륙의 원주민을 야수적으로 정복하고 략탈하며 학살하던 미국의 문화이전의 야성이며 동물적습성에 해당된다고 말할수 있다.

원래 미국에는 미국고유의 민족문화는 없는것이고 현재도 고상한 의미의 문화가 없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 인간적량심과 문화적식견있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메리카니즘의 본성은 20 세기 자본주의 사회가 남긴 가장 비인간적인것, 가장 추악한것의 대명사로 되고있는것이다.

악명높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까지도 《아메리카는 신이 조작한 실험중에도 가장 나쁜 실험이다.》라고 한 말이 결코 우연한 말이 아니다.

아메리카니즘의 본성은 20 세기 미국독점자본주의가 남긴 가장 추악한것의 본성, 비인간적인 부패와 타락의 본성이며 그것은 지구상에서 《문명한 야만》이라고 불리우는 그 《야만》의 본성이다.

미국의 한 건축학자가 아메리카니즘의 본원지-독점자본주의 미국을 가리켜 《미국문화를 창조함이 없이 야만으로, 인간퇴화로 이행한 역사에서 유일한 나라이다.》라고 지적한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메리카니즘의 본성적특징은 첫째로 동물적인 야성이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관계와 정신적가치를 유린하고 사람들을 동물로 환원시키려는 약육강식의 동물적습성을 반영하고 있기때문이다.

얼마전 미국 평론가의 한 사람은 《미국연극과 인간정신》이라는 글에서 미국의 현대생활을 반영하고있는 연극에 대하여 말하기를 《현대극에서 빈번한 주제들은 고독과 광친에 대한 반역과 근친상간, 정서적기아, 도피, 소년범죄, 동성애, 광포죄, 공포증, 색욕이상증, 인간분열증 등이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말은 아메리카니즘의 본성이 사회적인간의 본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동물적야성, 동물적본능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을 말한다. 아메리카니즘의 이러한 본성적특징은 헉스리, 스펜서 등의 생물학적세계관, 생물학적인관에 근원을 두고있다는것을 말하고있다. 그들의 학설은 인간이란 우주의 조그마한 부분에 기생하는 미생물에 지나지 않으며 그의 생명을 움직이게 하고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것은 맹목적인 생명의 《본능》이라고 보았다.

그렇기때문에 아메리카니즘은 사회적인간의 틀리도록적판계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생물학적인간, 동물적인간의 본능에 기초하고있는 약육강식의 제국주의적야수성의 본성인것이다.

맹수가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 그 야수성이 바로 아메리카니즘의 본성이며 여기로부터 20세기 미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이 흘러나오고 호전광증이 흘러나왔으며 인간학대, 인간중오사상이 흘러나온다.

이리하여 아메리카니즘은 우리 나라에서 6.25 전쟁을 도발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의 길안내자로 등장하여 인간학대, 인간중오사상의 직접적담당자로 야수성을 발휘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의 우리 인민에 대한 대량학살만행이 바로 그 표현이며 최근 미제의 직접적인 지휘와 조종밑에서 진행된 전두환역도의 광주인민대학살만행이 바로 그 표현의 일단이다.

아메리카니즘의 본성적특징은 둘째로 그것이 결코 인간의 정신적가치의 창조와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랍탈성과 파괴성에 있다는것이다.

미국식자유, 그것은 침략과 랍탈의 자유이며 타국의 문화와 전통을 파괴하고 유린말살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적고향이 없는 인간, 조국과 국적이 없는 인간들로 만드는 꼬쓰모렐리찌즘의 노예로 만든다.

아메리카니즘이 인간과 문화에 대한 횡포한 랍탈성과 파괴성을 사상적내용으로 하고있다는데 대하여 한 미국 건축학자는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있다.

《현대연극의 주인공들은 자기 망상과 자기 련민의 막다른 골목에서 발버둥거리며 절망적인 환상속에서 스스로를 끌고가며 사랑과 기아의 욕구로서 자기 주위의 모든것을 파괴하는 인간상을 반영하고있는것이다.》 자기 개인을 위하여 주위의 모든것을 파괴하는 주인공들의 원형이 바로 아메리카니즘에 물젖은 현대 미국인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으며 이런 정신문화적표현이 아메리카니즘인것이다.

아메리카니즘의 이 랍탈성과 파괴성은 몇년전 《아메리카문화》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뉴욕에서

하루밤에 약 세시간동안 정전이 되어 암흑천지가 되자 뉴욕거리는 랍탈과 파괴로 수라장이 되고말았다는 사실에서 현실로 증명되었다.

아메리카니즘의 이 랍탈성, 파괴성은 아메리카니즘의 《창시자》라고 불리우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어용철학자인 존듀이의 실용주의철학사상에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실용주의철학의 반동적본질은 미제국주의침략과 랍탈을 합리화하는데 있다.

실용주의철학은 인간이란 외부 주위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해나감으로써만 생명을 유지할수 있는 본능적인 생물학적유기체라고 주장하며 진리의 객관적합법칙성을 무시하면서 개인에게 《유리한것》, 《실용적인것》은 무엇이나 다 《진리》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를 자연에 순응하여서만 살아가는 동물의 수준에까지 끌어내리고 노예적굴종사상, 로자협조사상, 물질숭배사상, 부르조아적탐욕주의를 설교하고있다.

이러한 반동적인 실용주의철학은 미제국주의침략과 랍탈을 합리화하는 아메리카니즘의 사상적기초로 되고있는것이다.

얼마전 아메리카니즘의 선전원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한 사람은 《자유세계의 활로》라는 글에서 남조선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널려있는 양키군대를 가리켜 《우리의 생활양식을 보호해주는 방패》라고 지껄였는데 이것은 바로 아메리카니즘이 침략과 랍탈의 도구이라는것을 웅변이상의 사실로 말하여준다.

오늘 남조선에서 사회생활과 사상문화의 각 분야에 깊이 침투하고있는 미국식생활양식인 양풍, 색정주의, 썬주의 등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이 류포시킨 아메리카니즘의 직접적인 산물로서 랍탈성과 파괴성을 반영하고있다.

아메리카니즘의 본성적특징은 셋째로 물질숭배, 황금만능의 속물성과 인간우매화의 복고주의정신이다.

원래 아메리카니즘은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정복과 랍탈, 서부개척시대로부터 아메리카인들의 《개척정신》으로 표방되어왔으나 미국독점자본의 해외팽창, 미제국주의침략의 팽창으로부터 《팔라문화》라고도 속칭하여왔다. 이것은 아메리카니즘이 돈벌이사상과 물질숭배, 황금만능의 속물성을 그 사상정신적기저로 삼고있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아메리카니즘은 《팔라》로 세계를 지배하자는 사상정신적립장으로 부터 온갖 사기와 협잡, 기만, 배신 등 비량심적이고 비인간적인 속물성을 그 본성적특성으로 가지고있다.

아메리카니즘은 자기에게 유리한것, 유용한것, 리운을 주는것이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천》하고 《행동》한다는 속물적인 사

상이다.

여기로부터 온갖 모험주의와 개인리기주의, 패륜과 패덕, 자기본위의 향락주의가 흘러나온다.

미국의 작가 드라이저의 장편소설 《아메리카의 비극》은 가난한 그리스교신자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부모의 광신적이며 교조적신앙의 생활환경에서 벗어난 순진하고 정직한 소년, 크라이드(주인공)가 러판사환군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가지 직업으로 전전하는 과정에 일신의 향락과 치부와 출세를 위하여서는 그 어떤 악랄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미국식생활양식》에 점차 물젖어 돈 많고 권세있는 실업가의 딸과 결혼할 야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랑하던 애인 로버트까지도 호수에 빠뜨려 죽음으로 하여 마침내 사형언도까지 받는 비극적종말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순진한 농촌처녀 로버트의 죽음, 주인공인 크라이드의 타락과 비극은 이야말로 아메리카니즘의 희생물이라는것을 론증함으로써 순진한 인간성과 정직한 생활이란 용납되지 않는 미국식생활양식의 저열성과 속물성을 신랄하게 비판폭로하였다.

소설 《아메리카의 비극》은 아메리카니즘에 의한 20세기 미국의 비극이란것이다.

이상과 같은 특성을 가진 아메리카니즘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의 침략기구인 《주한미공보원》, 《주한미국제교류국》(ICA)에 의하여 남조선에 계통적으로 부식되고있으며 역대 괴뢰독재정권의 기만적인 민족문화의 《부흥》, 《창달》정책에 의하여 남조선의 모든 사회생활과 문화분야에 깊숙이 침투되어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가로막으려는 극악무도한 해독적작용을 감행하고있다.

이러한 아메리카니즘의 침습으로 인하여 오늘 남조선사회에서 그것이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해독적후과를 남기고있는데 대하여 남조선의 한 지식인은 《상점에 드나드는 상품으로부터 관습, 제도, 사상에 이르기까지 아메리카니즘은 우리 생활의 부분이 된것 같다.》라고 말하고 아래와 같이 개탄과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도의가 땅에 떨어져서 자식이 어머니를 총살하고 경숙한 부인이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댄스홀에서 란무하고 학생이 선생을 구타하고 사기와 모략이 처세술로 되고 자살은 새소식으로서의 가치를 잃어 버리고말았다.

…현대인은 어떻게 사는것이 올바른 삶인지 몰라서 방황하며 초조와 불안가운데서 허덕이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남조선에서 사회생활과 문화령역에 깊숙이 침투하여 우리 민족의 건전한 미풍량

속과 민족문화를 유린말살한 생활문화의 황무지 위에 아메리카니즘이 남겨놓은 추악한 후과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범죄가 횡행하고 란탈과 파괴, 패륜과 악덕, 부패와 부화, 관능과 색정을 노리는 제스, 만보, 트위스트, 차차차, 껍죽, 장발죽, 《허피》족 등등의 말세기적생활기풍이 란무하고있으며 지어는 악어가 등을 땅에 붙이고 발버둥치는 모양을 형용한 《악어춤》까지 유행되고있다.

이것은 아메리카니즘의 최후 발악상을 그대로 로출시킨것이다.

특히 이 《악어춤》은 민족의 백정 전두환역도가 미제침략자들의 부추김질에서 광주대학살만행을 감행한 이후에 나타난 춤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기에 광주사태직후에 남조선을 시찰하고 돌아간 미국기자 헨리 워트슨은 전두환파쑈독재를 녀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야유의 발언을 하였다.

《력대적으로 미국은 한국에서 미친개를 키워왔다. 이 미친개에 칼날이 가득 달린 목걸이를 걸어주고 사람들을 증오하도록 가르치고있다.》고...

미제의 가장 충실한 주구 전두환역도가 제놈의 목에 칼날이 가득 달린 아메리카니즘의 목도리를 두르고 지금 반미자주화투쟁과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탄압말살하려고 남조선의 거리와 마을을 싸다녀도 그 야수화하고 파쑈화한 아메리카니즘의 목도리에는 불이 붙은지가 이미 오래다.

부산, 광주, 춘천,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도처에서 타오르는 반미자주화투쟁의 불길속에서 조만간 아메리카니즘의 목도리와 함께 전두환매국역도도 타죽을것이란것은 불을 보듯이 명백하다.

## 2

남조선에서 아메리카니즘과 전두환역도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인한 악독한 후과는 특히 우리의 건전한 민족문화전통을 유린말살하고 민족허무주의사상독소를 류포시키고있는데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미제와 전두환역도가 민족문화말살정책을 추구하는 목적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영향아래 날로 장성강화되고있는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의식을 거세하고 미제의 침략도구인 아메리카니즘을 부식식킴으로써 남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제놈들의 무너져가는 파쑈독재체제를 부지해보자는데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미제에 의한 아메리카니즘의 침투와 괴뢰도당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인하여 숭미사대주의사상과 민족허무주의사상은 특히 남조선 문학예술인들속에서 널리 류포되고있다.

이것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언론계에서 영향력이 크고 사람들에게 대한 사상정신적감화력이 큰 문학예술의 특성을 악용하여 남조선을 미

제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의 악독한 후파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특히 남조선 문학예술인들속에서 류포되고있는 숭미사대주의사상과 민족허무주의사상을 반대하고 그들속에 민족주체의식을 높여주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것은 현 력사적단계에서, 반미자주화투쟁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사상을 반대하고 민족주체의식을 높이며 외세의존사상을 반대하고 자주자립의 사상을 선전하며 민족허무주의사상을 반대하고 조선인민의 애국적민족전통을 널리 선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민들속에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애국애족의 사상을 고취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더욱 용감하게 투쟁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에서 숭미사대주의사상을 선전하는 아메리카니즘의 침투와 미제와 그 주구들이 추구하는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전통을 말살하는 민족허무주의사상독소는 다음과 같은 각종 경향성으로 나타나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민족역사와 민족문화에 대한 완전한 허무주의적태도이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 남조선인민들속에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말살하는 온갖 민족허무주의사상독소를 류포시키고있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숭미사대주의사상을 적극 고취하고있다.

여기에 발맞추어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단체에서도 《전통의 결여》, 《문화유산의 황무지》 등과 같은 말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아무런 가치있는 문화유산을 남기지 못하였고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계승할만한 문화유산과 전통이 없다는 말들이 문학인들속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은 《신화가 없는 민족이며》 우리 민족은 《문화를 창조할 능력이 없고》 다만 남이 창조한 문화를 《향수》하여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력사가 있고 과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큰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전통을 무시할것을 제창하였고 《전통의 정체》 우리 민족은 력사와 문화의 창조에서 《민족적자아》를 소유하지 못하였다고 떠벌였다.

한 평론가는 《신화 없는 민족》에서 《한국에 신화가 없다는것은 한국의 민족이 그 민족적자아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외로운 증거이며 또한 내

적생활의 빈곤성과 무력성을 반증하는 서글픈 현상이다.》라고까지 공언하고있다. 그는 《4천년 이래 우리 민족사속에 일관하게 흘러온 문화전통은 없고 <민족문화>라고 부를수 있는 <용기>가 나는 문화전통은 현대문학발생이전에 단절되어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이것이 일찍부터 남조선부르조아반동사가들과 어용문학자들이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민족허무주의사상독소에 기초한 《무전통론》이며 조선력사에 대한 외곡과 날조이다.

피뢰도당은 《근대화》라는 미명밑에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애국적인 반항정신을 마비시키고 압살하려는 목적으로 《문예중흥》이라는 윤주영의 글을 통해 남조선인민이 민주적성격, 《민족성》을 《① 과거지향적, ② 비생산적, ③ 비합리적, ④ 소극적, ⑤ 의존적인 모습》으로 규정하게 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적식과 혁명정신을 말살하려고 책동하였다.

오늘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화정책에 충실히 복무하고있는 전두환피뢰도당이 민족문화와 전통을 외곡말살하고 복고주의적우매화정책을 선전하면서 남조선인민의 민족적성격, 《민족성》을 《사대주의적당파성》, 《문화적독창성의 결여》, 《지리적숙명론》 등으로 외곡말살한 일제어용학자들의 반동적리론을 력사저술을 비롯한 각종 문예출판물에 그대로 반복 서술해 하고있다.

일제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외곡말살하여 우리 민족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잃게 하고 민족렬등의식을 주입시켜 놈들의 식민지통치, 《황민화》정책에 《순응》케 하려는 어리석은 목적을 추구하여왔다.

오늘 미제의 식민지로 전변된 남조선에서는 일제식민지통치시대와 같은 력사적상황이 되풀이되고있는것이다. 미제는 일제의 《황민화》 대신에 《아메리카니즘》, 《미국식생활양식》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침투시켜 민족허무주의의식을 주입시키고 그 기초우에 숭미사대주의사상을 고취함으로써 남조선을 사상문화적으로도 영원히 식민지로 만들자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에서 돌아온 한 사람은 박정희피뢰도당의 《근대화》정책을 가리켜 《서구화》라고 하였고 《미국화》라고 하였으며 최근 남조선의 현 출판학회 회장까지도 《한국의 출판형태는 35년전 일본의 양상과 비슷하다.》고 개탄하였다.

이로부터 남조선의 한 기자는 《일본어와 미국어라는 이 이중어가 나를 키워오는동안 나의 의식은 실향했다.》고 하면서 양키의 말이 우리 민족어를 구축한 사실을 개탄하였으며 최근에 《문학의 사회적소외》라는 글에서 한 평론가는 《서양문물에만 줄곧 휩쓸려가는 지금의 시대에 <내것>, <내문학> 만은 지켜야 할것인데 이것마저

뒤전에 밀리면 어디에다 우리의 뿌리를 내릴 것인가》하고 개탄하고 있다.

미제의 식민지화정책에 충실히 복무하고있는 전두환괴뢰도당은 일제가 그러했던것처럼 우리나라의 력사와 문화를 서술하는데서 《지리적숙명론》을 되풀이하면서 민족허무주의의식을 일층 조장시키고있다.

《지리적숙명론》은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민족이 살고있는 이 강토와 그 자연지리적환경이 민족성을 결정하고 우리의 민족문화와 력사를 규정하였다는것인데 과거 일제는 이것을 가지고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합리화하려고 책동하였다.

일제는 이 《지리적숙명론》을 구실삼아 우리 민족은 민족사를 자주적으로 추진시키지 못하고 민족문화를 자주적으로 창조할 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항상》 타민족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지껄였다.

이것이 일제식민지통치자들과 그 사환군들인 일제의 어용학자들이 조작한 《지리적숙명론》에 기초한 조선력사발전의 《타를성》에 대한 설교였다.

이러한 《타를성》의 설교는 오늘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화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고있는 전두환괴뢰도의 《안보론》에 반영되어있으며 숭미사대주의자들의 문학평론과 문학작품에 여러가지 형태로 굴절되어 반영되고있다.

그들은 고구려의 예술, 강서고분의 벽화에 표현된 영웅적기상을 <대륙에 린접>하여 《북방문화》를 수용하였기때문이라고 선전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고구려인민의 자연과의 투쟁, 외래침략자들과의 투쟁에서 형성되고 발전된 고구려인민의 완강한 자주정신을 부인하고 문화창조의 주체성을 말살하는것이다.

그뿐만아니라 《지리적숙명론》을 날조하고 그것을 각종 형태로 변종시킨자들은 문학작품에서 력사적으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근로인민의 애국의 력사를 말살하고 조선민족의 민족적성격을 《애수》, 《설음》, 《청승》 등의 무기력, 무저항의 특성으로 선전한다.

이자들은 자연지리적환경때문에 우리 민족은 력사적으로 《슬픈 력사》를 물려받았으며 여기로부터 우리 민족은 반항없는 민족, 환경에 순응하고 어떤 식민지통치에도 《량순》하게 《복종》하는 숙명론을 가져왔다는것이다.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에서 오늘 아메리카니즘에 물젖은 숭미사대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주체적인 민족사와 민족문화를 이런 식으로 말살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의식과 반항정신을 무마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전두환괴뢰도는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민족적자부심을 말살한 기초우에서만 제놈의 파쑈통치체제를 부지할수 있다고 타산한것이다.

이밖에 남조선문단에서 미제와 전두환괴뢰도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인한 민족허무주의독소는 《무전통론》의 변종인 《전통단절론》, 《이식문학론》, 《모방문학론》이 오늘도 계속 활개치고 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이 《전통단절론》, 《이식문학론》, 《모방문학론》은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민족문학전통은 없고 만일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20세기초에 이미 단절되었으며 그대신 현대에까지 서구의 《이식문학》과 《모방문학》만이 전통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이러한 《전통단절론》, 《이식문학론》, 《모방문학론》을 주장한 몇개의 실례를 들면 일찌기 남조선 모더니즘의 신봉자의 한 사람은 《우리의 고전문학에 있어서 신화, 향가, 백제시가, 고려장가, 조선봉건왕조가사를 비롯하여 시조 등 시문학형식에 의한 시적유산 그리고 춘향전으로 대표되는 설화체의 소설형식에 의한 문학적유산이 얼마든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은 거기서 전통의 주체를 발견할수 없는 형편이다.》고 지껄이면서 20세기초에 우리 민족의 문학전통은 《단절》되고 그대신 서구문학을 이식하고 모방한 문학이 현대문학의 《전통》으로 되었다고 뇌까렸다.

한국문단에는 이밖에도 《전통단절론》, 《이식문학론》, 《모방문학론》을 주장하는 평론가 작가들이 허다하다.

그들은 신문학을 《뿌리없는 이식》으로 시작했다고 하며 발상법과 표현형식은 서양에서 이식하였다고 하였으며 신문학은 전통을 부정한 바탕에서 탄생했다고 떠벌였다.

실례로 한 평론가는 《문학적식민지의 백성으로서 우리 나라 작가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중국, 일본, 서구의 문학을 그대로 답습해왔다.… 주체성의 상실에서 야기되는 사상적카오스가 문학의 불모지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췌쳤다.

민족허무주의사상에 기초한 이러한 반민족적인 반동사상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다 아메리카니즘에 물젖은 숭미사대주의자들과 서구문학송배자들, 현대부르조아형식주의문학의 대표자인 모더니즘신봉자들의 문예리론과 문학이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화정책과 전두환괴뢰도당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충실히 복무하고있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이리하여 아메리카니즘의 선전원역할을 수행하고있는 한 평론가는 남조선문학의 주인공의 이름이 《무성격적》이므로 서양식으로 《부라운》, 《아나벨. 리》 등과 같은 이름으로 고치는것이 좋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리론까지 들고나왔던것이다.

이밖에도 남조선문학계와 력사학계에서 민족허무주의독소에 기초한 문화전통말살론의 변종은

《동서문화의 절충적조화론》에서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는 남조선력사학자들, 문학사가들이 다수 포함되고있는데 그들은 동양문화와 서양문화를 균등하게 절충하여 새로운 문학을 건설하라고 력설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민족문학건설에서 주체적립장에서서 외래문화를 비판적으로 섭취하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 나라 민족문화에 대한 불신과 과소평가를 반영하고있는 견해로서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끌어들이는 서구의 부르조아타락문화와 아메리카니즘의 침습앞에 문을 활짝 열어주자는 것이다.

또한 이밖에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은 우리 나라 민족문화의 고전문화에 대한 외곡과 비속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있는 복고주의경향에서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최근 전두환피뢰도당은 남조선에서 한편으로 아메리카니즘을 대대적으로 류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반동적인 미신승배사상과 봉건유교사상을 부활시키며 온갖 낡고 뒤떨어진 문화를 미화분식하는 복고주의사상을 널리 퍼뜨리고있다.

남조선 시문학분야에서 불교의 《3세인연관》을 부활시키는 《신라정신》, 소설분야에서는 《토착문학》이라는 미명밑에 미신승배사상인 무당의 주술, 샤마니즘이 문학적주제영역에 널리 침투되고있으며 봉건적층효사상이 교육문화에 널리 류포되고있다.

우리 나라 고전문화에 대한 외곡과 비속화는 최근 전두환피뢰도당의 비호를 받고 남조선부르조아 형식주의미학의 전도사격으로 활동하고있는 원형잡이 우리 나라 실학파의 거장 연암 박지원의 문학을 형식주의문학의 《창시자》로 묘사하는 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이자는 《호질》을 비롯한 연암의 모든 작품에 나타나고있는 풍자와 비판정신을 《무의미》한것으로 외곡하면서 연암의 모든 작품을 무사상성의 형식주의문학이라고 외곡하였다.

최근 남조선에서 널리 퍼지고있는 이러한 우리 나라 고전문화에 대한 외곡과 비속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복고주의경향은 미제와 그 주구 전두환피뢰도당의 민족문화말살정책이 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우매화정책의 일단인것이다.

미제와 아메리카니즘의 침투와 전두환역도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추종하여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발전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고귀한 문화유산과 전통을 부인말살하는 민족허무주의사상독소는 남조선부르조아반동문학인들속에 이처럼 악성전염병처럼 만연되었다.

야수성과 침략성, 략탈성과 파괴성을 그 사상정신적내용으로 하는 미제의 침략도구인 아메리카니즘과 미제의 주구 전두환역도의 민족문화말

살정책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화정책의 산물로서 그것은 정치, 경제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유린말살할뿐아니라 정신문화에서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말살함으로써 사람들을 정신적 불구자로,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 제국주의침략의 본성적특징인것이다.

과거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이 먼저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 나라를 예측시킨 다음 놈들의 식민지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영구화》하기 위하여 정신문화적으로 우리 민족을 노예화하기 위한 《황민화》정책을 실시한것처럼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 전두환역도가 추구하는 아메리카니즘의 침투와 민족문화말살정책도 바로 남조선을 놈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며 저들의 파쑈독재체제를 오래 부지하여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의 이러한 야망은 인간의 정신문화의 가치가 가지는 상대적 공고성과 영구성을 악용한 반동적정책이다.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인간의 투쟁에서 인간의 정신문화창조가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여줌으로써 인류에게 정신문화발전의 위력한 무기를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는 인민들의 생활과 민족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참다운 문화가 없이는 인민들의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에 대해서도, 민족의 융성과 발전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물질적재부를 창조할뿐아니라 정신적재부도 창조한다.

원래 사람은 물질적재부와 정신적재부를 창조하는 과정을 통하여 육체적생명을 가진 인간을 사회적인간으로, 보다 발전된 인간으로 키워왔다. 말하자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서의 인간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풍부화시켜갔다.

여기서 사람들의 사상정신적재부의 발전과 풍부화과정은 곧 사람들의 가치,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이 보다 높아지는 과정이며 이 과정은 중단되지 않으며 또 그 누구도 중단시킬 수도 없고 정복할수도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억압받고 천대받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자기 운명의 당

당한 주인으로 등장한 인민대중이 자기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민족의 새 력사와 민족의 참다운 문화를 창조해나가는것은 그 어떠한 힘으로도 정복할수 없고 막을수 없는 현대력사의 기본 추세이다.

그러나 오늘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전두환역도는 시대에 역행하여 우리 민족의 유구한 정신문화를 유린말살하고 남조선인민들을 저들의 《영원한》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사상정신적으로 우매화하며 불구화하려고 아메리카니즘과 민족허무주의사상독소를 퍼뜨리는 음흉한 술책과 온갖 책동을 다 감행하고있다.

특히 놈들은 최근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민족자주의식을 무마하고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남조선문학의 각 분야에 몽매주의와 복고주의적우매화정책을 추구하는데 광분하고있다.

그러나 놈들의 이 모든 민족문화말살정책, 우매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의 민족문학은 유구한 력사발전에서 많은 민족적유산과 전통을 남겨놓았다.

과거의 문화유산을 당성, 인민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 현대성의 원칙에서 정확히 평가하며 과거의 인민적이며 진보적인 문화요소들을 현대적 요구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새로운 민족문학을 주체적립장에서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되며 인민들에게 민족적자부심을 높여주는데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 전두환괴뢰도당에게 복무하는 반동적여용문학인들은 과거의 민족문학 유산을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유린말살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속에 허무주의사상을 퍼뜨리고 숭미사대주의사상을 고취하며 남조선에서 민족문학의 건전한 발전과 사실주의문학의 장성을 가로 막으려는 해독적인 책동을 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괴뢰도당이 추구하는 민족문화말살정책과 아메리카니즘의 압도한 영향밑에서 남조선문학은 전면적으로 와해타락 되고 그 어느때보다도 반동화의 길을 걷고 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민족문화말살정책과 아메리카니즘의 침투에 의하여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복무하는 선진적인 문예사상과 문학예술, 민주주의적지향성을 가진 진보적인 문학예술은 압살되고있으며 그 대신 부르조아관념론과 생물학적인간관에 기초한 자연주의문학과 문학예술의 사상적내용을 거부하는 형식주의문학이 지배적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특히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미화반식하고 숭미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사상을 고

취하는 아메리카니즘의 침투로 하여 남조선문단에는 남북대결의식을 고취하는 《반공》문학을 비롯한 온갖 썩어빠진 퇴폐문학과 색정문학이 란무하고있으며 전두환괴뢰도당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인하여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진보적문학예술의 사소한 싹도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다.

전두환역도가 광주사태직후, 1980년 7월~11월 사이에만도 민족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 239종의 정기간행물을 폐간하고 636개의 중소출판사들을 모조리 폐쇄한 만행은 바로 이것을 말하여준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민족문화의 빈터우에서 민족허무주의사상독소가 널리 류포되던 일제식민지통치의 말기를 방불케 한다.

민족의 자주성이 유린말살되고 진실로 인민적이고 혁명적이며 민족적인 문학예술의 전통에 뿌리 내린 문학예술창조의 참다운 자유가 없는곳에서는 사멸하는 계급과 동물적인간들의 타락상을 반영한 썩어빠진 퇴폐문학과 사이비문학의 잡초만이 우거지는 법이다.

그러기에 남조선의 한 평론가는 최근 《비명문학의 현재를 말한다》는 좌담회에서 《전통부재론을 들고나왔던 그런 상태, 이것이 현대문학사에서 제일 부끄러운 말이 될것이다.》라고 실토하고 있다.

20세기 부르조아문화와 문명중에서도 가장 야수적이며 가장 략탈적이고 가장 파괴적이며 가장 부패타락한 속물적인 아메리카니즘이 번식하고 있는 미제의 식민지로 전변된 남조선에서, 미제의 주구 전두환역도의 파쑈독재가 지배하고 그의 민족문화말살정책이 지속되고있는 사회적조건에서 참다운 민족문화와 예술의 발생과 발전, 형성과 성장은 도저히 기대할수 없는것이다.

오직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의 식민지통치를 분쇄하며 미제의 주구 전두환역도의 파쑈독재체제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이 실현된 조건에서만 참다운 민족문화, 참다운 민족문화와 예술의 발전과 개화를 기대할수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문학예술인들은 민족적량심을 간직하고 지금 영웅적이며 애국적인 항쟁으로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반미자주화투쟁과 반파쑈민주화투쟁의 기치아래 합류함으로써만 참다운 창작의 자유, 진정한 민족문화의 개화를 현실적으로 맞이 할수 있을것이다.